

감귤산업에 기여한 재일동포들

2007. 10

제주발전연구원

목 차

I. 서 론	1
II. 조선시대 이전 제주 감귤	2
1. 제주감귤의 유래	2
2. 고려시대 감귤진상	2
3. 제주과원 설치	4
4. 제주과원의 변천	6
5. 과원의 증설	10
III. 산업으로서의 감귤	13
1. 제주감귤의 현상	13
2. 감귤산업의 역사	14
3. 박용후 『제주도지』의 감귤	19
4. 시대별 감귤재배 기술	22
IV. 현대 감귤산업의 발전 과정	27
1. 감귤 묘목 공급	27
2. 감귤 산업 육성	30
3. 상품 생산	31
4. 시설 재배	35

V. 감귤부흥의 선구자들	37
1. 재일동포에 대한 기대	37
2. 교류의 시작	38
3. 묘목 기증 운동과 연수사업	40
4. 전 재일동포들이 함께	44
5. 농기구 및 방풍림 조성	49
VI. 요약 및 향후 대책	56
<참고문헌>	66
<부 록>	67
1. 재일동포와의 유대강화의 길 - 김영관	69
2. 재일교포에 대한 나의 신념 - 김영관	74
3. 재일교포와 향토와의 가교 - 홍순만	85
4. 제주개발회사(가칭)의 설립을 바라면서 - 권용식	91
5. 1세들의 회고(좌담회)	96
6. 연수생 좌담회	101
7. 흙으로 오던 길 - 고정국	106
8. 정승연·고장수 좌담	117

표 목 차

<표 1>	17세기 제주과원의 분포와 종류별 감귤나무 수	8
<표 2>	17세기 군현별 감귤나무 분포	9
<표 3>	16세기 이후 과원의 수	11
<표 4>	조선시대 귤 생산 현황	16
<표 5>	조선시대 과원 현황	17
<표 6>	감귤묘목 수입 현황	28
<표 7>	1970년도 도내 감귤묘목 생산	30
<표 8>	감귤산업의 재원별 투자 상황	31
<표 9>	년도별 감귤의 생산 현황	33
<표 10>	년도별 감귤생산 추세 분석	33
<표 11>	전국의 주요과실과 감귤의 생산동향 비교	34
<표 12>	하우스 감귤(온주밀감) 재배 현황	3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제주감귤은 1960년대를 부흥기로 그 후 반세기에 이르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제주 감귤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부흥기에 선구자나 큰 공적을 남긴 이들에 대한 내용은 정리되지 않고 있다. 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당시를 거슬러 바로 기록, 정리함으로써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후세대들에게도 제주 감귤 산업에 기여한 큰 자취를 바로 알려야 할 의무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며 배경이다.

2. 연구목적 및 범위

제주 전역의 감귤 묘목 도입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 체계화하여 감귤산업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면서 감귤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아울러 감귤묘목의 도입과 재배 등 감귤산업의 발전역사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감귤산업에 공헌한 분들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증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합리적인 보상 방안 등을 제시한다.

3. 국내·외 연구 동향

제주 감귤산업 발전과정에서의 감귤묘목 도입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다양한 조사연구와 정리가 바라지고 있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감귤부흥기 묘목 도입과정에 대한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감귤산업의 역사성을 되새기며 감귤 주산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아울러 묘목도입에 공헌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기는 작업을 통해 서로 유대를 한층 돈독히 하여 새로운 동반자적 발전관계를 모색한다.

II. 조선시대 이전 濟州柑橘¹⁾

1. 제주감귤의 유래

제주도는 연평균 기온이 15℃내외이며 최저기온은 영하 3℃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많지 않으며 저온의 지속시간도 짧아 우리나라에선 감귤재배의 최적지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 온화한 기후 환경여건상 감귤의 자생지권에 속하므로 예로부터 자생종이 있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의 서쪽으로 쿠로시오 해류의 일파(一派)가 지나감에 따라 남쪽지역 감귤의 원생지로부터 감귤류가 표착, 생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해상교통이 열린 후 제주도민이 남쪽 지방 곳곳에 표류 및 귀환한 사례와 아울러 대륙, 일본, 유구 등 남방으로부터의 난파표착(難破漂着)의 기록, 표류인 왕래, 정상적인 통상 거래와 남쪽 지방인의 이주와 관련시켜 볼 때 타 지역 감귤류의 일부가 제주도에 전입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입된 외래감귤과 제주 재래감귤을 토대로 제주에서 감귤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최초로 감귤을 경제적으로 재배한 지역은 중국이다. 중국 문헌에 감귤이 기록된 것은 기원전 300~400년으로 세계에서 감귤에 관한 최고(最古)의 기록이다. 중국 고전인 『화식전(貨殖傳)』에는 '촉한강 땅에 귤 1천 그루를 심은 농가는 천호의 제후왕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천성·호북성·호남성에서 감귤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중국인들이 최초로 감귤을 경제적으로 재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귤이 제주도에 들어온 유래는 분명치 않으나 감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고려 문종 6년(1052)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부터 이미 감귤재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일본에서 일부 감귤 품종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처럼 적어도 11세기부터 재배되고 진상되었던 기록이 있다.

2. 고려시대 감귤진상

제주도는 5세기 후반에 탐라국이라 불리며 백제에 조공하여 『삼국사기』에 그

1) 정미정,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귤진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석사논문, 2006. 12 .

이름을 남기고 있었다. 이것은 탐라국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인식하고 조공제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중국 '당(唐)'과 외교관계에 맺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탐라가 하나의 '국(國)'으로써 그 이름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탐라의 조공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삼국사기』~문주왕 2년(476)에 '탐라국이 백제에 방물을 바치자 이에 왕이 기뻐하여 사자를 은솔(恩率)로 삼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방물'에 어떠한 품목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뒤 한때 탐라가 공부(貢賦)를 이행하지 않자 동성왕 20년(498)에 백제가 탐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탐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도 탐라 방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다.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탐라가 고려에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태조 8년(925) 11월 기축조에 '탐라에서 방물(方物)을 바쳤다.'라는 기록을 시작으로 현종 이후 '헌방물(獻方物)', '헌토물(獻土物)'의 기록이 계속 보인다. 이러한 '방물'과 '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하나, 현정 3년(1012) 8월 임인조에 '탐라인(耽羅人)이 대선(大船) 2척을 바쳤다'는 기록 외에는 구체적 물목(物目)이 나와 있지 않다.

문종 6년(1052) 3월 임신조에 이르러 '탐라국이 세공(歲貢)하는 귤자(橘子)의 양을 고쳐 100포(包)로 정하고 길이 정제(定制)로 삼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이 감귤류에 대하여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서 '세공귤자(歲貢橘子)'의 세공이라 함은 매년 일정하게 책정된 공물로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공납하던 상공(常貢)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주감귤의 세공유래가 오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제까지는 세공의 양에 일정한 규제가 없었던 것을 이때부터는 100포씩 바치기로 양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에서는 11세기에 이미 감귤을 생산하고, 고려에 진상할 정도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감귤 생산은 보다 앞선 신라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 문무왕 2년(472)방물의 내용 중에 감귤이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문종 7년(1053) 2월 정축조에는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그 아들 배용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와 우황(牛黃) 우각(牛角) 우피(牛皮) 나육(螺肉) 비자(樵子) 해조(海藻) 귀갑(龜甲) 등 물품을 바치므로 왕은 왕자에게 중호장

군(中虎將軍)을 제수(除授)하고 공복(公服) 은대(銀帶) 채단(彩段) 약물(藥物)을 내려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당시 공헌 물목(物目)의 대략을 엿볼 수 있다. 문종 10년(1056) 이후에도 탐라의 고려에 압공(入貢)은 계속되었고, 그 뒤 숙종 10년(1105) 군제실시 이후에 있어 본토에 대한 조공은 더욱 빈번해졌다.

한편 감귤이 귀했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 지기도 했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임정기가 왕명을 띠고 전라도 방향으로 시찰을 갔다가 돌아올 때 왕에게 바치고자 꿀나무 두 그루를 궁궐까지 가져왔으나 말라죽었다. 임정기도 말라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나 왕에게 감귤나무를 보여 점수를 따보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 제주과원 설치

제주과원은 감귤류를 포함한 비자, 치자 등 과수(果樹)를 심고 과실(果實)의 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주과원이란 조선시대 과원제도에 의해 제주도에 설치된 과원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조선시대 제주과원의 특징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과원제도는 태조 3년(1394) 7월에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으로 바꾼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과원제도를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의 기록을 통해 조선전기 과원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러 고을에서는 옷나무(漆木) 뽕나무(桑木) 과일나무(果木)의 그루 수 및 다투나무밭(楮田) 왕골밭(莞田) 살대나무가 생산되는 곳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옷나무 뽕나무 과일나무는 3년마다 장부를 고쳐 작성한다.) 공조(工曹) 본도(本道) 본읍(本邑)에서 보존하며, 나무를 심어 가꾸고 키운다.

제주(濟州) 세 고을의 감귤나무 유자나무(柚子)는 매년 심거나 접을 붙이고, 비자나무(榿木) 노나무(爐木) 산유자나무(山柚子木) 이년목(二年木)은 근처에 사는 사람을 정하여 이를 돌보고 지키도록 하며, 세초(歲抄) 때에 그 숫자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변 여러 고을의 감귤나무와 유자나무는 매년 가을 관찰

사가 파견관(차사원 : 差使員)을 정하여 돌보게 하고 그 수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위의 『경국대전』~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 기록에 따르면 과일나무의 수를 파악하고 3년마다 장부를 작성하여, 공조에 1부, 관찰사 1부, 군현에 1부씩 보관함을 알 수 있다. 과일나무의 관리 및 정확한 과실 수확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는 감귤나무와 유자나무 증식을 위해 접붙히고, 돌보고 지키는 이를 따로 두기도 하였으며, 감귤나무와 유자나무의 수는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이는 감귤 재배 확산을 위한 노력들로 임금에게 보고 할 만큼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나무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과원제도를 이어 관원들이 과원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과원도 조선전기에 제도화된 것이나, 실제로는 고려시대 과원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속대전(續大典)』~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 기록에는 감귤에 관한 수상제도와 희귀감귤의 재배에 따른 상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 등 세 고을에 있는 희귀한 과일나무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어서 가꾸게 하며 그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펴서 상벌(賞罰)을 주어 권장 또는 징계한다. 당유자 당감자 각 8주, 유감 20주 동정귤 10주를 심은 자에게는 복호(復戶)를 해주고 당감자 당유자 각각 5주, 유감 동정귤 각 15주를 심은 자에게는 면포(綿布) 30필을 준다. 만약 상을 받거나 복호 후에 가꾸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서 (과일나무가) 말라 죽거나 손상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포(償布)를 반납하도록 하고 또 본 역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복호된 사람이 심은 나무수를 6년마다 통산하여 원수이외 배수를 심은 자에게는 상포를 헤아려 주며 세포 때마다 임금에게 보고한다. 위 기록에 의하면 희귀감귤에는 당유자 당감자 유감 동정귤 4종의 감귤나무가 있고, 이러한 희귀감귤 심기를 장려하기 위해 수상제도와 복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상과 복호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복호가 되려면 당유자 8주, 당감자 8주, 유감 2주, 동정귤 10주를 심어야 하므로 모두 46주를 심어야 하고, 상포 30필을 받기 위해서는 당감자 5주, 당유자 5주, 유감 15주, 동정귤 15주 총 40주를 심어야 했다. 수상을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과일나무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벌칙으로 상포 반납과 복호는 원상복구(原狀復舊)로 본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무리한 제도였기에 제주도민들은 관가의 무리한 감귤의 징수에 반감을 품게 되었고, 심하면 감귤 나무의 뿌리를 뽑아 소각해서 징수의 근거를 없애려고 하였다.

조선시대 감귤재배의 확대 및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 지역으로의 이식, 외래 감귤종자의 도입, 과원의 설치, 선진 농가를 시범농가로 지정하거나 증식한 농가에 대한 포상 또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태종 12년(1412)에는 상림원별감 김용성(金用性)을 제주로 보내어 감귤 수백 그루를 순천 등의 바닷가에 위치한 고을에 심게 하였고, 태종 13년(1413) 10월에는 전라도 바닷가 여러 고을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중종 16년(1521)에 기록을 보면 감귤을 남해안에 옮겨 심었으나 끝내 열매가 맺지 않았음이 기록되어 있다. 남해안 일대뿐 아니라 강화도 부근까지도 감귤을 이식 재배하고자 한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기후가 다른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이식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아주 실패한 것만은 아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경상도 동래현의 토공(土貢)으로 귤이 있었으며, 전라도 영암군과 강진현, 순천도호부, 고흥현, 장흥도호부의 토공과 토산(土産)으로 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진현의 백련사 뜰에 귤나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정조 23년(1799) 기록에 ‘유자는 병진년에 큰 바람이 분 뒤에, 응당 바쳐야 하는 거제 고성 남해 등 3개 고을의 유자나무는 모두 얼어 죽었고, 진주 경내의 창선도(昌善島) 적량진(赤梁鎭)에만 10여 그루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일부 전라도에서도 감귤이 재배지역 확대의 노력은 감귤 재배지가 기후적 여건상 제주도로 한정되어 있었고, 중앙에서의 감귤의 수요는 많았지만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관에서 감귤 공급을 원활히 하고 과실의 진상을 위해 제주도에 과원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4. 제주과원의 변천

본격적인 제주과원의 조성은 중종 21년(1526)에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정에 감귤을 진헌하기 위하여 다섯 방호소 <별방(別防) 수산(水山) 서귀(西歸) 동해(東海) 명월(明月)>에 각각 과원을 설치한

후 이곳에 감귤을 옮겨 심은 뒤, 그곳에 있는 군사로 하여금 과원을 지키게 했다.

『여지승람(餘地勝覽)』에 의하면, 새로 증설할 때의 과원은 제주에 19곳, 대정 6곳, 정의 5곳이었는데, 지금은 제주에 3곳, 정의에 2곳이 증설되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사유한 감귤을 침해하고 책임을 지우는 폐단은 심하다고 할 수 없다. 하물며 지금 따로 감관(監官)과 많은 직군들을 차정(差定)하여 더욱더 헐어진 데를 고쳐 쌓고 감귤나무를 재배하면 저절로 민가의 감귤을 침해할 염려가 없게 된다. 만약 드물게 감귤이 맺힌 해를 만나면, 값을 치루어 진상할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탐라지』~과원조(果園條)의 기록을 통해 이수동 목사가 제주도에 과원을 설치한 이후 4년이 지난 중종 25년(1530)에는 과원이 30곳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526년 과원 설치 이후 과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년 만에 25곳이나 급증하였으니 이목사의 과감한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과원이 1526년에 처음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과원 외에 1526년 이후 이수동 목사 때 5곳이 추가 개설되어 30곳에 이른 것이라고 파악된다. 이후 18세기에 접어들면 과원 수가 42개소에 달하고 19세기에도 제주과원이 54개소에 이른다. 이러한 제주과원에 대하여 이원진의 『탐라지』(1653) 과원조(果園條) 기록을 통해 17세기 제주과원에 대하여 살피고, 이형상의 『남환박물』(1704년) 지과조 기록에서 18세기 전반의 제주과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세기 중반의 제주과원은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2~1843년)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처럼 시대 구분을 통해 전반적인 제주과원의 변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탐라지』~과원조(果園條)의 기록을 통해 17세기 제주과원의 분포와 종류별 감귤나무 수를 파악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7세기 제주과원의 분포와 종류별 감귤나무 수

군현	종류 과원	감자	금귤	당금귤	당유자	동정귤	등자	산귤	석금귤	유감	유자	지각	청귤	소계
		제주 목 (23)	남과원	6			8	2	4	15	2		4	2
신과원	63			2	14			26	1	1	5	8	22	142
연로								9			35		9	53
소림											201			201
신촌	1							8			33			42
조천	4							3			7		1	15
지지	3							4			32		4	43
함덕	10										67			77
선흘											47			47
북포								11			18			29
김녕	4					1		6		1	52			64
청동											177			177
묘유						1		14			46			61
해안											151			151
용동	30										101			131
덕천						2					54		21	77
광령								1			80			81
우라	4							25			23			52
부면	6							33			109			148
월계	3							3				11		17
문건	3							4			83			90
관지								1			122			123
저전														0
소계	137	0	2	22	6	5	162	3	2	1,447	21	66	1,873	
정의 현 (8)	정자							13			7			20
	독학							15			31			46
	별과원										11	11		22
	우전								3	52				55
	금물							2		55				27
	향목		1							1				2
	원통				2			4			119			125
	성산													0
소계	0	1	0	2	0	0	34	0	4	275	0	11	327	
대정 현 (6)	고둔				1	3		22	12	4	66	3	3	114
	법화								1	2	66			69
	동천								1		61			62
	병악										40		1	41
	별과원										54		1	55
	암림													0
소계	0	0	0	1	3	0	22	14	6	287	3	5	341	

자료 : 이원진<탐라지> 1842~1843 과원조 참조 작성

<표 1>과 같이 17세기 제주과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목 23개소, 정의현 8개소, 대정현 6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며, 과원이 제주목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과원에 식재된 감귤의 종류를 파악해 보면 감자나무는 제주목에서만 재배가 되고 있었으며, 제주목에는 전체 12종의 감귤 중 금귤을 제외한 11종의 감귤이 모두 식재되어 있다. 제주목에서 재배되는 감귤나무 수는 1,873그루로 전체 감귤나무 2,541그루 중에 73.7%에 해당한다. 정의현에는 정자과원을 포함한 8개 과원이 있으며, 12종의 감귤 중 금귤(金橘), 당유자(唐柚子), 산귤(山橘), 유감(乳柑), 유자(柚子), 청귤(靑橘) 6종이 식재되어 있었다. 정의현 감귤나무의 수는 327그루로 12.9%를 차지한다. 대정현에 위치한 과원은 6개소이며 당유자, 동정귤(洞庭橘), 산귤, 석금귤(石金橘), 유감, 유자, 지각(枳殼), 청귤 8종이 식재되어 있었고, 감귤나무는 341그루로 전체 감귤나무의 13.4%에 해당한다. 17세기 군현별 감귤나무의 분포를 파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7세기 군현별 감귤나무 분포

과원 종류(그루)	제주목(23개소)	정의현(8개소)	대정현(6개소)	소계	비율(%)
감 자	137	-	-	137	5.4
금 귤	-	1	-	1	0.03
당금귤	2	-	-	2	0.07
당유자	22	2	1	25	1
동정귤	6	-	3	9	0.4
등 자	5	-	-	5	0.2
산 귤	162	34	22	218	8.6
석금귤	3	-	14	17	0.7
유 감	2	4	6	12	0.5
유 자	1,447	275	287	2,009	79
지 각	21	-	3	24	0.9
청 귤	33	11	5	82	3.2
소 계	1,873(73.7%)	327(12.9%)	341(13.4%)	2,541	100

자료 : 이원진 <탐라지> 과원조 참조 작성

<표 2>와 같이 17세기 제주에는 12종의 감귤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그 중 나무수가 가장 많은 품종은 유자로 2,009그루이며 전체 감귤나무의 79%를 차지한

다. 그다음으로는 산귤 218그루 8.6%이고, 감자는 제주목에서만 재배되어 137그루로 5.4%에 해당한다. 이 3품종이 전체의 감귤나무의 93%에 해당하며 나머지 9종의 감귤나무의 수는 미미하다. 특히 금귤과 당금귤(唐衿橘)은 각각 1그루와 2그루로 17세기에는 희귀했던 것 같다. 『속대전』~『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에 희귀감귤이라 하여 재배를 장려한 감귤 중 유감 12그루, 당유자 25그루, 동정귤 9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5. 과원의 증설

1) 18세기 과원의 변화

중종 21년(1526) 이수동 목사의 과원설치 이후 숙종 30년(1704)에는 과원의 수가 42곳으로 증가 하였다. 감귤나무 수도 효종 4년(1653)의 2,541그루보다 증가되어 숙종 28년(1702)에는 6,680그루에 이른다.

18세기 과원을 17세기 과원과 비교해 보면 정의현과 대정현의 과원의 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제주목에 과원이 집중되어 증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에도 이어진다. 즉 제주목에만 과원이 치중되게 된다.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1702년)와 『남환박물』(1704)을 통해 18세기 초 제주과원의 현황과 감귤진상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에는 제주목내 남과원, 신과원, 연로, 소림, 신촌, 함덕, 북포, 김녕, 해안, 덕천, 월계, 판지과원, 등 12개 과원과 정의현의 정자, 독학, 금물, 원통, 성산 과원 대정현의 고둔, 법화, 암림 과원을 포함한 20개 과원은 17세기 기존의 과원으로 1704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18세기에 들어 폐원되는 과원으로는 저지, 저전, 향목 과원과 정의현의 별과원, 대정현의 별과원으로 5곳이 있다. 또한 17세기와 같은 지역이나 지역명이 변한 과원으로는 제주목에 9개 과원으로 조천관, 선흘, 청동뢰, 괴이, 용좌동, 광령, 우라시 과원이다. 정의현내 우진전원 1개, 대정현에 동수와 아악 과원으로 총 12개 과원이다.

18세기에 신설된 과원으로는 10개 과원으로 제주목에 동과원, 서과원, 북과원, 중과원, 별과원, 고여지, 노형, 용선달리 과원 등 8개 과원과 정의현내 상우둔원,

대정현에 읍내원이다.

전체적으로 제주목에서 2개의 과원이 폐원되고 8개 과원이 신설되었으며, 정의현에서는 2개 과원이 폐원되고 1개 과원이 신설되었다. 대정현내 1개 과원이 폐원, 1개 과원이 신설되었다.

2) 19세기 과원의 증설

이원진의 「탐라지초본」(1842~1843년) 과원조(果園條)에 나타난 과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목이 43개, 정의현 6개, 대정현, 5개로 총 54개소이다. 각 군현에 존재했던 과원에 대하여 군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17세기, 18세기 과원과 비교하며 과원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9세기의 과원은 18세기 과원과 비교해보면 신설된 과원이 많다. 제주목내 31개 과원이 신설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동원, 별원, 남남, 중원, 서원, 서북원, 서남원, 신남원, 서파원, 신원, 남별원, 동남원, 동별원, 노형원, 엄장중원, 원으로 4개 과원이 신설되었다. 대정현에는 신당원, 서성원, 남성원 등 3개 과원이 신설되었다. 전체적으로 38개 과원이 신설되었다.

<표 3> 16세기 이후 과원의 수

시대 \ 군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비 고
16세기(1526년)	5개 방호소에 설치			별방, 수산, 서귀, 동해, 명월
16세기(1530년)	19개소	5개소	6개소	총 30개소
17세기(1653년)	23개소	8개소	6개소	총 37개소
18세기(1704년)	29개소	7개소	6개소	총 42개소
19세기(1842~1843)	43개소	6개소	5개소	총 54개소

자료 : 이원진 <탐라지> 과원조 참조 작성

18세기 과원과 비교하여 폐원된 과원을 살펴보면 제주목에 위치한 과원 중 남과원, 신과원, 소림, 신촌, 북포, 덕천, 월계, 선홀, 청도뢰, 광령, 우라, 동과원, 서과원, 북과원, 중과원, 별과원, 노형과원으로 17개 과원이 폐원되었다. 정의현의 과원 중 폐원되는 과원은 5개 과원으로 정자, 독학, 금물, 성산, 상우둔원에 해당

한다. 대정현에서는 암림, 동천, 아악, 읍내원이 폐원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과원은 16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세기 중반에는 54개소에 이른다. 제주목내 과원은 23개소에서 29개소, 1842년에는 43개소에 달한다. 19세기에는 18세기에 존재했던 과원들 중 17개 과원이 폐원되었고, 31개 과원이 새로 설치되었다. 즉 제주목에서 과원의 설치와 폐원이 빈수가 비슷하여 과원의 전체 수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러한 제주과원의 증가는 감귤진상 액수를 충당하고, 과실의 진상을 위해 과원을 늘려나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던 제주과원은 조선말에 이르러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는 감귤재배가 농사의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 진상 또는 세공하는데 1차적으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과다한 진상과 감귤 재배 독려를 피하기 위하여 감귤나무를 비밀리에 고사시키거나 생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제주과원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산업으로서의 감귤²⁾

1. 제주감귤의 현상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기간작물(基幹作物)이란 차원을 넘어서 제주도민의 생명 산업이라고 불린다. 감귤의 연간수입은 6천억원 정도이며 농자재 비용과 유통 및 물류비, 고용인력비 등을 합하면 1조원 규모로 제주지역 총생산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단일작물의 비중이 지역경제에서 이처럼 높은 경우는 제주의 감귤 말고는 찾기 어렵다.

일본의 최대 감귤생산지는 에히메현이지만 이곳에서 감귤의 경제적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수입개방이나 가격파동이 닥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감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에서 지역경제는 관광산업(연간 1조원 규모)과 감귤산업이란 두 개의 축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그런데 관광산업은 역외유출(域外流出)이 심하고 소득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적 측면이나 지역경제의 기여도 측면에서는 감귤산업보다 못한 실정이다. 일례를 들어본다면 관광성수기인 7~8월의 부도율이 감귤출하기인 12월보다 두배가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감귤소득의 약 80%가량이 지역경제에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고 소중한 감귤산업이 최근 들어 수입개방과 정책 부재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99년산 감귤가격은 제주에서 상업적으로 감귤을 재배한 이래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였다. 98년도에는 15kg 한 상자에 평균 경락가격이 1만6천원 정도였으나 99년산은 8천원 정도로 50%나 가격이 하락하였다. 99년도에는 이와 같은 가격하락 현상이 2년 마다 되풀이되는 주기적 해거리 현상에 의한 과잉생산 때문으로 보고 2000년도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도 감귤생산량은 53만톤으로 가장 적정하게 생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시세 좋을 때 가격 2만원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이고, 99년산에 이어 2년 연속 폭락한 것이어서 감귤농가들을

2)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농협40년사』, 2001. 4.

무척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감귤정책은 주로 생산량을 줄여서 55만톤 정도로 적정하게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만큼만 생산하면 이제까지는 좋은 가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적정생산 이론은 2000년산 감귤가격 폭락으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가격하락은 우리에게 이제는 감귤 하나만 생산조정한다고 해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단편적이고 미시(微時)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시대에 수입농산물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오고 있는 때에 과거처럼 우리만 생산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2000년도에 오렌지가 10만톤, 농축오렌지 원액이 4만톤이나 수입됐다. 생과일로 환산하면 50만톤을 수입한 것과 같다. 이만한 물량은 제주 감귤생산량과 거의 같은 것이고 보면 2000년도에는 감귤 100만톤이 생산된 것과 다름없다. 이렇다 보니 감귤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연이어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전체 감귤재배농가의 74%를 차지하는 1ha미만의 소농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가계파산(家計破産)할 수도 있는 심각한 현실을 행정당국이나 생산자단체는 직시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제주에서 감귤산업은 끝났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주의 감귤산업은 어떻게 일궈낸 것인데 쉽게 끝날 수 있단 말인가? 60년대 보리고개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맨손으로 황무지같은 자갈밭과 역새밭을 일궈서 만든 황금작목이요, 도민의 생명산업인데 그렇게 쉽게 끝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산업이다. 지금은 단지 감귤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다른 변환기에 처해 있을 뿐이지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고비를 현명하게 잘 넘기면 제주의 감귤산업은 한단계 높은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2. 감귤산업의 역사

1) 중세이전

제주도에서 감귤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감귤이 제주 특산물의 하나로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은 탐라국시대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 문종 6년(1052)에 '탐라국에서 고려 조정에 해마다 바치는 곶을 100(包子)로 고쳐서 항구한 규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이전부터 곶의 진상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제주에서 유자·청곶·동정곶 등을 재배하여 조정에 진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감곶이 재배되었던 지역은 제주도 이외에도 경상도의 경주, 전라도의 영암 강진 고흥 순천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특산물로 중앙정부에 진상된 감곶의 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중앙정부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감곶은 제주도에서 진상된 것이었다.

2) 근 세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재배된 감곶의 종류로는 아홉 가지가 주종(主種)을 이루었다.

즉, 금곶 유감 동정곶 청곶 산곶 감자 유자 당유자 왜곶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진상품은 금곶 유자 동정곶이었고, 다음으로 청곶 감자, 그보다 조금 못한 것이 유자와 산곶이었으며, 최하가 당유자와 왜곶이었다.

금곶(金橋)은 곶 중에서 가장 빠른 9월에 익고, 유감(乳柑)과 동정곶(洞庭橋)은 10월 그믐 때에 익는다. 청곶(靑橋)은 겨울이 지나 2~3월부터 단맛이 들기 시작하여 5~6월에 이르면 지난 열매는 누렇게 무르익고, 한 가지에 새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청곶은 7월에 이르면 열매 속의 씨가 모두 물로 변화하여 맛이 매우 단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제주에 유배되었던 충암 김정(金淨)은 청곶을 최고의 감곶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곶의 진상을 위하여 곳곳에 과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경국대전>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정의 대정 삼읍에서는 매년 곶 나무를 새로 심거나 접붙이기를 하여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재배하도록 하였는데, 매년 12월에는 새로 심거나 접붙이기를 한 수량을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과수원의 조성은 중종 21년 이수동 목상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그는 5개 방호소(防護所)가 있는 별방(別防) 수산(水山) 서귀(西歸) 동해(東海) 명월(明月)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방호소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

그후 기존의 과원들을 관아 소속의 과원으로 계속 설치하여 나갔고, 중종 25년 경에는 과원의 수가 제주목 19곳, 정의현 5곳, 대정현 6곳으로 모두 30곳에 이르

렀다. 그후 제주목에 3곳, 정의현에 2곳 증치되어 효종 4년(1653)에는 모두 35곳에 과원이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형상 제주목사(牧使) 당시에는 과원의 수가 42곳으로 증가하였다.

<표 4> 조선시대 굴 생산 현황

종 류	특 징	나무수 (그루)	열매수 (개)	비 고
당금굴	달걀 크기, 9월에 익음, 금굴로 대신 진상	2	1,100	2개당 줍쌀 1홉
금 굴	금굴보다 조금 작고 신맛, 10월에 익음	165	10,833	"
동정굴	금굴보다 조금 작고 신맛, 10월에 익음	28	3,364	"
유 감	껍질이 얇고, 금굴 크기, 달고 신맛이 없음, 10월에 익음	45	4,785	1개당 줍쌀 1홉
감 자	잎이 가장 두터움, 열매 껍질에 향기가 없음	120	48,947	"
청 굴	가을 겨울에는 시어서 먹을 수가 없음	255	70,438	청피
산 굴	11월에 익음, 열매는 작아 유자가 없음	2,252	185,455	진피
석금굴	신맛이 거의 없음, 11월에 익음	5	1,021	진상하지 않음
등자굴	열매는 작고 맛이 시다	15	4,369	진상하지 않음
당유자	열매가 모과 크기만 하며, 열매에 물이 많고 상쾌하다	173	9,533	2개당 줍쌀 1홉
유 자	가지와 잎에 가시가 많음, 열매 껍질이 가장 향기로움	3,620	22,041	"
계		6,680	361,886	"

자료 : <경국대전> 숙종 28년조 참조 작성

3) 근 대

현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온주밀감과 만감류는 도입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1902년 프랑스 출신 엄탁가(Emsile, J. Touguet)신부가 제주에 오게 되어 서귀포시 서흥동 성당에 13년간 근무하면서 식물학자로서 제주산 식물을 연구하였으며 벚나무의 원종을 한라산에서 발견하여 벚나무 원산지가 제주임을 규명하기도 했는데 1911년 제주산 벚나무를 일본에 있는 친구 신부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온주밀감 15주를 들여와 심은 것이 현재 제주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온주 밀감이 효시(嚆矢)로 전해지고 있다.

<표 5> 조선시대 과원 현황

삼 읍	과 원 명 칭	과원수(개소)
제 주 목	동 서 남 북 중과원, 신고원, 별과원, 연로, 소림, 신촌, 조천관, 함덕, 고여지, 선흥, 북포, 김녕, 청돌뢰, 묘이, 노형, 덕척, 해안, 용좌동, 우라시, 광령, 우라시, 부면, 월계, 한지, 문건, 용선다리	29
대 정 현	대정현성내, 고둔, 법화, 도수, 암림, 아악	6
정 의 현	정자, 독학, 성산, 우진전, 금물, 상우둔, 원통	7
계		42

자료 : 이상형 <남환박물> 1704년 자료 인용

그리고 같은 해인 1911년 서흥동 출신인 김진려씨가 일본에 갔다가 구마모토에서 접목강습을 받고 온주밀감과 워싱턴 네이블을 가지고 와서 식재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규모를 갖춘 큰 농장을 개설한 것은 서귀읍 서흥리에 일본인 미네(峰)가 개원한 현재의 제주농원으로서 1913년에 온주밀감 2년생 묘목을 도입, 식재한 것으로 그때 심은 고목이 일부 남아 수확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온주밀감을 비롯하여 하귤, 기타 잡감(雜柑)등이 재배에 성공함에 따라 감귤재배에 관심을 가진 농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제 탄압하의 농가 경제의 여건으로 보아 감귤원 개원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조달에 자신을 가진 특수농가만이 가능한 것으로 어렵게 생각하여 일반농가는 개원하는 농가가 별로 없었다. 일부 농가는 몇 그루씩 정원수로 심는데 그치고 재배면적의 확대가 극히 지지부진하여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던 1945년 당시의 감귤재배 실태는 재배면적 16ha에서 80여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해방 후 감귤재배에 대한 의욕이 싹트기 시작했으나 1947년에 발생한 4·3항쟁은 제주도의 농촌을 폐허로 만들어 심어있던 감귤도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방후 1945년 까지 10년간은 감귤산업에 있어서도 침체되어 면적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외국산 감귤의 수입금지로 수익성이 보장되고 4·3항쟁의 여파도 가라앉은 1955년부터 감귤재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본으로부터 감귤묘목의 도입을 서두르는 한편 도내에서 묘목을 생산 보급케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55년부터 1964년까지 10년간에 389ha가 증가되어 제주도의 감귤면적은 407ha까지 확장되었다.

4) 현 대

제주의 감귤은 1965년부터 증식 품이 조성되고 그 식재열이 최고조로 달한 1970년도에는 매년 제주도에 식재된 본수가 282만본에 달하였으며 최대 증식기에 해당되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5년 간에 식재된 본수는 1,016만본으로 연간 평균 203만본이 되었으며 따라서 1964년에 413ha에 불과했던 감귤재배 면적이 10년 후인 1974년에는 11,200ha에 달하므로써 27배라는 전례없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은 감귤이 어떠한 작물이나 다른 과수보다 월등히 수익성이 높는데 기인하고 있지만 그런 면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도 큰 역할을 하였다.

1964년 2월 연두 순시차 제주도를 방문한 故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는 여건이 다른 지역인 만큼 전국 공통사업인 식량증산은 염두에 두지 말고 수익성이 높은 감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는 특별지원을 계기로 해서 1965년부터 재배 품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감귤증식사업을 1968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으로 책정하여 저리융자로 감귤원 조성 자금을 지원케 됨에 따라 1969년부터 획기적인 증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육묘업자를 육성하여 감귤묘목 생산을 장려하였으나 육묘업자 생산묘목만으로 연간 수요량 200여만 본을 충족할 수 없었으므로 일본산 묘목을 재일교포기증으로 대량 도입하여 수요를 충족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량 도입과정에서 불량묘목이 혼합되었을 뿐 아니라 운송과정 중 문제가 발생, 활착불량 등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1971년부터 묘목의 도입을 제한토록 조치하였다.

지역별 재배 실태를 보면 제주도는 해발 200고지 이하는 특별한 저해요인이 없는 한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해수피해(海水被害) 지역인 해안선을 제외하고는 도지역 어디를 가나 굴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1973년에는 감귤재배농가가 2만호를 넘어섰고, 95년에는 26,589농가, 2000년에는 36,590농가, 2005년에는 30,659농가로 제주도 전체농가 36,213농가의 85%나 되고 있다. 생산량이 1970년에 5천톤, 72년에는 11천톤, 73년에는 26천톤으로 거의 해마다 생산량이 10배이상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89년에는 75만톤, 92년에 72만톤, 2002년에는 79만톤이라는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지만 가격은 대폭락하여 감귤생산정책에 생산과잉과 유통처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했다. 가격폭락과 유통처리로 인해서 감귤재배농가들이 처음으로 감귤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 이후 간벌과 적과운동 등으로 감산정책을 꾸준히 펴왔으나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특히 오렌지 수입급증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 99년부터 2002년까지 감귤조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감귤재배면적은 1965년에 551ha에서 68년에는 1,471ha로, 75년에는 11천ha, 92년에는 22천ha로 늘어났고 2005년에 들어서 21,430ha로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 58,442ha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3. 박영후 「제주도지」의 감귤³⁾

귤유는 제주 특산물이요 또 옛날의 특 공물로서 제주의 역사와도 관계가 깊었다. 그러나 본도에 들어온 연대는 미상하다. 처음 민간에서 재배한 것을 징 하여 진공에 사용하였으므로 주민들은 납품에 많은 불편을 보았으므로 중종 21년(1526) 목사 이수동이 진공을 위하여 별방 수산 서귀 동해 명월사 5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하여 귤유를 심고 군졸에게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편하게 되었으며 그 뒤 점차 과원을 가설하여 숙종 14년(1688) 목사 이희룡이 증설이 있었으며 과원에는 과직 감고 수감고 1인씩 두어서 관리하게 하였다.

숙종 28년(1702) 과원 수는 42개 인데 군사 880여명이 교체하여 수직 하였고 주수와 생산량은 다음과 같았다. 당금귤 2주 10, 금귤 165주 10,833, 동연귤 28주 3,364, 유감 4주 4,785, 감자 120주 48,947, 청귤 255주 70,438, 산귤 2,252주 185,455, 석금귤 5주 1,221, 등자귤 15주 431, 당유자 173주 9,533, 유자 3,620주 22,041.

순조 11년(1811) 목사 조정길이 동서 외곽을 개축한 후 성 밑에 과원 12개를 설 하였다. 당시 전도의 과원분시 현황은 아래와 같았다.

<본주> 동과 원 별원 남원 중원 서원 신별 원 북원은 성내에 서성원은 서성 외에 동성 원 동일 원 동이 원 동과원은 동성 외에 남성원은 남성 외에 북일 원 북이 원 북삼 원 북사 원 북오 원은 북 성 외에 서북원은 서북 성 외에 서남 원 신남 원 서과원은 서남 성 외에 신원 남별 원은 남성 외에 동남 원 동별 원은 동남 성 외에 있으며 연노원은 주남 5리에 조천원은 주동 30리에 고여야 원 함

3) 박영후, 「제주도지」 박영사 간, 1976.

덕 원은 동주 35 리에 김녕 원은 주동 60리에 한동 원은 주동 75리에 노가 원 해안 원 용좌동원은 서주 20리에 엄장 원 남원 북원은 서주 35리에 상가 원 부면원은 서주 45리에 용선달원 문건 원 관합 원 서도 원 남도원은 서주 70리에 있었다.

<정의현> 위미원은 현서 55리에 예촌 원은 현서 50리에 우진 원은 현서 30리에 신원 서원은 현서 20리에 원통원은 현서 80리에 있었다.

<대정현> 고둔원은 중문면 용흥리에 법화원은 중문면 하원리 법화사 서에 동수원은 안덕면 화순리 동수원에 암림원은 대정읍 안성리에 남성원은 인성리 남성 외에 서성원은 보성리에 남송악원은 안덕면 서광리에 아악원은 동광리에 있었다. 아악원은 순조 33년 대정현감 김 유 남성에 이설 하였다.

서기 1900년경 신호리 김병호가 육지에서 하골 1개를 얻어 와서 실생으로 심었는데 이것이 하골재배의 효시이다.

동 1909년 신호리 김태진이 당시 표선보통학교 교장이었던 일본인 오쓰이 주선으로 일본 구마모토(熊本)에 건너가서 1년 간 감귤 재배법을 실습하고 귀국할 때 온주밀감과 네블 묘목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이것이 온주밀감과 네블류 재배의 효시이며 동리 김석중의 집에 각각 1본씩 보존되어 있다. 다음은 제주밀감인데 이것은 전기 일본인 오쓰이의 관수로 서귀포에 거주하는 일본인 미네에 의하여 서흥리에 개원되었다.

동 1965년 11월 15일 일본산 감귤묘목 2만여본이 입하되어 각지에 재배하게 되고 동 1968년 3월 12일 농림부는 본도를 감귤생산단지로 선정하였으며 동월 26일에도 일본산 감귤묘목이 입하되어 감귤재배가 전도에 보급되었다.

옛날부터 본도에 재배되었던 감귤류와 그 형질은 다음과 같다.

<유자> 서장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고 한다. 과실은 가을에 황색을 띠어 익는데 맛은 시고 껍질은 두꺼우며 가장 향기가 좋고 달아서 먹을 만하며 향료로 쓴다. 잎은 두껍고 작으며 옆병에 익옆이 있고 줄기와 가지에는 가시가 가장 많다.

<당유자> 당에서 신라를 거쳐 들어왔다고 한다. 모양이 목과와 같은데 조금작고 1승 이상 담을 만하며 익으면 맛이 달고 시원하나 유자만은 못하다. 피종이 탱자와 같고 껍질은 씹으면 향기가 극렬하고 매우며, 추석에 대과가 주렁주렁 달려 누렇게 익은 광경은 참으로 진기하다 할 것이다. 과실은 간암약 감기약으로

쓰인다.

<감자> 과실은 유자보다 작는데 껍질은 얇고 미끄러우며 빛은 황색이고 맛은 시고 달며 씨가 많다. 잎은 가장 두껍고 톱니가 있으며 과실껍질은 향기가 가장 박하다. 조선조 태종 때에 처음으로 왕에게 바쳤고 11월에는 황감과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제주인이 과거를 보려고 상경하면 특히 벼슬과 록을 주기도 하였다.

<유감> 유자와 흡사하나 조금작고 껍질은 두꺼우며 맛은 아주 달고 액이 많다. 빛은 청황색이나 겨울이 깊으면 전부 청색으로 변한다. 과실은 핵이 적고 10월 그믐에 익는다.

<꺽> 초동에 등황색으로 익어 맛은 달고 시다. 껍질은 미숙한 때 따서 말린 것은 청피라고 하며 익어서 말린 것은 진피라고 하여 약제로 쓴다. 잎은 톱니가 있다.

<대금꺽> 껍질은 감자와 같은데 빛은 황금과 같으며 크기는 유감과 같되 떨어지고 맛은 유감과 같되 낫다.

<소금꺽> 빛과 맛은 다 금꺽과 같은데 열매가 매우 잘다.

<동정꺽> 금꺽과 같되 빛과 맛은 다 그만 못하고 소금꺽보다 조금 크다. 10월 그믐에 익는다.

<청꺽> 껍질은 당유자와 같고 작기가 동정꺽과 같은데 빛은 푸르고 맛은 아주 시다. 겨울을 지나 봄 2, 3월이 되면 흑미가 감소하고 5, 6월이 되면 맛이 매우 달며 7월이 되면 핵이 녹아 물이 되며 맛이 좋아지고 황청색이 된다. 8, 9월이 되면 다시 청색이 되고 핵이 다시 생기며 맛도 시어져서 새 열매와 다름이 없으며 신구과실이 함께 달린 광경은 기이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산꺽> 거의 청꺽과 같되 빛이 누르고 핵이 많으며 맛은 시고 달다. 열매는 잘고 씨는 유자와 같다. 약제로 쓰인다.

<석꺽> 크기는 꺽만큼 하고 맛도 비슷하다.

<당꺽> 크기는 유감만큼 하고 껍질은 매우 얇으며 맛은 유감 비슷하다.

<대 꺽> 크기는 유자만큼 하고 맛은 매우 시며 액이 많다.

<소 꺽> 크기는 오리알 만큼하고 비금색인데 서리를 맞으면 껍질이 과육에서 갈라지며 맛은 달고 향기는 적다. 조선조 숙종 16년 청국에서 대감자 5개와 소꺽 10개를 보내어 왔으므로 그것을 심어서 동 36년 처음으로 수확하고 청제에게 선물로 보내었다고 한다.

<금 귤> 맛이 극히 달고 유감보다 조금 크며 9월에 익는다.

<등자귤> 인도 원산인데 유감과 같고 대동소이한데 옆병에 익옆이 있고 맛은 매우 시며 발간제 건위제 조미료 향료 등으로 쓰인다. 과실은 익년까지 가지에 달려 있다.

<지 귤> 형장은 유자와 같은데 익년 봄에 잘 익으면 맛이 당유자보다 나으며 7월에 열매를 말려 지단을 만든다.

<병 귤> 형장이 작은 병과 같고 향기는 유감과 같으며 맛은 그보다 더 좋다.

<왜 귤> 크기는 당유자 다음이고 맛도 당유자만 못하며 씹으면 향기가 매우 강하고 또 매워서 껍질은 진피 대용으로 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개량한 것이다.

<하 귤> 서기 1900년경 신호리 김병호에 의하여 육지에서 들어온 것인데 당유자보다 작고 껍질도 그보다 얇으며 맛이 시다. 익년 봄 익고 등황색이다.

<온주밀감> 서기 1910년 신호리 김태진에 의하여 일본 옹본 에서 들어온 것인데 하귤보다 작고 맛은 훨씬 달며 무핵종도 있어 품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감귤 재배에는 주로 이것을 쓰게 되었다.

4. 시대별 감귤재배 기술⁴⁾

1) 1960년대 이전 상황

제주도의 감귤재배를 기록상으로 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감귤은 온대지방에서는 타 과실과 신선한 채소류가 귀한 겨울철에 공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 등에 저항력을 키우는 비타민C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나 약방에서 귀한 과실로 취급되면서 제주지역 농가에서 오래 전부터 재배되어 내려온 과실이다. 감귤은 한반도에서는 따뜻한 제주에서만 월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는 제사용이나 진상용, 약용으로 쓰이는 감귤류를 재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재배한 감귤은 신맛이 강하고 껍질이 거칠며 두꺼운 것이 많았다. 이들은 모두 최근의 감귤과 다르기 때문에 학술상으로는 재래귤로 표현하고 있으며, 1911년 프랑스 태생인 엄탁가 신부가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아 서귀포시 서흥동 복자수도원에 심은 감귤이 온주밀감이다.

4) 제주감귤협동조합, 『제주감귤농협 40년사』, 2001. 4.

이것을 현대 감귤의 시초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도입되어 심은 감귤들을 개량 감귤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1960년대까지의 감귤 발전과정을 허인옥에 의하면 1900년 이전을 고대기(古代期), 1900~1944년까지는 도입기(導入期), 1945~1952년까지는 황폐기(荒廢期)로 표현하고 있으며, 1953~1960년까지는 재건기(再建期)로 나누고, 그 시대의 감귤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1961~1988년까지는 부흥기, 1989년 이후는 격동기로 나누고 있다.

1960년 이전까지는 기술개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행정기관에서 묘목 도입 실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로 하여 기술하고, 아울러 각 시대별 발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고대기(古代期 ; 1900년 이전)

개량감귤이 재배되기 이전으로 재래감귤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조정에 진상하고, 또한 귀한 과실로서 한약재로 활용하기도 하고, 겨울철 생과용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제주 전지역에서 재배되었다. 종자번식 위주였으며 관리는 거의 자연환경에 의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도입기(導入期 ; 1900~1944)

1900년대에 서귀포 일부지역에 감귤원을 개원하면서 부터 감귤재배가 시작되는데 일반농가에 보급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 부터이다. 당시 식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각 농가에 감귤묘목을 배포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감귤식재를 회피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산 감귤이 자유롭게 유입되어 감귤판로가 막힌 점과 기술부족으로 정식해서 10~15년이 지나야 결실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재배면적은 10여 ha에 생산량 50톤 내외, 품종은 미장계(尾張系)의 보통 온주밀감과 궁천조생, 그리고 소량의 하귤(夏橘)과 네이블오렌지 등이었다.

(3) 황폐기(荒廢期 ; 1945~1952)

8·15 해방과 4·3사건, 6·25동란은 제주도 감귤산업에 있어서 혼란기였다. 해방과 동시에 일본인이 경영하던 감귤원을 인수했으나 기술부족과 비료·농약

등의 자재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4·3사건이 돌발(突發)하여 과원을 방치하고 마을을 소개(疏開)하에 따라 감귤원은 황폐화되었다.

(4) 재건기(再建期 ; 1953~1960)

휴전이 성립되고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감귤수요가 생기고 재배농가의 의욕도 점차로 회복되어 재배면적이 몇년 사이에 17ha에서 93ha로 증가되었는데, 이 시기는 제주도 감귤재배의 재건기에 해당된다. 1954년도부터 일본산 묘목이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묘목을 생산하게 되었다. 1960년도에 감귤협동조합이 결성되었으며, 1958년부터 시험사업도 시작되었고, 재배지역도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소비지 상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였으며 온주밀감은 7관, 하귤은 6관을 나무상자에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감귤재배 기술이라 함은 품종개발에서부터 번식, 재배, 병해충방제, 수확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위를 재배기술이라 표현한다. 재배기술의 변천은 이러한 분야에서 변화되는 내용을 기록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후 각 시대별로 이들에 대한 내용을 요약 기술하고자 한다.

2) 1960년대의 기술발전 상황

1965년도에 재배면적이 600h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에는 4,842ha로 불어나고 있다. 이 시대는 제주감귤이 부흥기가 시작되는 시대로서 감귤 증산계획이 행정적으로 수립되어 일본으로부터 다량의 묘목이 수입되어 전지역으로 보급되어 졌다.

이 시대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주도 농촌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감귤 개각층에 대한 약제선발을 시작으로 품종비교 시험과 품종육성 시험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지대별 재배시험도 실시하여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감귤재배가 곤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굴굴나방 방제, 삼요소 시비시험도 시도되었으며, 특히, 건전한 묘목을 양성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효과 시험과 석회 및 아연효과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결과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체계적인 결론에 이른 기술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쨌든 이 시기는 시험사업이 시작되면서 기술지

도도 수행되는 시기로서 기술서적은 일본어 서적으로는 《감귤(柑橘)》과 《감귤 재배신설(柑橘栽培新說)》이 나왔고, 한국어로 된 기술서적은 1967년도의 한해룡 외 《감귤재배》가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기술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3) 1970년대의 기술발전 상황

이 시대는 감귤 농업인에게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라 할 수 있다. 급속한 재배 면적 확장과 기술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노지감귤 재배기술이 제주도 전체로 확대되어 나간 시기이다. 그리고 각종 온주밀감(溫州蜜柑) 품종이 도입되어 보급되었다. 조생온주, 보통온주가 보급되고 일본에서 선발된 청주온도가 농가에 보급되기도 하였다. 하귤 팔삭 등의 만감류 보급은 줄어들고 온주밀감 위주로 확대 보급되었으며, 감귤재배기술 개발은 제주도 농촌진흥원에서 제주농업시험장으로 이관되어 국가 예산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시험사업은 감귤재배지대 선정시험과 저온장해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저장시험 및 약제 적과 시험이 추진되었다. 또한 감귤 시비시험의 수행으로 제주지역 시비적량이 추천되었고, 창가병 발생 소장과 궂음에 발생 소장 파악, 방제기술, 품질향상 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도 시도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농가기술 지도가 수행되었고 교육 재료로서 감귤재배 신서(新書)가 출간되어 농가에 보급되었다. 그 결과 감귤재배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였고, 감귤양성소 기관이 도입(導入)으로 설립되어 재배 농민들에게 활발한 교육이 전달되었다.

4) 1980년대의 기술발전 상황

1980년대는 재배면적의 증가보다는 생산량이 증가된 시대로 함축할 수 있다. 70년대에 개원된 과원에서 성과수가 되어 열매를 따는 시대인 것이다. 모든 면에서 감귤농가에게는 풍요로운 시대였다.

이 시대에 괄목할 만한 기술발전은 품종도입에 의한 작형(作型)을 늘렸다는 것이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조생온주와 보통온주 중심으로 생산되던 감귤이 극조생 온주품종을 도입 식재 함으로서 수확기를 15~20일 앞당겨 출하하게 되었다. 많은 농가들은 극조생 신품종을 재식해 보려는 노력이 활발하였다. 아울러 농가 경영

실태에 의해서 보통온주 보다는 조생온주 계통이 제주도 기상에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보통온주 보다는 조생온주로 품종을 갱신하는 기술이 전파된 시기이다.

시험연구는 제주농업시험장 원예과에서 담당하여 신품종개발, 재배기술의 다양화, 환경농업관리기술, 병해충 방제, 저장가공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농가지도도 병행해 나가면서 국내외 기술을 보급하는 시대에 해당한다.

5) 1990년대 이후의 발전 동향

1990년에 접어들면서 감귤산업은 불안한 느낌을 주기 시작하였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불안정으로 생산보다는 판로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다른 농가와와는 다른 양상으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처해 가는 모습이 된 것이다. 그러나 독농가들은 새로운 품종을 찾고 새로운 작형을 만들어 가는 기술이 정착되고 있는 시대이다.

새로운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된 청견, 부지화, 진지향 등으로 고접갱신이나 신규개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 새로운 작형은 일남 1호 등에 의한 극조생 감귤로 변화하였고 하우스 재배에 의한 하우스 생산기술이 정착하게 되었다. 하우스 재배도 초기에는 가온작형(加溫作型)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조기(早期)가온 작형, 후기가온 작형, 무가온 작형 등으로 유류가격과 시장판매 가격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술이 잘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형의 분화(分化)나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는 다소 떨어진 느낌이다.

기술개발 내용은 1992년에 제주농업시험장 원예과가 원예연구소 감귤연구소로 확대 신설됨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었고, 새로운 시험포장이 확보됨에 따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육종, 재배, 보호, 저장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항목이 수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6년 10월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간 감귤정보 교류를 위하여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국의 감귤 전문가가 동시에 제주에서 회의를 가지는 행사도 수행되어 감귤기술 개발에 대한 의욕과 개발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IV. 현대감귤산업의 발전과정

제주도의 감귤은 먼 옛날부터 진상품으로 재배하여 오늘에 이르는 재배역사가 오랜 작물이며 재배내력 또한 타 작물에 비하여 분명하게 전해 내려오는 작물이다. 감귤은 예로부터 조정의 많은 통제 하에 재배되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만 재배할 수 있고 도민은 재배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8·15광복 후 1965까지는 감귤에 대해 제주 도민이나 행정부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였는데, 1964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도를 연두순시하면서 제주도는 온난한 지역인 만큼 전국 공통적인 사업인 식량증산 보다는 감귤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65년부터 감귤 재식 붐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 3월 4일 박대통령은 재일동포가 기증하는 감귤 묘목을 종묘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주도에 한하여 통관조치 하도록 지시하여 감귤 진흥사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1965년부터 재일동포들이 감귤 묘목을 기증하여 일대 고향 돕기 운동이 동포사회에 일어났으며 이 무렵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제주개발협회>, <제주도민회>, <제주친목회>, <경제인협회> 등의 단체와 마을 단위 친목회를 통하여 고향에 감귤묘목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8년도부터 제주도의 감귤산업은 직접청와대 농특사업으로 확정하고 저리용자로 감귤원 조성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1. 감귤 묘목 공급

1965년도부터 재일동포로부터 기증묘목과 수입묘목이 제주에 들어오기 심기 시작하여 1970년도에는 1년에 1,604,000본이 들여와 식재되어 1년에 심어지는 본수로 그 유래가 없는 많은 본수이다. 1965년 이후 1969년도까지 기증묘목 및 수입묘목 또는 재산반입으로 들어 온 총 본수는 1,733,711 본이며 수입묘목 본수는 수입업자가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하여 판매되었으며 1969년부터는 동포사회에서 기증하는 묘목이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수입 묘목량은 감소하게 되었다. 1년에 1백만 본 이상의 묘목은 기증, 수입, 재산반입 등으로 들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기증묘목에 대한 수입지침을 강화하고 수입제한을 하게 되었다.

<표 6> 감귤묘목 수입 현황

연도	구분	기증묘목	수입묘목	재산반입	합 계	비 고
1965		1,000	25,349		26,349	
1966		54,700	61,052		115,752	
1967		52,100	250,205	1,675	303,980	
1968		161,500	114,545	13,215	289,260	
1969		998,370			998,370	
1970		1,519,300	77,000	8,000	1,604,300	
1971		1,000		1,000	2,000	
1972						
1973		30,270			30,270	
1974		215,450	33,283		248,733	
1975		270,384			270,384	
1976		66,402			66,402	
1977		2,684			2,684	
1978		4,630			4,630	
1979		85,934	200,000	285,934		
1980						
1981			600		600	모수용
1982			4,866 (접수 95kg)		4,866	
1983			5,712 (접수 95kg)		5,712	
1984			1,500		1,500	
1985			1,500		1,500	
계		3,470,254	774,112	23,890	4,268,256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1970년 1월 27일자 기증감귤묘목 수증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니 이때 참석 대상자는 제주도내 주요 전기관장으로 당시로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당시 도지사 정용식 지사 주제하에 참석대상자로 부지사, 진흥원장, 도실국장, 특작과장, 검찰청 검사장, 대공분실장, 교육감, 세관장, 농협도지부장, 시장, 군수, 감협조합장, 도정자문위원 박경훈, 이홍립, 송방식, 공화당 1, 2 지구당 사무국장, 제주대 백자훈, 교육대학 허인옥, 제주신문, 제남신문 편집국장,

기자단 전병기, 고익조, 묘목생산자 오홍식, 허규태, 일반 부윤경, 강임용, 문종철, 하순봉 등이 참석대상자로서 감귤 묘목 문제가 단순히 묘목의 수요와 공급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경제 발전 방향과 재일동포와의 관계정립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때 결정한 기증묘목 수입제한 이유를 살펴보면 감귤은 20년 후에 성수기에 달하는 관계로 조성단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백년대계를 그르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각 항을 참작하여 품질향상의 토대구축을 목적으로 1970년 봄 수입본수(기증, 수입 등)를 60만 본으로 제한한다.

가. 금춘기 부터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도내 육묘업자의 보호

나. 장차 국제경쟁에 대한 대비와 국민의 기호에 맞는 양질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계통이 확실한 우량묘목의 수입

다. 수요 과다로 인한 상행위의 방지

라. 기증 허용품종 이외의 품종을 허용품종으로 변조 수입하는 사례의 방지

마. 도 증식 본 수와의 조절

바. 양의 증대에만 치중된 도민의 관심을 품질향상의 방향으로 유도

이상과 같이 60만 본으로 제한하자 재일동포단체에서는 동포의 향토개발투자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이 1970년도 봄에 기증 및 수입 묘목으로 공급할 묘목 본수를 60만 본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1,604,300본으로 1백만 본이 초과되는 양이 공급되었으니 행정적 통제력이 상실될 정도였으며, 당시 수입제한 이유로 장차 국제경쟁에 대한 대비와 국민의 기호에 알맞은 품질향상으로 계통이 확실한 묘목을 수입하고 도민의 관심을 품질향상의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방향 설정이었다. 특히 당시로서 국제경쟁에도 대비한다는 것이었다.

1970년도 도내묘목 생산실적을 보면 1년생 규격묘 2,840,000본이 생산 되며 1970년 가을 100만본 공급과 1971년 봄 150만본을 공급할 계획으로 1970년도에만 공급되는 묘목의 본수는 2,604,300본을 공급하여 심었으니 제주도 감귤 500년 역사에 대기록으로 남을 초유의 일이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재배가 증가하는 작물은 우리나라 농업 발전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이후 일본에서 기증 수입되는 양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도를 끝으

로 매듭을 짓게 되었으며 1975년 이후 종묘업을 허가하여 지정된 등록 품종을 육묘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허가된 육묘업자는 2003년까지 총 9명에게 허가되어 종묘생산을 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표 7> 1970년도 도내 감귤묘목 생산

(단위 : 본)

구분 \ 량	아접실시량	활착예상량	규격묘	비 고
지도기관	272,900	218,000	164,000	
지정육묘	2,035,000	1,730,000	1,384,000	
일반농가	3,077,300	2,154,000	1,292,000	
계	5,385,200	4,102,000	2,840,000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2. 감귤 산업 육성

감귤산업이 1968년 농업특별사업으로 확정되고 저리용자로 장려하게 되면서 1968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2백만원, 지방비 1천만원, 용자 3,300만원, 자기부담 4,100만원, 합계 총사업비 8,600만원이 투자되는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업은 오늘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1968년 투자내역 비율에서 총사업비 중 국비와 지방비 투자액 비율은 14%인데 1990년도에는 10.6%, 2002년도에는 47.8%로 그 비율이 높아졌으며 그 액수도 많아 1968년도 이후 2002년까지 감귤산업 총 투자액은 6,133억 4,5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 중에 국비 17.4%, 지방비 18.5%, 용자 41.1%, 자부담 23%로 구성되고 있다. 같은 기간 감귤의 총 조수입은 6조7,149억원으로서 총 투자액의 11배 액수에 해당되나 관련 산업 즉, 노임, 비료, 농약, 포장, 수송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치면 같은 기간 10조 이상으로 추정되어 감귤 산업은 명실상부한 제주도 경제발전을 선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표 8> 감귤산업의 재원별 투자 상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용 자	농가부담
1968	86	2	10	33	41
1969	372	24	10	177	161
1970	312	26	6	124	156
1971	331	11	12	136	172
1972	479	-	3	212	264
1973	615	-	3	275	337
1974	800	-	3	336	461
1975	803	-	4	530	269
1976	796	-	51	565	180
1977	510	-	7	310	193
1978	535	-	-	367	168
1979	3,626	-	-	2,411	1,215
1980	2,979	97	-	1,891	991
1981	2,352	-	-	1,832	520
1982	3,539	-	-	2,996	543
1983	2,465	-	-	1,689	776
1984		-	-	-	-
1985	3,864	-	10	2,576	1,278
1986	4,652	-	10	2,974	1,668
1987	3,021	149	107	1,684	1,081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3. 상품 생산

제주도 감귤생산의 통계적 기점은 1951년부터 시작된다. 감귤 묘목의 외국 수입 시점은 8·15광복 후 묘목 수입 자료가 1965년도부터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주도에 감귤 묘목이 수입되었다는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국비, 지방비, 용자) 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8년도부터이다.

1960년도 92.7ha에 생산량 190.4M/T으로 1970년도와 비교하면 면적에서 52배, 생산량에서 26배 증가하였고, 1970년도에서 1980년도에서는 면적에서 2.9배, 생산

량에서 37.7배, 조수입에서는 57.2배로 증가하여 10년단위로 구분 비교해 볼 때 1970년에서 1980년까지 사이에 매우 높은 증가를 하고 있다.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면적, 생산량, 조수입에서 1.1~1.3배 정도가 증가되어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2002년에 생산량 788,679M/T는 제주도의 감귤 재배 역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나타내었고 1989년도는 746,400M/T가 생산되어 두 번째 많은 양을 생산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나 조수입에서는 오히려 적게 생산된 해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하여 가격유지 정책이 절실하게 되었다.

감귤의 조수익면에서 1996년도 생산량은 479,980M/T가 생산되어 농가 조수입은 감귤 역사상 최대인 6,079억 3천2백만원이었고 다음이 1994년 생산량 548,945M/T에 5,521억 2천만원이고, 1990년 이후 그 해 생산량이 적을수록 조수입은 많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나서 과잉생산이란 결론 하에 재배면적을 줄이고 재배작형을 바꾸는데 노력하여 왔다.

1966년도에는 1,722M/T를 생산하여 당시 금액으로 2.8억의 조수입을 얻었고 이는 제주도 농업에서 조수입 구성비 5.3%를 차지하게 되어 이때부터 감귤은 제주도 농업에서 소득작물 즉 경제작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제주도 농업 조수입 구성비에서 50%를 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도 50.7%에서부터 시작하여 1991년도에는 67%를 점유하여 최대의 소득작물이 되었고, 감귤산업은 1990년대 조수입 절대액수로 최성기를 맞으면서 발전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농산물 개방이라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 1999년부터 조수입 절대 액수도 낮아지고, 제주도 농가 조수입 구성비에서도 43.8%로 낮아졌으며 이후 급격히 낮아져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전체 생산량이 많아지는 이유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져 그 만큼 생산기술이 19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도에 ha당 1.2M/T에서 1990년도에는 25.4M/T 2002년도에는 31.3M/T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였는데, 1990년도 25.4M/T은 일본의 평균 생산량 23M/T보다는 많고, 미국의 27M/T보다는 낮으나 생산기술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렀다 할 수 있고, 2002년도의 ha당 31.3M/T는 세계적 기록으로 유래 없는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감귤 1kg당 가격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도에 192원(당시 금액), 1980년대 비하면 1990~2000년도에는 22%~22.6%에 불과하였고, 2002년도에는 13.8%에 불과하여 1980년도가 최고의 가격이 유지되는 시기였다.

<표 9> 연도별 감귤의 생산 현황

(단위 : ha, 호, M/T, 백만원)

구분 연도별	면적	농가수	생산량				조수입
			계	조생	보통	만감	
1930			98.0				
1951	16.6		138.7				
1955	18.4		171.6				
1960	92.7		190.4				
1965	551.3		1,083	-	-	-	-
1970	4,842	1,732	4,972	-	-	-	634
1975	10,930	8,030	81,105	28,792	50,281	2,032	7,348
1980	14,095	19,996	187,470	60,060	126,140	1,270	55,088
1985	16,969	23,332	394,300	136,800	253,600	3,900	115,582
1990	19,414	25,616	492,700	256,800	231,000	4,900	315,100
1995	21,605	26,589	614,770	40,130	158,460	6,180	433,447
2000	25,796	36,590	563,341	503,504	49,220	10,617	370,811
2001	25,408	36,296	646,023	579,175	55,717	11,131	316,667
2002	25,207	35,078	788,679	700,133	75,500	13,046	316,494
2003	24,560	33,957	645,587	590,545	40,697	14,345	470,415
2004	22,048	31,233	595,591	556,451	17,488	21,652	610,491
2005	21,430	30,659	661,992	618,614	19,083	24,296	600,639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참조 제작성

<표 10> 연도별 감귤생산 추세 분석

구분 \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2	2003	2004	2005
면적(ha)	4,842	14,094	19,414	25,796	25,207	24,560	22,048	21,430
생산량(천M/T)	5	187	493	563	789	646	596	662
ha당생산량(M/T)	1.2	13.3	25.4	21.8	31.3	26.3	27.0	30.9
농가수(호)	1,732	19,996	25,616	36,590	35,078	33,957	31,233	30,659
호당경영규모(ha)	2.8	0.7	0.76	0.71	0.72	0.72	0.71	0.70
조수입(억원)	9.53	545	3,151	3,708	3,165	4,704	6,105	6,006
kg당 가격(원)	192	2,907	639	658	401	728	1,024	907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표 11> 전국 주요과실과 감귤의 생산동향 비교

(단위 : 천ha, 천M/T)

연도	품목	계	감귤	사과	포도	배	단감	복숭아
1985	면적	102.8	17.0	37.7	16.2	9.0	9.8	13.1
	비율	100	16.5	36.7	15.8	8.8	9.5	12.7
	생산량	1,433.4	394.3	532.6	149.9	128.1	97.0	131.5
	비율	100	27.5	37.2	10.5	8.9	6.8	9.2
1990	면적	117.8	19.4	48.8	14.9	9.1	13.3	12.3
	비율	100	16.5	41.4	12.6	7.7	11.3	10.4
	생산량	1,622.0	492.7	628.9	131.3	159.3	95.2	114.6
	비율	100	30.4	38.8	8.1	9.8	5.9	7.1
1995	면적	148.6	21.6	50.1	26.0	15.7	25.0	10.2
	비율	100	14.5	33.7	17.5	10.6	16.8	6.9
	생산량	2,149.6	614.8	715.9	316.4	178.3	194.6	129.6
	비율	100	28.6	33.3	14.7	8.3	9.1	6.0
2000	면적	147.9	25.7	29.1	29.2	26.2	23.8	13.9
	비율	100	17.4	19.7	19.7	17.7	16.1	9.4
	생산량	2,249.5	563.4	488.9	475.6	324.2	227.4	170.0
	비율	100	25.0	21.7	21.1	14.4	10.1	7.6
2005	면적	124.5	21.5	26.9	22.1	21.8	17.2	15.0
	비율	100	17.3	21.6	17.7	17.5	13.8	12.1
	생산량	2,313.8	662.0	367.5	381.4	443.3	235.9	223.7
	비율	100	28.6	15.9	16.5	19.1	10.2	9.7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재배농가는 1980년도에서 1990년도 사이에 5,600농가가 증가되었는데, 199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서는 11,000호 농가가 증가되었으니 1990년도 이후 생산량을 줄여나가려 했으나 오히려 재배농가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는 1990년도 이후 감귤의 재배작형이 달라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재배작형으로 농가수가 증가된 것이다.

감귤의 생산을 전국적으로 타 과수와 비교하여 보면 1985년도 전국의 과수재배 면적이 103천ha인데, 이 중 감귤이 16.5%로 37%인 사과 다음으로 우리나라 과수 중에서 제2위 과수로 등장하였고 생산량에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1,433천 M/T 중 감귤은 27.5%를 점유하여 재배면적과 같이 제2위 수준의 과수이다.

이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도에는 재배면적의 비율에서는 사과, 포도, 단감, 다음으로 감귤이 14.5%를 점유하여 제4위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생산량에서는 28.6%로 사과 다음 제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타과수보다 매우 높은 것이며 이는 그 만큼 생산기술이 발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인 감귤인 경우 과수 재배면적 비율에서 보면 타과수인 사과·포도·배보다 낮으나 생산량 비율에서는 사과22%, 포도 20%보다도 높은 25% 수준이었으며, 2005년에는 더욱 높아 우리나라 총 과수 생산량 2,313,800M/T의 28.6%가 감귤이었고, 다음으로 사과 15.9%, 포도 16.5%, 배 19.1%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설 재배

제주도의 과수재배에서 1985년 이후 시설재배에 의해서 바나나가 재배 생산되었는데, 1990년도 이후 바나나 수확 자유화가 되면서 일시에 바나나 생산은 어렵게 되었다. 바나나 대체작물로 감귤을 시설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초유의 과수시설 재배가 이루어졌고, 초기 4~5년간에는 기술정립이 되지 않아 농가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감귤의 시설재배로 인하여 감귤의 품질을 월등히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감귤은 하우스 가온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가림재배, 월동재배 등으로 시설재배는 분화 발전하였는데 이는 세계 과수재배에서 제주도가 처음이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감귤의 시설재배는 1990년을 기점으로 감귤산업 전체에서 마치 1970년대 도약단계와 같이 제2의 도약의 시기가 되었으며 1990년도 재배면적 26ha에서 10년 후인 2000년도에는 22배로 증가하였고, 생산량에서도 22배로 증가하여 이제 2003년 시설 재배 감귤 총 생산량 26,620M/T 조수입 736억 4,500만원으로 제주도 농업 조수입의 9.1%로 노지 감귤, 감자 다음으로 제 3위 자리를 차지하는 제주도 농업소득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

감귤의 시설재배 과정 중 품종별 재배작형이 분화되어 시설재배에서도 가온재배, 무가온재배, 비가림재배, 월동재배 등으로 분화되었는데 품종별로는 단연 온주밀감이고 한라봉, 금감 등이 다음 순위이고 2003년도 시설재배 면적 2,133ha 중 온주밀감 35%, 한라봉 46%, 금감 7%, 기타 13%의 점유율로 한라봉의 재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에서는 48,855M/T가 생산되었는데, 이 중 온주밀감 70.6%, 한라봉 17.7%, 금감 5.6%, 기타 6.1%를 점유하였고, 1ha당 생산량에서는 온주밀감 46.8M/T, 한라봉 8.39M/T, 금감 18.9M/T를 생산하는 실적인데 온주밀감 1ha당 46.8M/T는 농업생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적 기록이다. 한라봉인 경우 1996년 재배면적 7ha에서 2005년에는 1,1041ha로, 생산량은 15,300M/T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표 12> 하우스 감귤(온주밀감) 재배 현황

(단위 : ha, M/T 호 백만원)

연도	구분	재배면적	재배농가	생산량	조수입	kg당 가격
1987		0.13	1	7	29	4,200
1988		7.82	40	316	989	3,130
1989		16.7	82	89.	2,581	2,890
1990		25.5	114	1,277	3,908	3,060
1991		80.2	328	4,224	12,756	3,020
1992		164.4	643	5,364	16,467	3,070
1993		295.6	1,035	9,112	24,010	2,635
1994		376	1,278	12,220	39,858	3,015
1995		425	1,373	17,615	49,322	2,800
1996		498	1,601	23,093	74,659	3,233
1997		554.2	1,762	27,461	85,077	3,098
1998		636.5	2,094	28,922	66,776	2,309
1999		693.6	2,132	31,612	73,740	2,333
2000		566.5	1,777	27,655	68,248	2,468
2001		512	1,546	27,157	69,254	2,550
2002		515.7	1,573	27,046	64,639	2,390
2003		462.0	1,422	26,620	73,645	2,767
2004		429.6	1,323	25,903	68,604	2,648
2005		408.7	1,227	23,751	65,905	2,775

자료 : 제주도 통계 제주도지(2006) 제4권

V. 감귤부흥의 선구자들

일본의 교민단체들은 대부분 1959년을 시작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동경의 개발협회의 경우는 최근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로 명칭을 바꿨지만 개발협회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제주도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제주도 발전과 개발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표현이 맞는 조직이었다.

협회는 조직되기가 무섭게 많은 일들을 펼쳤다. 고향 제주에 감귤나무 보내기 사업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왜 감귤이었을까? 먼저 동경의 교민들은 일본 선진지 감귤재배 농가의 감귤 기술과 맛, 수익을 눈여겨보았고 제주도의 토양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미 당시 도내 10여 농가는 대학나무의 신화를 엮고 있었다. 그래서 감귤에 눈을 돌렸다.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나고 제주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5월 30일에 김영관(金榮寬) 해군 준장이 제12대 지사에 취임하고 6월에는 제주도 재건 국민운동축진회가 발족되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 개발에 강한 관심이 기울어졌고 9월에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1962년 연두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0월에는 『제주도 개발의 노래』가 선정 발표되는 등 개발의 열기가 높아졌다.

한라산 횡단도로, 제주시 간선도로의 포장공사, 중산간 마을의 급수해결을 위한 상수도공사 등을 비롯하여 제주~목포간 및 제주~부산간의 호화선 취항, 주 2회였던 여객기가 매일 2회 제주~서울간을 운항하는 등 잇따른 과감한 정책발전에 의해 날마다 눈부시게 변모해 갔다.

1. 재일동포에 대한 기대

김영관 지사는 취임 초부터 재일동포와의 유대강화에 정열을 쏟고 항상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제주출신 재일동포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김영관 지사는 “앞으로는 국가의 경축행사에는 필히 많은 재일동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다”고 명확히 하고 도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재일동포와 향토와의 교류는 획기적으로 시작되었고 재일동포가

적극적으로 고향땅을 밝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재일동포가 고향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 도우려 해도 신중하게 받아들일 소지가 없었다.

김영관 지사는 제주도에 부임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로서 학교가 많은 것을 들고 있다. 더구나 인구 2천명에 하나라고 하는 많은 학교가 거의 정부에 의하지 않고 도민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 더욱이 그의 뒷면에는 재일동포의 힘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교류의 시작

향토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에는 인사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주개발협회가 1962년 4월에 파견한 제1차 향토방문단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본국에 있어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획기적인 일이었다.

방문에 앞서 2월 9일 민단에서 결성된 경제인 시찰단에 참가했던 제주개발협회임원을 중심으로 향토방문의 선발대가 파견되었고, 향토재건상태에 대한 설명과 재건사업기금을 기탁했다.

김영관 지사의 초청에 의해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고향사람들과의 재회는 제주개발협회의 제1차 방문단에 의해 마침내 실현되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감격에 넘쳐났다. 고원일 고문을 단장으로 한 18명의 방문단 일행은 1962년 4월 6일 하네다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기로 서울에 도착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제주도청을 방문, 도지사로부터 도청의 기구, 도정목표, 62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제주도 관광개발의 전망과 감귤묘목의 수입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으며 영화 『제주도』를 관람하였다.

도지사의 안내로 한라산 횡단도로 공사현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라산 횡단도로는 북쪽의 제주시와 남쪽의 서귀포를 곧장 잇는 약 43Km를 포장하는 일이었으나 이 기간도로에 의해 모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획기적인 계획이었다.

이어서 제주도경찰국, 제주지방법원, 제주대학과 제주시청 김인지(金仁志) 시장으로부터 시정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받았다. 또한 제주주정공업주식회사를 견학했다.

제주도청을 방문하고 도당국에 향토개발기금을 기탁했다. 도청에 기증한 온주

밀감 묘목은 서귀농업고교 및 제주대학 농학부 농장에 심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도당국으로부터 받았다. 회원들은 또 서귀포에서 남제주군 각 기관장, 유지와 간담을 가졌다.

서귀포에서 제주농원(감귤), 남원면에서 남제주군 읍·면장 회의에 참석했고, 성산수산고교도 시찰하였다.

제1차 향토방문단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음.

김평진 · 고원일 · 고봉준 · 김한두 · 고한실 · 김창휘 · 강위길
장윤종 · 김동규 · 김태영 · 김귀동 · 양명원 · 김양준 · 강민선
신용식 · 김양웅 · 임의준 · 최애자

제1차 방문단의 향토방문 이후,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농수산물관계의 전문가인 野田印一(池田内閣의 특사)를 동반하여 제주도를 방문했다. 그 결과, 野田씨는 수리사업과 고구마의 생산처리를 위한 포도당공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그후에 제주도에 포도당공장을 짓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개발협회는 1963년 1월 김영관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방일친선시찰단 7명을 일본에 초청했다. 시찰단 일행은 제주도 산업개발사업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일본의 농림 축산 수산 관광부문을 시찰하고 열심히 자료수집을 했다. 시찰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김영관	제주도지사(해군소장)
단원	문종철	제주대학장
단원	홍종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단원	강창학	광신식품공업(주) 사장
단원	강우준	제주신문사 사장
단원	김선희	제주신문사 전무
단원	고정일	제주신문사 편집국장

제주개발협회의 제1차 향토방문단(1962년 4월)에 이어 일본을 방문함에 따라 향토와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제일 제주도 출신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1월 16일 노스웨스트기로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2월 4일 귀국할 때까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소개하고 또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전국을 돌아다녔다.

3. 묘목 기증 운동과 연수 사업

1963년 2월 23일, 개발협회 제2회 상임이사회에서 4월의 식수기를 맞이하여 향토 녹화운동추진의 일환으로써 묘목보내기 운동을 권장하고 기증자에게는 적극적으로 편의를 돌보아 줄 것을 결의했다.

김영관 지사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해군사관학교에 벚꽃 묘목 2,000본을 보낼 것으로 하고 김평진 회장이 개인으로 부담했다. 제주도 농업진흥을 위해 고원일씨가 3,000본, 秦重八(진중팔)씨가 2,000본, 姜完培(강완배)씨가 1만본의 감귤묘목을 보냈고, 특히 진중팔씨는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보낼 것을 약속했다. 묘목 인수에 있어서는 부산에 있는 高長和(고장화)씨와 전제주시장 金次鳳(김차봉)씨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4월에 제주도에 보내진 묘목이 세금이 부가되었다는 연락이 있어 각 방면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 잠재하고 있는 풍부한 산업개발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해 갈 것인가는 오로지 인재육성에 달려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개발협회는 기술연수생 초청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노력을 경주했다.

기술연수생 초청은 1962년 개발협회 정기총회에서 사업목표로 책정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1964년 2월 정기총회 이후였다. 같은 해 4월 이후 연수생 명부작성에 대한 작업이 시작되어 7월 20일 제주도지사로부터 명단 이력서등을 통보받고 같은 해 6월에는 초청장 및 신원재정보증서, 왕복 선박비(釜山-濟州)를 보냈다.

그후 일본대학농예학부에 대한 연수생 실습승낙을 요청하고 법무성에도 선발경과 및 경비 대우 등 사정설명을 행하는 등 사전준비를 했다. 神奈川현 千葉현 및 靜岡현 당국 등과 협의교섭을 반복하여 효과있는 연수가 되도록 알선을 의뢰했다. 입국심사 등 수속에 대해서는 『亞細亞(아세아) 友의 會』의 협력을 요청했다.

초청에 있어서는 교통비 宿舎(숙사) 研修處(연수처) 뿐만 아니라 침구, 의료, 식사 등 여러 가지에 걸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해서 결국 1965년 1월 20일 연수생 10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행은 전문별로 실습을 중심으로 연수활동에 들어가 1966년 1월 11일 수료식까지 일년간 기술을 습득하는데 열중했다. 기술연수생은 개발협회가 제주도지사에게 초청계획의 취지와 목적을 전하고 도당국에서 연수생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① 농학부문(農學部門, 감저(甘藷))

- ▶ 하순봉(河順鵬, 1930년생) 애월면 신엄리
북제주군농촌진흥위원회 위원
- ▶ 오윤재(吳侖才, 1932년생) 대정읍 인성리
제주대학 출신, 농업

② 농업부문(감귤, 파인애플)

- ▶ 허택선(許澤善, 1927년생) 서귀읍 법환리
濟州道農事院試驗課技士(제주도농사원시험과 기사)
- ▶ 한윤삼(韓允三, 1934년생) 서귀읍 보목리
제주대학 농학과 출신

③ 농업부문(유채(油菜), 제충국(除虫菊))

- ▶ 진수관(秦守官, 1933년생) 한경면 판포리
육군소위 예편, 前판포리장
- ▶ 홍종헌(洪宗憲, 1929년생) 표선면 표선리
前표선면장

④ 축산부문

- ▶ 최영선(崔榮先, 1932년생) 제주시 일도동
농축업 자영
- ▶ 한문주(韓文朱, 1928년생) 조천면 북촌리
함덕농고 보조수(補助手)

⑤ 수산부문

- ▶ 고영남(高永南, 1926년생) 제주시 이호동

前한림중학교사, 어업

- ▶ 공동식(孔동植, 1931년생) 제주시 건입동
육군중위 예편, 성산수산고교 교사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개발협회의 전면적인 원조는 당시로서는 다른 장학기관에서는 엄두도 못낼 큰 사업이었다.

1966년은 한일간 국교정상화가 실현되고 향토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

1월에 문교부가 제주농업고교를 『향토개발연구학교』로 지정한 것을 비롯하여, 5월에는 제주도 특수원예작물 재배상황을 시찰함과 동시에 주산지 조성을 위해 농림부 관계자가 내도했다. 농협제주도지부에서는 5월 『제1회 새로운 농민상』을 제정하고, 8월에는 『제1회 제주도 축산대회』가 열렸다.

특히 정부가 10월 26일 정식으로 제주도를 『특별개발지역』으로 지정, 공포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 이와 같은 지정은 경인지구, 울산공업센타에 이어서 3번째 지정으로 계획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 관광, 수산, 공업, 농축산, 도시조성 개발에 의한 도민 소득을 3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수산부문에 있어서 어항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어획고를 23만 톤에서 100만톤으로 늘리며, 농축산부문에 있어서는 한라산 중턱 유희초원지에 10만 두의 소와 말을 사육하고 조림과 수종을 개량하고, 관광에 있어서는 연간 1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등이다. 앞으로의 개발에 의해 장래 인구를 52만명으로 계획하고 도시를 확장조성하기로 하고 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해 10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제주도에 16억 2,000만원을 투입할 것으로 확정되어졌으며, 이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2억 6,400만원에 비하면 7배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수원개발 도로포장 변형시설 등 많은 분야에 큰 기대가 모아졌다.

제주도에서 현병호(玄炳湖)씨를 단장으로 하는 농업시찰단 26명이 1966년 6월 18일 神戸항을 거쳐 동경에 도착했다.

시찰단 일행은 6월 20일 주일대사관을 예방한 후 21일에는 神奈川현 낙농전화

센타, 神奈川현 伊勢原(이세원)농협 및 감귤농원을 시찰하고 그후 각 부문별로 시찰한 후 7월 19일 神戶港으로 귀국했다.

제주도 농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어떻게 경제성이 높은 작물을 육성하는가에 달려 있는 데 그 중에서도 감귤의 장래성은 일찍부터 주목되어져 왔다. 제주개발협회에 있어서도 창립 당초부터 제주도의 온난한 기후조건에 적합한 감귤 재배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지원해 왔는데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 붉이라고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1960년 말에 정부가 감귤 생산 발전을 위한 시책(감귤 주산 단지 조성 사업)을 내놓은 이후 온주감귤 재배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확장했던 것이다. 그러한 발전모습을 생산량으로 보면, 1970년에는 5,000톤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75년에는 81,000톤, 1980년에는 180,000톤, 1983년에는 325,000톤으로 격증했다.

온주감귤의 본격적 도입기는 서홍동이 1963년, 토평동이 1965년, 북제주에서는 아라동, 용흥리가 각각 1966년이다. 그후의 확대는 남제주에 치우쳐 있었으며 실제로 1970년 당시 도내 총생산량의 70%는 서귀포 시내에서 수확되었다. 그 당시 감귤은 『대학(大學) 나무』라고 불리워져 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면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가 있다고 해서 널리 확대되어졌다. 1960년대 중기 이후 감귤 재배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1970년대에 폭발적이라 할 만큼 도내전역에 보급되었다.

제주개발협회는 196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감귤 묘목의 기증을 위해서 제주도 지사, 동경세관, 福岡苗木産業, 今治中央農業普及所 등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기증을 실현함에 따라 제주도에 있어서 감귤재배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동시에 파인애플 묘목도 보내어 제주도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특산물이 되었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전 도적으로 특수작물 중에서도 감귤 재배가 붉이 되어서 제주개발협회에서는 양질의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결과, 1967년도에는 2만 9,000본의 묘목을 기증 알선했다.

또한 다음해 기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9월에는 개발협회 사무장이 福岡苗木株式會社 간부 및 기술자와 함께 제주도에 파견했다.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경제작물로서 점점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감귤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개발협회에서는 묘목 기증알선에 노력했다.

1968년 4월 9일 한두옥(韓斗玉) 이사장이 구주(九州)에 출장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달 12일에도 정승연사무장이 福岡에 출장 산지업자와 협의했다.

제주도 당국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4월 20일에는 감귤묘목 4만 6천 본(本)을 보냈다. 1967년에는 1만 7천 본(本)을 보냈으므로 약 세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제주도에 있어서는 '감귤 제주를 만들자'라는 표어 밑에 증산의 열의가 점점 높아졌다. 농림부는 3월 제주도를 複合主産團地(복합주산단지)로서 선정하고 4월에는 감귤주산지 조성사업에 8억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같이 순풍을 타고 재배면적도 1,111ha에서 1,645ha로 확대되고 묘목재배 본수는 당초 계획 60만 본이었으나 30% 증가한 78만 1천 본이 되었다. 총 식재 수도 107만 8천 본에서 186만 본으로 늘어났다. 도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방풍림, 저장시설 등을 건설했다.

1967년도 감귤생산량은 3,400톤, 이와 관련된 수입은 5억 4천만원이 넘는다. 감귤수확은 6년생 정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 최성기라고 할 때, 생산비에 대해 실제 수익이 예상되는 것은 8년생부터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기대는 대단히 크다.

밀감 묘목 외에도 제주도 농촌진흥원 및 산업국 특작과와의 협의 끝에 중산간 개발사업의 일조로서 옥충(玉葱) 종자 및 맥주맥(麥酒麥) 종자를 기증했다.

4. 전 재일동포들이 함께

1968년 2월 서울시 경찰국장직에서 제15대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구자춘(具滋春) 지사는 "복지 제주건설"을 주요시책으로 해서 제주도 개발의 선두에 섰으며 취임 이래 1년이 되던 1969년 2월 10일 대만을 시찰하고 귀로에 일본을 방문했다.

구지사는 취임 이후, 제주도내 12군데를 복합주산단지 감귤재배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감귤의 증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의 기본방침으로서 감귤 재배조성 지역을 제주도 일원의 중산간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해발 200m 이하, 경사도 15도 이내 해당지가 2만ha를 넘을 것으로 보고, 중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자기자금으로 점진적 식재를 권장하고, 영농규모가 5단보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가에는 국고보조 및 도·시·군에서

묘목가격의 일부를 원조하고 장려하기로 했다.

그리고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감귤상'을 제정했다. 또한 농촌진흥원을 중심으로 품종개량, 신품종 보급에 노력함과 동시에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생 파견, 해외기술자 초청 등 과감한 정책을 추진했다.

제주도 당국의 시책에 의해 감귤재배 의욕은 1969년에도 한층 더 고양되었으며 제주개발협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해서 묘목기증 및 기술연수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한 일련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9년 3월 3일 제주도 지사에게 감귤 묘목기증에 관한 서류를 제주도지사에게 발송하고 같은 달 13일 김영홍(金榮洪) 전무이사과 한두옥(韓斗玉) 참여가 제주를 방문해서 구자춘(具滋春) 지사와 현오봉(玄梧鳳) 국회운영위원과 면담하고 기증묘목에 대하여 면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일본국내에서는 3월 17일 현공수(玄拱洙) 부회장이 감귤묘목관계로 福岡에 출장했다. 제2차 분은 4월 7일 10만 7천본이 전달됐다.

3월 27일 제주항에 도착한 밀감묘목 제1차 분은 다음날 24일 선내검사를 끝내고 정오부터 하선되었으나 농림부장관 추천장이 도착되지 않아서 배포할 수가 없어서 특작과 직원이 급히 서울에 출장하는 소동도 있었다.

다시 같은 달 26일 이번은 농림부장관 추천장은 도착되었지만, 제주세관에서는 면세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도당국과 대립하는 결과를 빚었다. 도지사와 세관장의 상담후 수요자전원에게 배포가 완료되었으나, 일주일 가까운 시일이 걸렸다. 제2차 분은 4월 10일에 제주항에 도착해서 같은 달 12일에 배포 완료했다.

제주개발협회는 일찍부터 감귤재배의 유망성에 착안해서 선구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그러한 선견성이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고향 제주도에 감귤보내기 운동은 동경의 제주개발협회(재일 본관동 제주도민협회 전신)가 처음 시작했지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 교민들도 함께 참여 결코 관동지역 교민들 에게 뒤지지 않는 기증사업을 폈다.

오사카에는 <재일본제주도민회> <제주도친목회> <재일경제인협회> 등 교민단체가 이미 조직 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동경의 개발협회 간부들과 각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감귤 묘목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동경 지역 교민들의 알선방법은 물론 묘목의 선정요령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기증사업을 폈다.

당시 제주도민회의 경우 정두석(鄭斗錫)회장과 박성훈(朴晟勳) 총무가 중심이 돼 1969년 4월 7일 10만 본을, 다음달 5월에는 40만 본을 기증 했다.

같은 해 9월 11일 도민회관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1070년 봄 식재용 감귤 묘목을 1인당 2천본으로 제한키로 결의할 만큼 현지 동포들의 향토애는 실로 뜨거웠다.

오사카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1인당 1백~2천본씩 모아진(알선방식이므로 일괄 구입) 감귤의 제주도 로 수송도중 선박이 침몰 묘목 전체를 잃어 교민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제주도 친목회도 당시 김용해 회장을 비롯 신기만 총무 등이 동분서주했다.

1969년 도지사의 감귤 묘목기증 요청을 받은 친목회 임원들은 가능한 한 좋은 품질의 감귤 묘목을 보내기 위해 오사카 인근의 일본 최대 감귤산지인 와카야마현을 방문 현청과 과수 육묘조합을 수차례 오가면서 양질의 묘목을 보내기 위해 전력을 경주했다.

결과 제주도지사와 와카야마현 지사간에 여러 차례의 공문이 오가면서 기증을 위한 무위체(無爲替)수출 승인 등 일본 통산성의 협조를 받아 수출에 따른 모든 조치를 끝냈다.

1970년 3월 22일 60여 만본의 묘목을 사카이항을 통해 제주항으로 수송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도친목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기증을 구실로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해 끼어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를 배제하기 위한 서약서를 받았다. 일체의 매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이다. 당시 도내에서 일부 농가들이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은 몇몇이 장사를 목적으로 기증묘목을 들여오는데 끼여 들여 와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재일동포 단체들은 도쿄나 오사카 어느 단체도 매매를 위해 감귤묘목을 보내지 않았고 극히 일부에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증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 친목회원들은 수송 도중 묘목이 마르는 것을 막기 위해 뿌리마다 이끼를 넣어서 포장했으며 통풍이 잘 되도록 포장 상자에 환기구를 만들었다.

1970년 3월 25일 제주도친목회는 김용해 회장 외 78명의 회원과 가족이 제주

도를 방문 앞에 보낸 감귤묘목과 중산간 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마이크로버스 기증식을 가졌다.

묘목과 마이크로버스 기증을 위한 방문단에는 와카야마현에서 과수육묘조합장과 감귤생산계장 등이 참가, 도내 감귤 농가들과 기술교환을 위한 협의를 갖기도 했다.

이같은 제주도친목회의 향토애를 지켜본 당시 와카야마현의 오오하시 마사오(大矯正雄)지사는 친목회 발전기금으로 350만엔을 내놓아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본 연구과제 중 부록편의 고 강계중씨가 60만본의 감귤묘목 수송에 앞선해준 선박이 재일제주도 친목회가 보낸 묘목의 선박편의를 봐준 것으로 추측된다.

향토의 감귤주산지 조성사업을 끊임없이 지원해 온 제주개발협회는, 재배기술 면이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1969년 10월 福岡현립 모목원기술주사 竹下利雄씨와 제주개발협회와 감귤묘목을 거래하고 있는 福岡苗木株式會社 吉丸善康 전무를 대동하여 제주도 감귤 조성단지를 시찰하고 기술지도 및 강연을 행했다. 이때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高 瑋 準	會長
高 尙 秀	理事長
高 榮 洪	專務理事
趙 漢 風	財務部長
竹下利雄	福岡현립果樹母木園技術主査
吉丸善康	福岡苗木株式會社專務取締役

일행은 10월 20일 도청, 세관등 관계기관을 예방하고, 다음날 21일에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체재(滯在)하는 동안 남원면 위미리, 중문면 원예고교, 안덕면 사무소, 제주감귤기술양성소, 제주대학 농학부, 아라동, 도련동, 조천리 등에서 강연과 기술지도를 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 당시는 재배기술이 미흡하여 기술지도를 하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전정하면, 밀감농장주인은 가지를 자른다고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그 후에는 현지지도보다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일본에서 직접연수를 하게

되었다.

제주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밀감묘목의 기증은 도당국의 국내산 조달 방침에 따라 1970년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개발협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최종년도라는 점에서 3월17일에 25만본, 같은 달 24일에 18만본, 합계 43만 본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묘목을 보냈다. (지금까지 동경 재일 제주도 출신자 밀감 묘목 기증자 총수는 250명, 155만본에 달한다.)

제주개발협회에서는 이 사업을 원활히 진척시키기 위해 김영홍(金榮洪) 전 전무이사를 약 1개월간 제주도에 파견함과 동시에 공·사적으로 간부 6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밀감묘목 기증알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발협회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고 그때까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회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신입회원도 늘어나 조직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선적 과정에서의 업무차질로 인하여 180상자 분의 묘목이 실제로 선적되지 않았으나, 선적된 것으로 잘못 기장되어 밀감 묘목 분실 문제가 되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는 등 제주개발협회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본 결과, 묘목 구입처인 福岡苗木産業株式會社(북강묘목산업주식회사)에서 “선적할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다가, 대량의 묘목을 단시간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골판지 상자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조사한 결과, 사무상 착오에 의해 180상자 분이 선적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번 일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죄합니다”라는 회답과 또한 이번 일에 대해서 사죄문을 보내움으로서 일단 해결을 보았다.

결과적으로 제주개발협회 과오가 아님이 밝혀졌으나, 이 사건이 가져온 파문은 매우 컸고 결국 책임을 져 1970년 6월 22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이하 각 부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제주개발협회 알선에 의해 제주도에 기증된 밀감 묘목은 누계 200만 본에 달한다. 밀감 재배의 지역적인 적합성은 인정되었으나 제주도민이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밀감의 장래성을 예견하고 대량으로 밀감묘목 도입을 촉진시

키는 데 제주개발협회가 이룩한 역할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1971년 개발협회 사업계획 및 제6차 향토방문 성과에 따라 제주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차 기술연수생'을 제주개발협회 이사가 재정 및 신원보증하기로 하고 모집한 결과 23명이 신청했다.(그후 5명은 본인이 취소함.)

이에 따라 개발협회 1971년 12월 이석호(李錫鎬) 섭외부장 및 고장수(高章守) 사무장이 제주도에 출장하여 방일 예정인 연수생들과 미리 협의를 했다. 또한 기술지도를 위해 연수생을 받아들이는 靜岡현 감귤시험장 및 靜岡현청에도 2차에 걸쳐 현공수(玄拱洙) 회장, 고봉현 전무이사, 정홍수 기획부장, 고장수 사무장이 출장을 갔다.

연수는 1972년 3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초청이 실현될 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당국, 외무성 등 다방면에 걸쳐 사전준비가 필요했다.

5. 농기구 및 방풍림 조성

제6차 개발협회 향토방문단과 각읍 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운기 분무기 트랙터 등 생산적인 물품을 기증 알선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현공수 회장이 2차에 걸쳐 본국에 출장가서 당시 이승택(李昇澤) 지사, 이정래 제주세관장과 협의한 결과, 반입하는데 선처해 주기로 합의를 얻었다.

제주도 산업기계화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72년에 정부가 농업기계화 정책을 내세워 특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서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도 제주개발협회 추진사업의 선구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농기계 보유상황은 1962년에 양수기 13대, 탈곡기 167대, 경운기 1대, 분무기 1대 등 전부 182대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2년에는 농업용 원동기 4,792대를 포함해서 12,776대나 되었다. 이러한 기계구입은 생산 효율화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덜어 주었다.

제주도에 있어서 감귤 재배가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제주개발협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함께 감귤 재배를 하는데 큰 지장이 되는 풍해대책에 있어서도 제주개발협회는 메라노끼시롱종 아카시아를 방풍림으로 선정하고 기증 알선을 시작했다.

1970년 감귤 재배상황은 22,500가구에 680만 본에 달하였고, 수확도 50,000톤에 수익은 11억 9,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났다.

그러나 1970년 8월 태풍 11호로 인하여 230만 본의 감귤나무가 피해를 입어 그 손해는 6억 5,400만원이라고 추정되어, 총 피해액 3분의 1 정도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유일한 감귤재배 적지이면서 일부 농가의 소규모 재배에 불과했던 제주도 감귤은 1960년대에 들어서 고수익성이 인정되어 대학(大學)나무 황금나무라고 불리워져 활발히 재배되게 되었다. 60년대 후반 일본으로부터 묘목도입이 짧은 기간에 확대보급되고 제주개발협회도 여기에 깊게 관여했던 것이다.

제주개발협회는 감귤묘목 성장에 제주도 3다의 하나인 ‘바람’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풍림 아까시아 메라노기시론 묘목 28,300본을 보냈다. 묘목 인도를 위하여 고장수 사무장을 파견하고 1972년 4월 25일에는 무사히 농가에 배부되었다.

또한 방풍수 메라노기시론 아까시아 종자 18ℓ를 제주도에 기증했다.

제주도에 있어서 가꿀 재배의 과제로써는 ① 품질개량 ② 품종의 다양화 ③ 출하시기조정 ④ 계통판매 ⑤ 저장능력향상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福岡현립 모수원 기술주사인 竹下利雄씨로부터 제주개발협회를 통해서 제주도 감귤기술양성소에 시험용으로써 감귤수목 신품종 23계통 115본을 기증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어 방풍수 묘목과 함께 기증했다.

남제주군수로부터 시험용으로 와사비 묘(苗)를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송부 알선했다.

개발협회는 개발지원의 기본자세는 “바다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판단, 제주도 개발의 기본은 인재육성에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에서의 선진기술연수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입국에 이르기까지는 외무성, 법무성 입국관리국, 연수처, 숙박, 교통 등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가지 교섭과 준비가 필요하고, 잠재중에도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조그만한 일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신념하에 이러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제2차 기술연수생 초청이 추진되었다.

우선 제주개발협회 이사가 재정 및 신원보증하는 자를 초청하기로 하고 모집 결과 18명이 신청을 받아 그 중 5명은 여권수속 등으로 來日할 수 없었기 때문

에 1972년 7월 10일 13명이 일본에 도착, 7월 15일 전원이 靜岡현 감귤시험장에 입소했다.

일행은 종료식(1973년 3월 25일)까지 오전 중에는 감귤재배법, 토양, 병리, 비료, 해충 등에 관한 강습을 받고 오후부터는 전정, 접목 방법 등에 대해서 실습했다. 연수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高斗順(고두순) (한경면 고산리)	玄洞昊(현동호) (남원면 위미리)
金弘吉(김홍길) (한경면 고산리)	金麗澤(김여택) (조천면 함덕리)
尹普鉉(윤보현) (한경면 고산리)	梁漢柄(양한병) (한경면 신창리)
高成富(고성부) (한경면 고산리)	秦廣吉(진광길) (한경면 판포리)
玄行信(현행신) (남원면 위미리)	李棟華(이동화) (서귀읍 법환리)
高正國(고정국) (남원면 위미리)	吳龍彦(오용언) (안덕면 감산리)
金仁澤(김인택) (한림읍 한림리)	

연수생 일행은 처음 경험하는 외국생활에서 언어, 식생활,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감귤재배에 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수생 연령, 학력과 의사소통의 긴밀화등과 보다 전문화하는 데에도 고려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이 1972년 4월에 제창되어 1973년부터 전개됐다.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으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서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전국민적인 운동이다.

제주도의 영농개선 및 새마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개발협회는 농기구 알선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회원으로부터 경운기 7대, 트레일러 4대, 탈곡기 3대, 분무기 27대, 벌초기 2대 합계 43대를 기증받고 1972년 12월 6일 제주도에 도착되었다. 인도는 김정웅(金正雄)씨가 출장가서 3월 2일부터 5일에 걸쳐서 기증했다.

또한 제주개발협회에서는 농기구 구입처인 야마하디젤 주식회사 기술주임 小畑豊造씨를 대동하고 3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용방법 및 기술지도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열었다. 제주도 감귤재배 기술양성소의 선정(選定), 추천(推薦)에 의해 구성된 시찰단 일행 4명이 1973년 7월 6일 일본을 방문하고 靜岡현 감귤시험장,

福岡현 감귤묘목산지, 愛知현 감귤재배단지 등을 시찰했다. 일행은 다음과 같다.

허택선(許澤善) (서귀읍 서귀리)
문수창(文銖昌) (제주시 화북동)
문성규(文聖奎) (한림읍 금릉리)
김인관(金仁寬) (남원면 위미리)

이 중에서도 허택선(許澤善)씨는 제주개발협회 초청에 의해 '제1차 연수생'으로써 일년간 감귤재배 및 파인애플 기술을 연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귀국 후, 특수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다.

일행은 또한 靜岡현 清水市の 딸기산지, 長野현 딸기묘목 재배지, 新潟현 구근산지(球根產地), 埼玉현 원예시험장, 大分현 열대식물 및 관상수 재배 등 여러군데를 시찰했다.

이번 방문단의 목적은 앞으로 기본방향으로써 ① 기본적으로 보급된 현단계에 있어서 경영체제 및 유통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상태, ② 제주도 입지조건에 맞는 기술 선택, ③ 양보다 질적인 면에서 기술보급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력했다.

시찰을 마친 이들은 ① 감귤만을 전문하는 독자기술연맹과 같은 기관의 설치, ② 감귤시험장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맞는 기술(비료 병리 해충 전정 등) 보급, ③ 선별과 저장시설의 일반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앞에 기록한 바와 같이 감귤재배시찰단은 특수시설 원예생산지 및 감상식물 재배지를 시찰하고 감귤재배와 병행하여 제주도 입지조건을 활용한 관광지로써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원예 관상수 등에 힘을 기울여 기술자를 빨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제주개발협회는 1973년 10월 8일 구근재배 기술 연수생 2명을 초청하고 新潟현 西蒲原郡 '黑崎球根組合'에서 12월 18일까지 기술을 연수시켰다.

이번 초청은 1972년 6월 네덜란드의 원예기술자인 사헌씨가 제주도를 방문하고 "입지조건에서 보면 백합, 튜울립, 글라디올러스 재배의 최적지이고 일본 쿠바 등 일부지역과 함께 세계 3대 백합 재배지역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 동기

가 됐다.

연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사람은, 김승웅(金勝雄), 현영준(玄永準) 2명으로 두사람은 제주대학 졸업 예정자이다. 두 사람은 또한 新潟현 北魚沼郡 堀之内町 에서 은방울 꽃 등의 접목, 번식, 경영방법 등을 배우고, 新潟현 원예시험장에서는 토질 기후에 대해서 연수했다.

제주도 감귤재배는 연간 50억원을 넘을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지만, 질적인 향상과 다품종화가 과제로 되고 있고 향상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제주개발협회는 1974년 3월 27일 고창운(高昌運) 섭외부장, 고장수(高章守) 사무장을 파견해서 새로운 감귤묘목을 기증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興津早生(흥진조생)	40,350본	茶原極早生(다원극조생)	2,900본
靑島晚生(청도만생)	30,000본	레몬	
新甘夏 (신감하)	5,200본	柿	1,050본
有澤極早生(유탉극조생)	300본		

또한 이와 함께 산업발전과 영농개선 및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제 2차 농기구 기증사업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耕耘機(경운기)	7대	噴霧器(분무기)	15대
管理機(관리기)	2대	噴霧器(분무기)	2대
噴霧器(분무기)	10대		

한편 개발협회는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되어 제주 오사카간 정기항로가 개설되고, 숙원인 제주 동경간 직항로선 개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974년 7월 23일 특별전세기(보잉 727)편으로 115명이 참가하는 대형 향토단을 파견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민간인 방문으로써는 처음으로 동경 제주간을 직행함에 따라 동경 제주 간을 일일권(一日圈)으로 하는 항공로선 개설에 탄력을 주는 데 있었다.

정보화 시대에 호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공로선 개설의 중요성

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여긴데서 비롯된 것이다.

제주개발협회는 1970년대 초기까지 감귤묘목 기증사업으로 큰 성과를 얻었지만 언제까지나 같은 사업만을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자체기술개발을 방해하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오히려 제주도에 감귤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제주도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제주도 자체만으로 불가능한 일에 새로운 착안점을 찾아내는 것이 협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감귤에 관해서는 가공 유통처리와 관광과의 관련해서 회원들이 공감했다.

제주개발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제주도 감귤재배사업은 1974년도에 190억원이라는 기적적인 수익을 올리고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제주개발협회에 있어서도 매우 기쁜 일이었다.

생산량 증가함에 따라 가공처리, 유통, 저장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출하시기를 고려한 다품종화가 큰 과제로 대두되어 극조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감귤묘목을 기증하고 4월 7일 구입자에게 전했다.

有澤(유탉) (1년생)	14000본
茶原(다원) (1년생)	15000본
靑島(청도) (1년생)	9800본

그 외 南柑(남감) 20号(호), 立間(입간), 新甘夏(신감하), 向上, 감, 橋本(교본) 등과 농기계(農機具) 6대를 기증했다.

또한 岩手지부에서는 작년(昨年)에 이어서 오동나무 묘목 1,000본(本)을 제주대학에 기증했다.

앞으로의 문제로써 감귤묘목 대량생산 결과, 제주도내에도 묘목업자가 나타나고 있고, 1979년도부터 과수묘목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통관절차도 복잡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개발협회의 감귤묘목 기증사업은 일단 본래의 역할을 완수했다는 의미에서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향토의 농촌 소득증대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제주개발협회 초청에 의해 농업기술연수생이 1979년 4월 18일 방일(訪日)했다. 이번에 방일(訪日)한 사람은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제주도지부로부터 파견된 11명과 인솔단장 강원호(姜元豪) 지부

장이다.

연수생 靜岡현이 주관하는 각 시험장에 무사히 입소, 농업·원예·감귤·축산 각 부문에서 6개월에 걸쳐서 전문과목을 연수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했다. 연수생의 연수처는 다음과 같다.

- ▶ 인솔단장(引率團長)
강원호(姜元豪, 46 한림읍 귀덕리)
- ▶ 靜岡현 농업시험장(農業試驗場)
송영희(宋榮熙, 40 표선면 표선리)
고종귀(高宗貴, 34 제주시 용담동)
- ▶ 靜岡현 감귤시험장(柑橘試驗場)
김봉훈(金鳳勳, 31 남원면 위미리)
김인환(金仁煥, 41 제주시 화북동)
고중훈(高中勳, 31 서귀읍 법환리)
김영효(金永效, 32 제주시 도평동)
강문혁(姜文赫, 37 서귀읍 법환리)
- ▶ 靜岡현 원주원예분장(遠州園藝分場)
강영식(姜英植, 30 제주시 오라동)
- ▶ 靜岡현 축산시험장(畜産試驗場)
좌승규(左勝圭, 34 한경면 한원리)
- ▶ 埵玉현 원예시험장(園藝試驗場)
김흥효(金興孝, 34 제주시 이호동)
한경강(韓慶剛, 35 제주시 건입동)

Ⅵ. 요약 및 향후대책

본도 감귤산업 부흥기에 기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1960년대부터 1970년 초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동경과 대판의 교민단체를 통해 적게는 100본에서 수만 본까지 무상으로 기증한 교민 모두들이다.

앞의 본문에서 기록했듯이 감귤부흥기의 동경과 대판등지에 살던 동포들과 지금도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 모두가 선구자요 고마운 이들이다. 이들은 당시 개발협회와 도민회 친목회 등이 단체가 설립되고 도지사의 지원 요청이 있기 전부터 자진하여 단성을 보내왔다. 이같이 열화 같은 애향심은 1969년 대판의 도민회 이사회에서 감귤묘목을 보내는 것을 1인당 2천본으로 제한하는데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들 자신의 가난의 설움을 이겨내고자 연락선에 몸을 실었던 그들이기에 고향의 친지와 이웃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감귤묘목 보내기'라는 사업이 정해기기가 무섭게 기증사업을 폈다. 기록과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묘목보내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개발협회의 경우 1본당 가격은 1백20엔(円) 이었다. 개발협회는 이 가운데 1백엔은 감귤묘목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엔은 개발협회의 공동기금으로 조성, 이를 통해 약 1천만엔의 기금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대판의 도민회와 친목회의 경우는 1본당 1백40엔 씩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귤묘목의 기증은 지금까지의 의류나 현금 등의 기증과는 달리 최소한 6년의 정성과 땀을 흘려야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과수원예라는 점 등에서 마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듯 의미가 있는 기증 사업일 수도 있었다. 물론 시대적(5·16직후)상황이나 제주도의 도정방침 등이 맞아 떨어진 점도 없지 않지만 감귤묘목보내기는 제주의 색(色)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다.

봄과 여름엔 푸르른 색으로 들녘을 덮고 가을과 겨울은 황금빛으로 섬 전체를 물들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1960년대 초 당시 감귤 재배의 최적지라는 서귀포중심의 산남지역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를 배출한 도내마을들은 무상으로 묘목을 기증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영농기술상 감귤재배의 적지가 아니어도 괜찮았다. 결과 제주의 색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만큼 출향인사들

의 고향사랑은 뜨겁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수행팀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고장수(高章守)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 고문과 정승연(鄭勝淵) 개발협회 2대사무장의 대담을 가졌다.

올해 70세인 정씨는 동경에서 개발협회 사무장을 역임한 후 대판으로 옮겨 대판의 제주도민회의 사무장을 역임해 관서지역 교민사회의 이모저모도 소상히 알고 있는 분이기도 했다. 더불어 제주도출신 재일동포가 아니면서도 제주도 출신보다 더 제주를 사랑하고 감귤묘목보내기와 연수생교육 등에 앞장서온 강계중씨 등도 함께 기록되어야 할 것 같다.

과제 수행과정에서 만나고 증언을 해주신 많은 사람들은 관동지역의 경우 김평진, 김창휘, 조변훈, 현공수, 진중팔, 고봉준, 한두옥, 고원일, 김영홍, 한문봉, 정승연, 고장수씨 등 12명을 대판지역의 경우 도민회의 정두석 당시회장과 박성훈씨를 제주도친목회의 김용해씨와 신기만씨 등이 감귤부흥기의 제주도를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전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인협회 임원을 지낸 오승명, 박동진, 현규전씨 등은 직접 고향에 감귤원을 조성 운영하면서 품종개량, 재배기술등도 함께 발전시켜 나갔다.

강성집, 임덕남, 윤갑춘씨 등이 구주지역까지 수차례 출장을 오가는 등 묘목보내기 사업에 헌신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김평윤씨(한국일보 부사장 역임)는 제주교대에 1천여본의 묘목을 기증하기도 했고, 1967년 허인옥 등 일본연수팀의 현지알선을 도맡았다.

이제 감귤이 제주도의 주요산업으로 뿌리를 내린지 반세기에 이른다. 최근 한미 FTA로 감귤산업이 최악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반세기에 이르는 기간 감귤산업이 제주도에 끼친 긍정적 영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비록 반세기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들의 공덕을 기리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제주도는 2005년 2월 서귀포시 신희동 산1번지 월라봉 공원내에 제1종 공립 전문박물관인 <감귤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입구의 광장 등에 제주감귤의 부흥기에 기여한 덕을 기리는 성의와 노력이 바라진다.

개인별 공덕비 건립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일동포 단체 혹은 재일동포 전체(공적내용의 구체적 기록)의 공덕비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

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기증을 받았지만 재일동포 사회내에서는 기증자가 따로 있고, 당시 단체들은 고지, 수합, 구입, 운송, 배분 등의 역할을 도맡았다. 당시 감귤부흥기 묘목보내기 사업이 특정 몇 사람이 아닌 범 재일동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공로자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자료를 중심으로 “감귤부흥기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발굴, 정리를 하는 한시적 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기초자료, 협의체의 결정사항 등을 일본의 교민단체나 당사자들에게 고지하고 보다 다양한 사실 등을 추가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바라진다.

※ 본 보고서는 제주감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대한 감사와 역할 그리고 기념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를 한 것으로, 제주감귤산업 발전에 재일동포가 기증한 묘목을 중심으로 조사 연구가 되어 보고서에 한계가 있어 향후 다양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주감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재일동포들 중에 많은 분이(거의) 고인이 되어 자료수집 및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중장기적으로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을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 감귤보내기운동에 공헌한 사람들 (가나다 순)



고봉준(高璜準)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및 고문 역임
- 동경 도유기업협동조합 부이사장
- 우에노 방법협력회 회장
- 민단문경지부 의장 단장 역임.



고원일(高元一)

- 제주시
- 재일본 제주발전협회 회장



고장수(高章守)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역임, 현재 고문
- (주)소영산업 대표,
- 제주일보 동경지사장 역임



박동진(朴東進)

- 서귀포시
- 재일경제인협회 회장



박성훈(朴晟勳)

- 제주시
- 제일제주도민회 공보, 문화부장, 부회장 및 고문역임
- 제일제주도민회 30년사 편집인



김영홍(金榮洪)

- 서귀포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김용해(金容海)

- 제주시
- 제일제주도 친목회 회장
- 민단중앙본부 민족교육위원
- 민단오사카지방본부 문교부장 겸 사무부국장 역임
- 광산김씨 대종회 상임고문



김창휘(金昶輝)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고문
- 민단중앙본부 감찰위원장, 고문역임
- 주식회사 김영상사 회장



김평진(金坪珍)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2대, 8대 회장 및 고문
-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제주일보 회장
- 민단중앙본부 고문, 파크사이드호텔 회장



오승명(吳承明)

- 서귀포시
- 관서 제주도민협회 회장대행

정석하

- 제주시
- 신세계신문 발행인, 재일제주경제인협회 부회장
- 관서제주도민협회 상담역, 재일리버티 클럽



조변훈(趙辯訓)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 남원홍업주식회사 사장



한두옥(韓斗玉)

- 서귀포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참여



한문봉(韓文鳳)

- 제주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및 고문
- 한양정역원 대표



현공수(玄栢洙)

- 서귀포시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회장 및 고문 역임
- 상호화공(주) 사장,
- 민단족립지부 지단장 및 고문역임
- 연주현씨 제주도장학회 고문

감귤표목 보내기 사업을 편 당시 교민단체 임원

▶ 재일본제주도민회 임원 명단(1968. 3 ~ 1970. 1)

고 문	강위전 강두천 김달관 정태길 김진근 강훈 강철 백정혁 윤갑춘
상 담 역	이재방 강순찬 문달경 양희진 김서봉 변동규 이정근
회 장	정두석(鄭斗錫)
부 회 장	김병탁 김백식 김원호 이병추
총무부장	박성훈
재무부장	임덕남
조직부장	조오만
공보부장	이우길
섭외부장	한기준
상공부방	김두중
문화부장	강봉신
후생부장	강두진
체육부장	홍성인
청년부장	고남진
부인부장	이이선
감 사	김덕호 고인방 강성집
이 사	문용기 이영걸 고재표 김태수 조재협 김팽선 강홍실 박공효
	이창부 강재휴 함상겸 좌태권 김정옥 홍순범 우기효 김태림
	김호균 김경옥 현대권 오승명 김종립 강성인 정영일 이성만
	오관보 강경홍 문규찬 이순방 강성홍 윤서길 오공하 현상중
	송우성 강인성 고순환 고춘봉 정성필 정희옥 강연남 강창수
	강효권 고영봉 고두길 김덕순 김기숙 김병원 김태원 김태중
	김창수 김명균 박동진 신희돈 이정하 이병석 이춘식 이완석
	임정운 장문평 정희옥 정태욱 진문화 최양월 현군희

▶ 재일제주개발협회 임원 명단(1970. 10월 현재)

고 문 김평진 조변훈 고원일 강위길 한문봉
 회 장 고봉준
 부 회 장 현공수 진동규
 이 사 장 고상수
 부이사장 신시범
 전무이사 이창식
 총무부장 진공력
 재무부장 조한봉
 섭외부장 이석호
 조직선전부장 현규원
 기획부장 강인환
 조사연구부장 김자량
 청년부장 정승연
 참 여 한두옥 김창휘 고윤중 김병택 김평열 김경수 장윤중 고태휴
 강경준
 감 사 김상홍 부승배
 이 사 송두완 이경찬 김기형 고한준 양성열 김남주 오용건 하재근
 김태영 김동원 박동효 이석현 오행중 김영홍 김수영 박동은
 김영하 오군호 김동규 고봉현 김의영 서상호 김우중 김용구
 박성필 고창운 문대향 김옥돌 문일병 강문선 김한필 한진옥
 고봉주 고희정 강상범 박경식 김진환 강용서 김봉관 장기호
 박상원 문자행 이경준 고내중
 사 무 장 고장수

▶ 재일제주도친목회 임원 명단(1969. 5 ~ 1970. 4)

고 문 김진홍 김진근 안재호 김달관
 상 담 역 김홍준 홍종언 이응후 임동춘 김홍두 양홍석
 참 여 안명규 오인규 김서봉

회 장	김용해
부 회 장	김자인 김창조 신남식
총무부장	신기만
재정부장	김임탁
조직부장	고기창
사업부장	고계환
후생부장	이태훈
섭외부장	양우제
이 사	양창걸 김봉수 김두화 고칠표 이창민 김태정 신동희 신영철 김원두 박임봉 오성문 김정호 고지봉 이욱영 이광우 김한도 조태화 고운중 김원방 김신현 이경언 안인권 김동식 김문탁 서진용 고중화 강봉조 이경택 현완송 문원갑 고성수 강정관 송사홍
감 사	김진관 홍태삼

< 참 고 문 헌 >

- 제주도(1962) 제주도 창간호~77호(1980)
제주도(2007) 애향의 보람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65) 한라산 창간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66) 한라산 2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67) 한라산 3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70) 한라산 4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74) 한라산 5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76) 한라산 6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81) 한라산 7호
재일본 제주도민협회(2001) 한라산 8호
재일본 제주개발협회(1991) 애향무한 <30년사>
재일본 제주도친목회(1976) 창립10주년 기념사
관서 제주도민협회(2004) 창립10주년 기념지
부만근(1975) 광복제주 30년 문조사
제주도(1996) 제주실록
제주연감사(1969) 제주연감
박용호(1976) 제주도, 박영사
허인옥(2001) 제주도 감귤원의 성장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고찰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2001) 제주감귤농협40년사, 서울문화사
재외제주도민총연합회(2005) 지구촌 제주인
제주도(2006) 제주도지
정미영(2006) 조선시대 제주과원 설치와 감귤진상에 관한 연구
조맹수(1992) 재일 제주인, 제민일보

부 록

1. 재일동포와의 유대강화의 길 - 김영관	69
2. 재일교포에 대한 나의 신념 - 김영관	74
3. 재일교포와 향토와의 가교 - 홍순만	85
4. 제주개발회사(가칭)의 설립을 바라면서 - 권용식	91
5. 1세들의 회고(좌담회)	96
6. 연수생 좌담회	101
7. 흙으로 오던 길 - 고정국	106
8. 정승연·고장수 좌담	117

주 : 감귤 부흥기의 제주도와 재일동포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김영관, 권용식 당시 도지사와 홍순만 공보실장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또 연수생들의 좌담과 재일동포 1세들의 회고담, 당시 실무자들의 대답을 함께 실는다. 직책 등은 당시 직명을 그대로 표기했다.

1. 재일동포와의 유대강화의 길

김 영 관 (제주도지사)

5·16 직후 나는 혁명정부의 제주도지사로 임명되면서 제주도가 예로부터 근면과 량속의 섬이며 축산과 수산개발에 천혜적인 소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4·3항쟁 이래로 십여 년 동안 정부시책에서 버림받아 왔다는 사실 등 몇 가지 예비지식을 가지고 부임해 왔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제1의 사명은 4·3항쟁으로 말미암아 구정권들에 원한을 품고 있는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여 혁명정부에 신뢰감을 갖도록 하느냐 하는데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공수포적인 강경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도민의 품안으로 뛰어들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혁명정부의 도민에 대한 공약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이곳에 유사래의 건설 「붐」을 일으켜서 광의로는 관광시설의 확충과 협의로는 영전농어민에게 노임 철시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여 우선 도로와 수원개발에 안목을 두었고, 둘째로는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작물의 장려와 그의 시장획득 및 축산 수산 등에 걸치는 모든 산업을 생산지에서 조업시킨다는 원칙하에 전체도민의 소득증가를 꾀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 개개인의 생활이 향상되고 윤택해진다면 4·3항쟁의 원한은 물론이고 혁명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에 수반 될 것임을 확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나는 차례로 구체적이고 사무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본도의 연간 예산의 거의 90%에 달하는 거액이 모두 국고에 존재되어 왔다는 사실이며, 제아무리 제주도지사가 개발의욕을 갖는다 하더라도 중앙의 재량에 문제의 귀결이 달려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얼마만큼이나 더 국가예산을 본도로 유치하느냐가 관건이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박정희 의장 각하를 비롯하여 최고위원회의의 본도에 대한 특단의 배려에 힘입어 합수시설과 시간선 도로의 포장을 성공시켰고 제주시와 서귀포를 직결하는 한라산 횡단도로 포장공사도 완성단계에 있으며 년차적으로 일주도로 포장도 대행케 되었다. 국가예산을

얼마큼이나 더 보조 받느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나는 도로개발 분야만은 대승적으로 해결을 시도 하였고 또 그렇게 귀결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제주도의 개발이 정부예산만을 투입하는 국가시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차츰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다른 도와 비교될 때 지극히 이질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지금 일본에는 60여 만명이란 교포가 살고 있으며 그 30% 이상인 8만 여 명이 제주도출신이고 그 가운데는 일본재계의 우수한 실업가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 십여년간 향토에 대해서 거의 적대상태나 다름없이 교류의 길이 막히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로 하여금 향토에의 투자의욕을 갖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개발을 국가시책의 선과 병행하여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다.

일본에는 또 하나의 「제주도」가 있다. 8만여명을 헤아리는 본도 출신교포와의 유대강화는 지금 나의 최고의 이상이 되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이상을 끝내 실현 하고야 말 진격한 견오로서 일본과의 민간외교를 시원하고 있는 것이다.

62만의 재일동포 가운데는 「조련」계에 휩쓸려든 사람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것도 외면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 기반을 제2의 기지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간접침략을 간단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국가적으로 보아서도 재일교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반공사상의 보급에 전력치 않으면 안될 것이나, 구주로부터 북해도까지 일본 본주 수십개 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교포를 대상으로 거창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백년하청의 감이 없지도 않으며 구 정권하에서 거류민단을 통한 몇 차례의 그와 같은 시도는 거의가 수포화 하였다. 그에 비해 북한의 조직적인 선거공세는 소위 「북송」사태까지 빚어냈음은 경언불후의 일이다. 그런데 교포총수의 30%에 해당하는 본도출신 교포만은 결속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믿는다.

현재 30만의 제주도민치고 일본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며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의 재일 제주도출신 교포는 해방 전에 정주하였던 사람들이 많겠지만 해방 뒤에 건너간 사람도 무시치 못할 숫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물론 밀항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자도 있을 것이며 세밀한 분석을 피한다해도 이 중에는 4·3항쟁 당시 사상적으로 의

심받은 나머지 피신 책으로 도일한 자도 있겠지만 거개가 연고를 찾아갔거나 생활고 때문에 건너간 사람이 아닐까하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따라서 그들은 모두가 고국정부가 자기의 소행을 증명하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상의 위험심을 품고 있음도 오로지 인정에 속하는 일일줄 안다. 일본에서 「조련계」가 활계를 친다지만 실상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에 질게 물든 소위 「앞잡이」 몇몇에 지나지 않고 무지하고 본의 아닌 「조련계」의 각인의 짝힘으로서 모국에 있는 가족마저 생활주변에서 위압감을 강제 받았던 게 과거 정권의 행보이었다. 이런데서 소위 「관제공산당」이라는 말이 비롯된 것도 같다.

올 여름에는 일본 조일신문의 진기특파원이 제주도를 다녀가고 동지에 보도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풀이 안가는 점도 있었지만 4·3항쟁의 일부책임이 행정의 출사에서 파생되었다는 이야기는 지정되는바가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당시로 보아서 공산당의 활동무대로서는 너무나도 38선과 위험한 거리에 있었고 또한 적색사상의 온상의 될 요소가 가장 희박했던 지리적 조건에서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요 뒤에 벌어진 「게리라」 전에는 소지를 주었지만 그것은 이차의 문제이고 우선은 공산당이 활동하기에 가장 위험한 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전도를 휩쓸다시피 만들었으니 그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한 원한이 일조일석에 살아지리라고 믿는 편이 오히려 무리일 것이다.

나는 「승공의 길」을 생각할 적에 종례의 고의적이고 소극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다 더 대승적인 승부에 의해서 전개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함으로써 나는 지난 일년 반동안 제일교포 제주출신 인사와의 대담한 민간교류를 시도해 왔고 그들에게 제주도의 재건상을 공개하는 교량역할을 다하면서 4·3항쟁 이재민의 원주지 복귀사업을 비롯한 혁명정부의 꾸밈없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시종 상호이해를 부르짖어 왔든 것이다. 나는 공산당의 「앞잡이」가 아닌 이상 「조련계」라는 레벨만으로서 제일교포의 유가를 색안경으로 보지 않으며 그들의 모국과의 유대를 관송한다는 행동으로서 실증하기에 서슴치 않을 결의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62년도 시정방침에서 「본도 출신 제일교포의 향토개발의욕을 고무하여 그들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서 본도 개발을 추진하며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는 특수목표를 내걸고 이의 실천에 나섰던 것이다. 실로

천만다행한 일로 동경에 있는 「제주개발협회」와 대판의 「향토경제인협회」 등의 제주출신의 실력단체가 향토와의 유대에 호응해왔고 62년도만 하더라도 공식적 혹은 개별적으로 향토시찰을 위해 방도한 유력한 인사가 50여명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2월말 동경경제인 모국방문단 일행으로 개발협회 상무이사 한재룡 씨를 대표로 하는 경제인 9명이 귀성을 비롯하여 4월 중순에는 제주개발협회 회장 김평진씨 동고문 고원일씨 일행 14명을 제주공항에 맞게 되었다. 반생만에 고향땅을 밟는 그들 일행은 문자 그대로 감회의 눈물에 젖었고 그들과 손을 잡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나는 고국을 향한 수많은 동포들이 정열과 또 외로운 향수를 지닌 수만의 넋에 부딪치는 느낌을 견잡을 도리가 없었다. 우리가 다같이 인간적인 정애를 가지고 일관해 나간다면 적어도 8만여의 제주출신 교포만은 우리의 동지로서 결속 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이 순간에 재확인 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평진씨 일행은 향토시찰을 마치고 귀국함에 앞서 전선과 육사를 방문했고 박의장 각하를 비롯하여 최고의원회의와 그리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한내무부장관과 환담을 나누면서 조국의 재건에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던 것이다. 이어서 개발협회 초청으로 8월에는 오고축구단이 일본원정의 장송에 오르게 되었다. 우리 선수단이 대일 전일정을 통하여 일본 삼대도시인 동경, 대판, 신호에서 그곳 고교축구계의 명문을 상대로 거의 전승의 성과를 올리고 교포들의 한결같은 박수속에 돌아왔지만 승패 그 보다도 한일국교 정상화가 모색되고 있는 비제에 스포츠외교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교포와의 유대를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거사는 실로 역사적인 의의를 지녔다고 하여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방으로 성의를 베풀어 주신 수많은 교포제위에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용단과 일본축구협회의 각별한 후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다음으로 11월초에 “대한결핵협회대판특별지부” 향토결핵환자위문단 일행 16명이 강시홍 박사 인도하에 X레이기 및 약품 등 시가 이백만원 상당의 선물을 가지고 다녀갔으며 같은달 17일 개발협회장 김평진씨의 개인출자로 “제주관광호텔”의 기공식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수지면을 차치하고 희생적으로 나선 김회장의 애향심에 나는 솔직히 경의를 표한다. 또한 지난 오월에는 애월면 고내 출신들이 향리에 공회당을 세우고 도로확장에 써달라고 10만원을 보내왔으며 얼마전 대판의 김녕리 출신교포를 대표하여 강두천 한영섭 양씨에 의하여 김녕리에 일만불의 회사가 있었다. 이밖에도 향토개발에 기여하는 독지가가 수없이 나섰으며

특히 본도의 육영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일, 이백칠십사만원 거액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아뿔튼 이러한 일련의 교류를 통하여 대판과 신호지방에서는 본도의 교포들이 종전의 분열상태를 지양하고 향토개발의 길로 단결하자는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하며 더구나 뜻있는 교포들은 이제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제주출신만이라도 단결하여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그리고 62년도의 최종을 장식할 거사로는 절주에 선택된 탐라미인은 재일교포와 중앙과 본도를 일환으로 하는 정신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미의사절”로서 일본에 보내기로 되었다. 이 거사 역시 교포들의 초청에 의한 것이며 파일 축구단에 뒤이어 실로 획기적인 수권이 기대되는 것이다. 전송한바 나는 혁명정부의 제주도지사로서 정부예산에만 의존하는 개발로부터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재일교포의 자본에 의한 제주도개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교포측에 회사일변도를 요구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재일민간자본에 힘입자면 그들의 투자의욕을 돋구어야하며 가령 예를 든다면 송당 목장만 하더라도 교포들에게 어떠한 특단의 지위로서 불하시켜 주는 식으로 하여 그들의 자본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방향을 우리가 마련해주어서 투자의욕을 더욱 진작 시켜주어야 된다고 본다. 이 같은 나의 소신은 비단 제주도개발이라는 분야에서만 아니라 혁명의 차원을 이룩하려는 비장의 결의서인 것이다.

끝으로 재일교포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길에서 요체가 될 몇 가지 점을 재삼 다짐 하고자 한다. 즉 제주도 출신 교포 8만여를 결속시키는 날에는 60여만의 동포를 모조리 “조련”과 결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에 일본에 있어서 “조련”의 모습을 용역케 한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줄소했기 까닭이지 결코 교포가 사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실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일본에 있는 우리 제주 출신 교포간에 태동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 알 수 있는 일인 즉, 요는 이러한 움직임은 교포들 중에 과거에 다소 과거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절의 과거를 완전히 백지로 돌리고 그들에게서 “조련계”라는 “레벨”을 떼어줌으로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단정하여 과언이 아닌 줄 안다. 어쨌든 이러한 거시적인 위치에서 가일층 집중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될 때 공산주의자와의 제2의 전장인 일본에 있어서 우리는 사상적 승리마저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며 다음 기회에 이 과제를 놓고 그 방안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까 한다.

2. 在日교포에 대한 나의 信念

金 榮 寬

- 一. 재일교포의 실태
- 二. 과거의 재일교포 對策(대책)
- 三. 재일교포와 향토의 交流(교류)
- 四. 재일교포의 功績(공적)
- 五. 향토개발과 재일교포의 位置(위치)
- 六. 재일교포의 선도문제

一. 재일교포의 實態(실태)

지금 일본 정부에 등록돼 있는 62만의 교포 중 약 15만에 달하는 교포가 제주도출신으로 推算(추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鄉土(향토)에 살고 있는 30만 인구의 반수가 일본에 있는 셈이며 다시 말하면 또 하나의 제주도가 일본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처럼 많은 제주출신 교포가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은 제주도가 일본에 近接(근접)해 있다는 지리적 조건에도 緣由(연유)되겠지만 보다도 제주도민의 進取(진취)기질이 강하다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제주도민은 예로부터 勤勉(근면)하고 활동적이어서 남에 依託(의탁)하기를 싫어하는 자립성이 강한 백성이며 또 未知(미지)의 땅에 대한 동경과 개척정신이 旺盛(왕성)한 백성이다. 따라서 비좁고 척박한 제주도에 얽매어 있기 보다는 차라리 넓고 문명의 尖端(첨단)을 걷는 선진국에서 그들의 활동무대를 구하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간 제주도 출신 교포들을 돌아볼 때 그들의 대부분은 고향에서 貧寒(빈한)한 層(층)에 속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일본에 건너가 피나는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것이다. 그들이 異國(이국)의 薄待(박대)하에서 치른 피나는 苦勞(고노)의 歷程(역정)은 우리들이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오늘날 재일교포들의 생활상황은 대부분 零細(영세)층에 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는 일본굴지의 사업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제주출신 교포가운데도 상당한 경제적 실력을 가진 실업인들이 있어 앞으로 도 껍 유망하다는 것을 듣고 있다.

교포들이 渡日(도일)한 동기를 살펴보면 생활方途(방도)를 전제로 진출한 것을 爲始(위시)하여 留學(유학)차 건너갔다가 그대로 눌러앉은 사람, 徵用(징용) 또는 徵兵(징병)으로 동원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 4·3항쟁 때 避身(피신)책으로 건너간 사람 등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4·3항쟁 때 度日(도일)한 교포들의 本國(본국)에 대한 악감정으로 말미암아 교포전체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해방직후의 혼란한 사태하에서 수난을 당한 사람들이며 그때의 惡印象(악인상)이 지금도 殘存(잔존)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推測(추측)할 수 있는 얘기다.

비단 일본에 건너간 사람뿐 아니고 지금 섬에 사는 전도민도 4·3항쟁의 비참한 악몽은 가시지 않고 아직도 그들의 가슴속에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故國(고국)을 등진 교포들에 대한 시급한 선도책이 講究(강구)되어야 했을 것이나 고식적이며 彌縫(미봉)적인 빈약한 정책의 반복으로 인하여 본국정부와 재일교포 사이에는 더욱 무거운 壁(벽)이 가로 놓여졌을 뿐이다. 이런 결과는 재일교포로 하여금 고국의 현실을 그릇 認識(인식)케하여 고국에 대한 愛着心(애착심)을 저버리고 한국정부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朝聯系(조련계)의 欺瞞(기만)선전에 귀를 기울여 심지어는 北宋(북송)을 희망하는 無知(무지)한 교포가 나타나는 사태까지 惹起(야기)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고향을 돌아보지 못한 교포들은 아직도 고국의 사정이 과거와 같은 상황하에 있을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며 또 실지 일본에서는 그런 견해가 여론을 지배하고 있는 형편이다.

친朝聯系(조련계)에 제주도 출신 교포가 많은 까닭도 바로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실상 제주도출신의 적색분자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선전 선동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정부에 대한 잊적인 불만 때문에 附和雷同(부화뇌동)한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만 믿는다.

二. 과거의 재일교포 對策(대책)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일본에는 15만에 달하는 제주출신 재일교포가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지난날 사실상 고국과 등지고 살아왔다.

과거 정부는 이들을 赤色視(적색시)한 나머지 그들을 警戒(경계)하기에만 급급하였을 뿐 그들의 내면을 알려하고 그들을 따듯이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다.

재일교포가 어찌다가 그들이 낳아서 자란 고향을 찾아오는 일이 있으면 경찰은 그들을 출두시켜 최인처럼 迅問(신문)하였고 또 要 監視(감시)인물로 취급하여 뒤를 밟기가 바빴다고 한다. 물론 선량한 교포로 가장하여 浸透(침투)하는 五列(오열)에 대한 경계가 긴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모처럼 고향에 방문한 교포들이 한결같이 五列(오열)시되어 경찰의 등살에 부대껴서 결국은 불안속에 차가운 인상을 안고 모국을 떠나곤 했던 것을 상기할 때 당시의 當路者(당로자)들은 반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재일교포들은 고국을 방문하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될 수 없었고 또 웬만한 일 가지고는 고향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4·3항쟁 이후에 渡日(도일)하였거나 고향의 현사정에 어두운 교포들은 고향에 찾아갔다가는 수사기관에 붙들려 죽친다는 비언 때문에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은 염두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에 대한 搜查機關(수사기관)의 비사한 감시와 부단한 干涉(간섭)은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와 교포사회를 더욱 이간시켜 놓았고 향토와 교포 사이에 함부로 相通(상통)하 수 없는 두터운 벽을 쌓아올린 격이 되고 말았다.

교포들은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려고 해도 당시의 정부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친지에 대한 扶助(부조)의 뜻으로나 또는 향토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교포가 금품을 快擲(쾌척)하는 일이 있어도 朝聯系(조련계)나 어떤 黑幕(흑막)을 가진 자금처럼 주목과 경계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재일교포의 자금을 받아들여서 향토의 개발사업을 꺾거나 혹은 조총계에 가깝거나 아직 태도를 분명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교포사회에 한발자욱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조총련계의 적극적인 宣撫(선무)공작에 반해서 警戒一本主義(경계일본주의)로 움츠려 들기만 하던 그 당시의 빈약한 정부정책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三. 재일교포와 향토의 交流(교류)

재일교포를 경계대상으로만 생각했고 그들과의 거래를 위험스런 행동으로만 생각하던 이런 상황하에서 재일교포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5·16 혁명 이후 나는 군정하의 제주도지사로 있으면서 뿔보다도 注力(주력)하고 情熱(정열)을 기울였던 과업의 하나가 바로 이 재일교포와의 紐帶(유대) 문제였다.

내가 제주도에 赴任(부임)하고 나서 재일교포에 대한 시급한 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데는 그리 긴 시일이 필요치 않았다. 그것은 과거 정부가 재일교포에 대하여 너무나 근시적이며 고식적인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교포들이 거의 억울한 누명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장차 제주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제주출신 재일교포의 힘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임 초부터 재일교포와의 유대강화문제를 提唱(제창)하였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여 왔다. 특히 昨年(작년) 10월 제주관광호텔의 개관식석상에서 나는 재일교포에 대하여 언급하고, “본도출신 재일교포 중에 설령 과거에 과오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과거를 清算(청산)하고 향토의 방문을 희망한다면 나는 과거를 불문에 부치고 따뜻한 동포애와 大乘(대승)적인 태도로서 그들의 신원을 보장하고 고국을 다녀가도록 하겠다.”고 闡明(천명)하였으며 “앞으로 국가경축행사에 반드시 재일교포가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나의 果敢(과감)한 발언에 대하여는 혹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을 지 모르지만 대체로 도민들의 공감을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재일교포와 향토의 교류를 소망한 나의 제창은 곧 일본에 있는 교포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또 8·15광복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교류가 실현에 옮겨졌다.

1962년 4월 당시 재일제주개발협회장 김평진씨와 同顧問(동고문) 고원일씨를 중심으로 동협회 간부 14명으로 구성된 제1차 모국방문단을 위시하여 5·16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3년 동안 3차에 걸친 재일제주개발협회의 모국방문단과 대판에 있는 강시홍박사가 인솔한 16명의 향토 結核患者(결핵환자) 慰問團(위문단)등 교포측에서 단체를 구성하여 향토를 방문한 것만도 7차나 되었다.

한편 향토측에서도 1963년 1월 現제주도지사 姜祐俊(강우준)(당시 제주신문사장) 제주상공회의소장 홍종진, 제주대학교 문종철 제주농원사장 姜昌鶴(강창학) 제주신문사전무 김선희(金宣熙) 동편집국장 고정일(高正一) 등 諸氏(제씨)와 本人(본인)까지 7명으로 구성된 제1차 재일교포친선방문 및 산업 문화시찰단의 방일을 비롯해서 최정숙(崔貞淑) 여사를 단장으로 耽羅美人(탐라미인) 고여진(高麗珍) 양과 미쓰인기(人氣) 문태자(文泰子)양으로 구성된 미의 사절단 그리고 오현고등학교 원정축구팀 등 단체과일만도 5차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개별적으로 향토인이 일본을 방문했거나 교포가 향토를 방문한 건수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치 막대한 수에 달하였다.

우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도에서는 그동안 제주도의 變貌相(변모상)을 수록한 제주도 기록영화를 제작하여 일본에서 상영하게 하였고 5·16 혁명 이후 눈부시게 躍進(약진)한 향토의 모습을 찍은 기록사진을 일본에서 전시하게 하였다. 또 일본에서 강연회를 열어 고향의 실상을 바르게 소개하여줄 기회도 가질 수가 있었다.

오고 축구단이나 미의 사절단의 방일도 매우 의의 깊은 행사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포모국방문단이 다만 며칠 동안이라도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향을 찾아 와서 실지로 고향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정든 친지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음은 마음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향토의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 또 향

토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여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는 순수한 민간외교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친선을 敦篤(둔독)히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향토와 교포사회속의 간격을 좁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四. 재일교포의 功績(공적)

내가 제주도에 부임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어지간히 戶口(호구)가 群集(군집)한 촌락에는 국민학교가 있고 또 좀 더 큰 부락에는 대개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가 서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매 인구 2천에 학교가 하나 꼴이 되는데 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많은 학교가 거의 정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민자체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학교가 건립된 裏面(이면)에는 대개 부락출신 재일교포의 힘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주도에 학교가 많은 원인을 든다면 거기엔 반드시 재일교포의 功勞(공노)를 손꼽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마을이면 흔히 눈에 띄는 文化館(문화관)도 거의 재일교포의 힘이 그 基底(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 와서는 비단 학교 문화관에 그치지 않고 도로, 橋梁(교량), 給水(급수)등 산업시설을 위시하여 농기구, 의료기구, 苗木(묘목), 圖書(도서), 앰프, 라디오 등등 각 마을 각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재일교포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5·16 혁명 이후 금년 4월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재일교포들은 현금만 한화로 약 천삼백만원, 기계류 등 현품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팔천만원, 묘목이 백사십만원 상당으로 도합 구천구백사십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품을 향토의 발전을 위함 喜捨(희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도가 把握(과약)할 수 있었던 통계에 그치는 것이고 이 외에도 과약하지 못한 많은 금품이 고향을 위해서 投擲(투척)되고 있으리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는 교포들의 출신향리 별로 많은 친목단체가 조직되어 각기 그들의 향토를 돕고 있지만 특히 괄목할만한 단체로서 동경에 재일 제주개발협회가

있고 대판에 재일제주도민회와 재일제주도경제인협회가 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친 모국방문단을 구성하여 실지 향토를 시찰하는 한편 또 여러번에 걸쳐서 향토의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고 일본을 시찰하게 하였다.

이번에 또 재일제주개발협회가 금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採擇(채택) 추진 중에 있는 기술연구생 10명에 대한 일년간 기한의 초청계획은 참으로 획기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으며 一線模範(일선모범)공무원과 기술시찰단의 초청과 함께 큰 수확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가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제주도개발사업에 보태진 투자사업이다. 前제주개발협회장이던 金坪珍氏에 의해서 제주시에 세워진 제주관광호텔은 지금 서울 장안의 어느 一流호텔에도 遜色(손색)이 없는 최신시설을 갖춘 것으로써 바야흐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관광제주의 體貌(체모)를 위해서 크게 '플러스'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는 金氏의 이와 같은 향토개발사업에의 투자는 첫 嚆矢(효시)로 기억되며 앞으로 제2, 제3의 교포사업가가 나와서 머지않은 장래에는 제주도개발사업의 一翼(일익)을 담당하고 나가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五. 향토개발과 재일교포의 位置(위치)

5·16 혁명 이후 제주도는 역사에 없던 근대화과정을 밟고 있다.

한라산 횡단도로 및 제주시 幹線(간선)도로의 포장공사, 중산간 마을이 급수해결을 위한 심정굴착과 簡易(간이)상수도공사에 의한 飲料水(음료수)난의 타개, 15년동안 流浪(유랑)해온 4·3항쟁 罹災民(이재민)에 대한 원주지 복구사업 등 3대 사업을 위시하여 '가야호', '도라지호' 등 최신시설을 갖춘 豪華客船(호화객선)이 濟-木, 濟-釜 間에 就航(취항)했고 주간 2회 운항하던 항공여객기가 매일 2회 서울을 왕복운항하게 되었으며 무선전화가 陸地部(육지부)와 개통되고 難聽(난청)지구이던 서귀포에 방송중계소가 개소되었으며 제주시에 최신시설로 단장된 관광호텔이 개관되고 제주시내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였다.

또 제주예술제, 탐라미인대회, 경마대회, 해녀漁撈(어로)대회, 문화상 시상 등 과거에 없던 문화행사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그리고 고구마 매상을 비롯한 판로개척으로 특용경제작물의 증산을 꾀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파인애플 캐나우(麻의 一種) 등 열대식물의 재배를 시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상에 열거한 몇가지 사업들은 지난날 제주도가 버림받던 시절을 회상한다면 참으로 일찍이 없던 획기적인 수확이 아닐 수 없지만 오늘날 제주도가 지난 풍족한 자원에 비교한다면 한낱 보잘것없는 鴻毛(홍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제주도의 자원을 개발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선구적 구실을 다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제주도당국은 農, 畜, 林, 水産 등 산업자원개발과 특수작물 처리가공을 위한 공업지 조성, 도로, 항만, 비행장, 전원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한라산국립공원 설치, 케이블架設(가설), 식물원, 민속관, 수족관, 해수욕장, 경마장, 골프장, 스키장, 특수유홍장 등 관광시설을 10개년을 전제로 해서 원대한 종합건설계획을 成案(성안) 銳意(예의) 추진중에 있는 것이다.

그 투자규모를 보면

농산개발	6억 5,303만 7,330원
임산개발	5,269만 1,350원
축산개발	5억 6,044만 원
수산개발	16억 5,765만 원
공업지조성	23억 3,192만 8,000원
산업기반시설	112억 8,389만 6,000원

관광개발 82억 3,310만원으로써 총 투자액 173억 6,322만 2,680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국고보조 94억 3,343만 6,985원, 융자 69억 6,998만 5,695원, 자체부담 9억 5,980만원으로 분류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계획기간이 지난 10년 후에는 최소 142억 190만 4,900원 이상의 연간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현재 90%을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자체예산을 갖지 못한 딱한 사정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近 70억에 달하는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치루어 나갈만한 사업가들도 지금 도내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든 형편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막대한

과업이 성취되려면 이것을 뒷받침 할만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겠고 또 특별법이 공포된다면 자연 他地(타지)의 많은 사업가들이 제주도에 눈을 돌리고 손을 부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만 적어도 제주도 개발사업에는 제주도출신 재일교포가 제일선에 나서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나의 신념인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주도출신 재일교포 중에는 일본에서도 굴지의 대사업가와 기술자들이 있는 것이며 그들이 선진국에서 취득한 기술과 사업역량을 향토개발사업에 투입한다면 필시 괄목할만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재일교포가 기여한 공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세상이 다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개발사업도 재일 교포가 先驅者(선구자)가 되어서 領導(영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뜻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제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일교포가 걸머지고 있는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六. 재일교포의 선도문제

최근에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일본에 조총계의 노력은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백여차에 걸친 교포복송에 의해서 입증되었지만 일본 전역에 뻗친 그들의 魔手(마수)는 좀 채 사그러질 줄을 모르고 있다.

일본 지처에서 보 수 있는 일이지만 학교 문화시설을 위해서 신문, 원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침투율이 아직도 우리측 보다 훨씬 끈덕지고 우세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은 재일교포 대책에 있어서 복귀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자금 투입에 있어서도 우리보다 더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복귀와 대치한 가운데 準戰時(준전시)하의 編制(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상기할 때 재일교포의 선도문제는 실로 초미의 급무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지난 10여년동안 정부가 재일교포에 대해서 취해온 경계주의요, 封鎖(봉쇄)주의요, '매카시즘'적 수법이다. 이와 같

은 근시적이며 拙劣(졸렬)한 정책은 재일교포와 한국정부를 더욱 離間(이간)시키는 촉진작용을 하여 왔을 뿐이라고 나는 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以上 재일교포에 대한 소극적이며 빈약한 정책을 연장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닫아 놓았던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우리의 참모습을 그들 앞에 공개해야 하며 경계의 눈초리를 잠깐 내리깔고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며 동포애로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거시적인 안목을 발세워야 할 때다.

近間(근간) 북송되었던 교포들이 북한실정을 폭로하는 사례가 있는 이후로 北送熱(북송열)이 점차 사그러지는 것을 보더라도 친조총계 교포들이 모두 공산분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은 대부분 선전이나 선동에 속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대범하게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歪曲(왜곡)된 그들의 사상을 선도하고 우리의 참 뜻을 선무하여 등져 앉은 그들의 자세를 바로 앉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자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난 2년 반 동안 제주도 지사로 있으면서 향토를 찾아오는 교포들에게 경계의 출두요구나 심문을 일절 철폐하도록 조치하였음은 물론이었지만 그들을 擧導的(거도적)으로 열렬히 환영하여 참으로 고향을 찾은 보람을 느끼게 하였던 나의 진의를 이제는 제주도민과 교포여러분은 납득하였으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환영은 곧 일본의 제주출신 교포사회에 旋風的(선풍적)인 화제를 일으켰다. 그것은 고향을 잘못 찾았다가는 봉변을 면치 못한다는 조총계의 流言(유언)을 완전히 顛覆(전복)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향토의 발전상을 실지 목격하고 본래 생각하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새삼 感歎(감탄)하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하여 4·3항쟁 이후 제주출신 교포사회에서 마치 암흑세계처럼 이야기되고 또 믿어왔던 제주도가 희망에 넘치는 이상의 섬으로 일익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나는 한사람이라도 많은 교포가 고향을 방문하도록 했으며 또 한사람이라도 많은 향토인사가 일본을 찾아가서 이곳 사정을 바르게 소개해 주도록 권장하였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隔月(격월)로 발행하는 종합잡지 『제주도』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관한 特輯(특집)이 갈재된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해서 재일제주개발협회,

재일제주도민회, 재일 제주도경제인협회 등 3단체에 送付(송부)하여 교포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기록영화상영, 보도사진 전시 등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하여 교포들에게 향토를 소개하고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래서 15만 제주도출신 재일교포가 우리 隊列(대열)로 들어온다면 62만여 재일교포를 宣撫(선무)하는 것도 결코 무망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제주도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도민여러분 그리고 제주출신 재일교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있기를 소원한다.

3. 在日僑胞와 郷土와의 架橋

洪 淳 晚

어찌다 在日僑胞가 향토를 찾아오면 눈으로 감시를 받았고 감찰딱지가 뒤를 붙여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같은 동포인 그들이 왜 모국에서 천대를 받아야 했는가 疾視(질시)받던 그들은 이제 반가운 소식을 나르는 배달부처럼 기다려지는 손님이 되었고 내집 드나들듯 향토를 찾아오고 있다. 것처럼 디딜 수 없던 수렁에 어떻게 다리가 놓였는가. 그 다리를 논 사람은 누구였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 있으며 어렵듯이 알고 있던 사람들도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때의 상황을 헤집고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한다.

설움을 먹고 산 교포들

세상에는 설움을 먹고 사는 인간가족들이 많다. 그 가운데는 제일교포들처럼 어디에도 깃을 펼 곳이 없어 설움 속에 산 운명도 있다.

그들은 출발부터가 悲劇(비극)을 안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었다. 고향은 그들에게 안식할 땅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日本에서도 그들은 수모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누가 반겨서 팔을 벌려준 것도 아니었고 순탄한 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다. 온갖 굴욕과 수난을 내리 누르고 일했으며 孤軍奮鬪(고군분투)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의 설움은 가는 곳마다 운명처럼 따랐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와도 어린시절을 회고하고 향수를 달랠 그런 곳은 될 수 없었다. 교포가 제주도를 찾는 날이면 그에게는 의례 査察(사찰)딱지가 붙어 다녔다. 공항이나 港口(항구)의 검문에

서부터 떠나는 날까지 잠시도 경계와 감시의 눈초리가 쉬는 일이 없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예 고향에 벽을 쌓고 살았던 것이다. 자유당시절에 교포 1세대들이 겪던 수난이다.

그들이 마치 공산당이나 間諜(간첩)들처럼 눈총을 받았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해방후에 혼란과 4·3항쟁의 激浪(격랑)속에 제주도를 빠져나가 日本으로 피난처를 구했던 젊은이들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들의 日本逃避(도피)는 재일교포들에게는 극악의 여론을 조성했고 견잡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쳤다.

원래 日本에는 10만을 상회하는 제주도출신교포가 살고 있었다. 그들이 이들 일부 도피자들의 煽動(선동)에 말려들어 크게 動搖(동요)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제주판 맥카시즘 이라고나 할까, 성가신 모든 존재를 빨갱이로만 몰아 부치려던 당시의 병적인 치안정책은 이 동요를 按撫(안무)하기는 커녕 도리어 부채질 하는 결과가 됐다.

在日僑胞가 제주도에 들어왔다가는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루머는 전 교포 사회에 恐怖(공포)분위기를 야기 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일로 고향을 다녀가야 했던 교포들은 戰戰兢兢(전전긍긍)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웅졸하고 狹是(협시)政治시절에 있었던 교포정책이었다.

길목을 튼 牧官(목관)들

어떤 힘으로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벽이었고 다시는 디딜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수렁이었다. 그 벽이 뚫리고 그 수렁에 다리가 놓이는 날이 왔다. 5·16 혁명 이후 정부의 對교포정책이 一變(일변)했던 것이다.

차가운 눈총 대신에 미소를 보냈고, 검문대신에 꽃다발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감시의 눈이 미행하던 곳에 기대의 눈길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在日僑胞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도개발에 재일교포가 참여하는 새로운 時代가 열렸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一朝(일조)에 엄청난 轉換(전환)을 가져오게 했던 교포정책은 가능했으며 그 產婆役(산파역)은 누구였나, 在日僑胞에 대한 이 중대한 국가정책의 변동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濫觴地(남상지)가 바로 제주도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주역구실을 맡았던 사람들도 전후하여 濟州道伯(제주도백)을 지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그때의 배경과 상황을 돌아보면서 필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한다.

1961년 5월, 5·16革命이 일어나자 軍政期(군정기)의 道伯(도백)으로 金榮寬(김영관)提督(제독) (現 駐越大使(주월대사))이 부임했다. 金지사는 제주도개발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것처럼 역대지사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名行政人(명행정인)이 기도했지만 교민행정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功績(공적)을 세운 분이였다. 이분이 바로 향토와 재일교포 간에 다리를 놓고 친선교류의 첫 길목을 튼 사람이었고 우리나라 교민정책의 중요한 변혁을 가져오게 한 產婆役(산파역)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金지사가 재일교포를 보는 眼目(안목)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 하나는 그때 제주도의 現住(현주) 人口는 30만에 조금 미달이었지만 日本에는 15만에 가까운 제주도출신 교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일본에 또 하나의 제주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많은 인적자원을 排除(배제)해 버리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물론이지만 국가적 시점에서 보드라도 결코 현명한 일이 못된다는 신념을 가졌다.

또 하나의 제주도는 자체재원이 빈약할 뿐 더러 기업도 형성될 수 없어 산업면에서 영세성을 모면할 길이 없으므로 산업진흥에 필요한 민간자본이 동원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제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서 재일교포의 참여는 정년 활력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在日僑胞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고 여러모로 검토한 끝에 金지사는 대담하게 문을 열어 짓히고 재일교포들을 맞아 들이고 濟州道開發 隊列(대열)에 끌어들이는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關係要路(관계요로)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중앙에 절충하고 建議(건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중앙에서는 이 문제를 내무부 치안국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그 때 이 문제를 직접 담당했던 當路者(당로자)가 공교롭게도 후일 濟州道伯(제주도백)으로 부임한 具滋春(구자춘)知事(지사)였다. 具지사는 당시 정보과장이었으며 그로부터 6년 후, 그러니까 姜祐俊(강우준), 鄭雨湜(강우식)지사를 거쳐 제15대 제주도지사로 부임하게 되리라는 것은 본인도 미처 예지 할 수가 없었던 때였다.

필자는 후일 具지사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때 치안국에서는 일이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치 이 문제를 놓

고 진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金榮寬(김영관) 지사가 느닷없이 찾아가서 隔意(격의)없는 의견을 교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분은 재일교포에게 문을 열어 짓히는 문제가 국가안보상 매우 조심스런 일이긴 하지만 國民總和(국민총화)나 해외동포를 혁명과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試圖(시도)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두분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하고 서로 협조하여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다.

참으로 현명하고 度量(도량)있는 행정인들의 용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일협정이 締結(체결 65. 12. 18)되고 국교가 정상화되기 4년전의 일이었다. 이래서 해방이후 17년 동안 막혔던 재일교포에 대한 封鎖(봉쇄)정책이 하루아침에 개방정책으로 急轉(급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具滋春(구자춘) 지사(현 서울특별시장)는 후일 濟州道伯으로 취임하여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므로써 김영관 지사와 함께 제주도개발에 공헌한 雙璧(쌍벽)으로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지만 在日僑胞들이 모국에 발붙일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데 있어서도 이 두분의 공적은 영원히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歡迎一色(환영일색)에 쌓인 방문단

道에서는 재일교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우선 그 무렵 동경에 제주도출신교포로 조직되어 있던 재일제주개발협회에 대하여 단체 모국방문을 초청했다. 그리하여 62년 4월 高元一(고원일)氏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제주개발협회 第1次 母國訪問團(1行 14名)이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道에서는 김영관 지사를 비롯한 모든 기관장 유지들이 공항에 나가 열렬한 환영행사를 베풀고 그들을 뜨겁게 맞아 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道政全般(도정전반)에 걸친 브리핑을 해주고 道간부가 一行(일행)을 안내하여 향토의 變貌(변모)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道一周(도일주) 시찰을 시켰으며 교포들과 도내의 유지기관장 등이 자리를 같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영파티를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金지사는 이들 개발협회 간부들을 직접 서울까지 案内하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大

統領을 위시하여 中央要路(중앙요로)를 禮訪(예방)하게 함으로서 재일 제주도출신 교포들에 대한 중앙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이 방문단의 일원으로 來道(내도)했던 김평진씨(당시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는 金지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62년 10월 제주관광호텔을 着工(착공)함으로서 교포투자의 첫 케이스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이 호텔이 落成(낙성)되었을 때 金지사는 그 式典(식전)에서 在日僑胞에 대한 중대한 발언을 하였다.

“지난날 재일교포 중에 비록 과오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조국의 근대화과업을 위해서, 그리고 낙원 제주도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너 나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대 결속해야 할 때입니다. 교포가 희망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향토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할 것이며 제반 편이를 도모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離脫(이탈)하기 쉬웠고 또 실제 먼 거리로만 떨어져 나가고 있던 재일교포들에 대하여 참으로 적시에 폭넓은 포용정책을 밝혔던 것이다. 이 발언은 濃疑(양의)의 눈으로 고국의 동태를 살피던 많은 교포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제주도가 재일교포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포용정책을 쓰고 또 檢索(검색)과 運行搜查(운행수사)등을 배제한 대신 뜨거운 환영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재일교포들의 향토방문 의욕을 북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재일교포들의 향토방문은 재일 제주도개발협회의 모국방문단 외에도 62년 한해 동안 5백40여명에 달했으며 그 후 계속 뒤를 이어 해마다 증가일로의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친선시대의 막은 열려

한편 재일교포들의 향토방문과 때를 맞추어 도내인사들의 재일교포단체의 초청받고 재일교포사회를 시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것은 63년 1월 김영관 지사를 단장으로 강우준(作故(작고), 당시 제주신문사장), 문종철(당시 제대학장), 홍종진(작고, 당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선희(당시 제주신문전무이사), 고정일(작고, 당시 제주신문편집국장), 강창학(제주 농원사장)氏 등 유력한 지도층 인사로 구성된 視察團이 일본을 방문한 일이었다. 이 일행이

訪日은 교포들과의 친선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주도개발에 대한 교포들의 참여도를 판단하는데 소중한 자료를 거두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이 외에도 박태훈씨를 단장으로 한 오고축구팀의 일본원정, 최정숙 여사를 단장으로 하는 탐라미인 고여진, 문태자양 등의 미의 사절단 등 모두 친선교류의 길을 여는데 공헌한 뜻 깊은 방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하여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교포와 향토의 두 사이에 자연 이해를 증진하는 길이 뚫리고 정이 통하는 다리가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또 교포들이 향토에 대한 급격한 관심은 교포단체를 유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5·16 혁명 이전에 일본의 제주도출신교포단체는 61년 2월에 창립을 본 개발협회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동경의 재일 제주도경제인협회(61년 9월 창립), 재일 제주도민회(63년 1월 창립), 재일 제주도친목회(66년 5월 창립), 재일 제주청년회(67년 4월 창립), 재대판 제주도상공인협회(68년 1월 창립) 등이 잇달아 대판에서 탄생(註(주)· 제주년감 참조)을 보았다. 이 단체들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설립인상을 주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크고 작고 간에 그동안 향토발전에 보탬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지금까지 대충 재일교포정책에 대하여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게 한 경로와 또 초기에 있었던 교포와 향토간의 교류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재일교포들이 향토에 대한 투자태도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후일에 가서 그 功過(공과)가 평가되어야 할 줄 안다.

어쨌든 모국과 향토를 등졌던 재일교포들을 다시 고향에 발붙일 수 있도록 끌어 들이고 복지터전을 다지는 개발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것은 천번 만번 환영할 일이었다고 믿는다. 더구나 제주도에서의 교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확이나 문제점 등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정부의 교민정책을 정립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후일을 내다보고 재일교포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게 했던 두 행정인의 용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재일교포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경로로 형성되고 누가 그 주역을 맡아 성사된 것인가를 여기에 밝히면서 향토와 교포의 유대가 제주도민의 총화를 다지고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이 되기를 전도민과 함께 빌고 싶다.

4. 제주개발회사(가칭)의 설립을 바라면서

도지사 권 용 식

목 차

1. 제주도개발의 연혁
2. 교포의 향토애정신
3. 교포와의 유대강화
4. 앞으로의 성과기대

정부와 투자와 함께 도민의 투자를 같이 병행하고 내외도민의 긴밀한 유대와 제주도개발에 공동참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며,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다시 제주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제주도 개발의 연혁

제주도의 개발은 지난 61년의 5·16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날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단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과 도민의 경제활동이 아직도 원시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낙도의 후진성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과는 달리 부존된 자원적 여건은 다른 어느 지방과도 못지않게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본도는 자원의 보고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로 이토록 풍부한 산업자원은 본도개발의 저해요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제주의 특색이 그대로 5·16이후에 정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도로서의 면목을 갖추어가며 발전하여 왔다. 즉 한라산정의 자연 지대로부터 광활한 중산간의 유희지대, 해안의 경작지대 그리고 4면환해 연, 근해어장 특히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하에 하나하나 부각되어 개발이 개시된 것이다.

예를 들면, 200고지 이하 경지에서는 식량작물인 보리만을 재배하던 우리농민에게 경제작물로 대체하는 길을 터주고 특히 황금작물을 자처하는 감귤조성을 비롯하여 중산간을 개발하여 목야지화하는 꿈을 실현시키고 있으며 500고지 이

상은 천연림으로 이를 보존하면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변 해역의 개발로 수산에 대하여도 신기원을 마련하여 이들을 총괄한 관광제주의 면목을 일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산업과 관광을 연결하고 도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착착 정비하고 있으나 제주의 역사와 함께 도민에게 아쉬움을 던져주던 물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도로망의 확충, 포장도로의 확대, 전기, 통신, 공해항의 확장 등 도민생활에 어제가 옛날인 양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발전하여 가고 있다.

2. 동포의 향토애정신

이러한 오늘의 제주도가 있기까지는 본도에 부존된 자원의 개발가치를 받아들인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잊을 수 없고, 이에 못지않은 도민 스스로의 자주, 자조정신과 함께 재일 제주도출신 동포의 뜨거운 향토애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

현재 일본에는 15만의 본도출신 동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일본 굴지의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사람도 적지 않으며, 이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포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재일동포와 도민사이에는 두꺼운 장벽이 가로놓여 있어서 상호 교류가 불가능하였지만, 다행히 5·16 이후에 와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책이 베풀어져 교포와 도민사이에 새로운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결과 재일동포들은 향토의 실정을 직접 돌아보면서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토개발을 위하여 심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 문화사업을 비롯하여 산업, 경제분야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할 뜻을 가지고 시설의 유치와 자본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3. 동포와의 유대강화

호랑이도 죽을 때에는 머리를 고향쪽으로 돌린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향토와 고국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비록 본도출신 재일동포가 2차대전을 전후하여 미지의 세계를 동경한 나머지

개척정신으로 일본에 이주하였지만 향토와 고국은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따라다녔을 것이다. 특히 대전중 징병, 징용으로 끌려나가 종전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본도의 4·3항쟁 당시 일시적인 피신책으로 도일한 사람의 경우는 더욱 절실한 바 있었을 것으로 안다. 제일교포 가운데에는 대실업가로 성공한 사람도 많고, 아직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으면서도 그 사회, 그 생활에 젖어서 또는 그 생활에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고향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간에 우리사회도 과거와는 아주 판이하게 변모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도만 하더라도 개발도상지역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확보가 절실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자본과 함께 근면한 우리 도민의 노력이 있는 한 제주도의 장래는 매우 밝은 것이다. 그래서 지난 65년에는 제주도개발을 위한 해외동포 재산반입 허가에 관한 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포들의 향토개발을 위한 투자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지난 66년 8월부터 69년말까지의 재산반입 상황을 살펴보면 수산개발을 비롯하여 농, 축산과 관광 및 교통 그리고 건설사업용 기자재까지 모두 1백 11만불 상당액이 반입되었으며 공업지개발용 기타 상당한 재산반입 건이 다수 승인 되어있다.

특히 제주도산업의 근대화를 위한 기계류나 운송업에 뒷받침할 선박의 도입을 비롯하여 관광개발을 위한 '호텔'의 건설 등은 본도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지난 69년에 도내 초유의 민간은행인 제주은행이 개점되었음은 본도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일동포들의 향토개발을 위한 참여와 정부의 지원 및 도민의 자조적 노력이 뭉쳐짐으로써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본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무진장한 자원이 남아있다.

여기에 본도는 종전의 개발계획보다 차원을 한층 높인 새로운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현재 그 초안을 가지고 국내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작업반으로 하여금 연일 검토중에 있다. 그 내용은 연내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게 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본도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특히 교포와 도민과의 결속된 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은 오늘의 교포나 도민만을 위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자손만대에 이어줄 번영을 위해

서라는 데서 더 깊은 의의를 찾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상호 결속하는 기풍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도는 금반 제일동포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토발전상을 홍보 함은 물론, 특히 본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민간투자의 폭을 넓힘으로써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제주도개발주식회사(가칭) 설립안을 마련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10개년 계획이 아무리 본도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치밀하게 수립될지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자본과 인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전체예산의 8할 이상을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만큼 자체 재원이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형편으로 보아 언제까지나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는 반비례로 우리가 할 일은 산적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체재원의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도내외의 민간자본 투자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놓고 교포와 도민, 또는 교포단체 사이에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굳센 단결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도내 여론을 모아 지난번 일본의 여러 교포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실업인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도 매우 밝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 제주도개발회사 설립으로 인한 성과기대

제주도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성과가 거두어 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제주도개발주식회사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도민의 투자를 같이 병행하고 내외도민의 긴밀한 유대와 제주도개발에 공동참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다. 교포들이 향토개발사업에 투자할 때 그들은 제일 교포이면서 동시에 제주개발회사의 주주로서 향토를 방문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상호긴밀한 유대를 맺고, 향토개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둘째로 제주도개발주식회사의 설립은 민간자본의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다시 제주도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족한 내자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 전체의 개발과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특정단체나 일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어느 한군데에 묻혀질 수가 없는 것이요 마땅히 보다 나은 전체 제주도를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두는 바이다.

셋째로 제주도개발주식회사는 제2세 교포들과 모국사이를 잇는 교량역할을 해서 특히 동포로 하여금 모국애의 정신을 넣어주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상호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동화되면서 모국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기에 우리는 모국애 발로의 계기를 이룩하여 내가 투자로써 조국의 장래에 대하여 같이 기대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주도개발주식회사는 적어도 이상과 같은 몇가지 문제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빨리 발족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5. 1세들의 회고(좌담회)

※ 제주개발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감귤묘목보내기 사업 등의 산파역을 맡았던 1세들이 가졌던 좌담회를 옮겨 실습니다.

▶ 玄栢洙(현공수)

우리들이 일본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시작한 것은 당시의 제주도의 생활상태가 너무나도 빈곤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생활향상을 도모하자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 협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종일관 하여 협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 같은 것을 무시하여 왔던 것이지요. 협회의 그러한 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밀감 묘목의 기증은 당초부터 제가 책임을 지고 해 왔습니다. 2기째의 회장 때(1972년)에는 통상성과의 절충도 하거나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高琤準(고봉준)

우리들은 어렸을 때 부모 곁을 떠나 타국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37세 38세까지 되었었습니다만, 1962년 협회에서 처음으로 향토를 방문했을 때는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갈 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와 고생해 왔던 것을 생각하고는 진정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제주도에서 우리의 친지들이 이렇게 고생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어찌서 이렇게 가난하기만 할까 생각하여 김평진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협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제1회 향토방문을 하여 제주 비행장에서 김영관(金榮寬)지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로 눈물이 나와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귤묘목의 기증도 쉽사리 허가가 나지 않아 임원들께서 수속하는데 고생을 하여 겨우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상당한 수확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한국 전체를 보아서도 좋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30년의 세월동안 개발협회의 사업이 열매 맺어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 무렵, 우리들 모두 3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봐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자했던 생각 자체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에서 농업기계나 수도나 전화나, 모두가 주머니 돈을 털어 모아 기술자를 불러와 양성하여 기초를 만든 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개발협회가 대체 무엇을 개발했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무렵에는 토지도 쫓기 때문에 몇 만평이라도 사서 큰 건물을 지었더라면 상당한 이익을 올려 선전은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로서는 그런 것보다 더 기본적인 기술면에 응원을 하는 편이 제주도개발에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 玄栢洙(현공수)

농기구에 대한 문제는 1964년 동경올림픽이 끝날 무렵부터 제기되어 그 이후 적극적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통해 처음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는지요. 그 무렵 농기구라면 제주도에 트렉터 2대밖에 없었습니다만 분무기와 트렉터와 풀깎는 기계, 합쳐 140대 이상 갖고 있었지요.

기술문제에서는 연수생도 상당수 불러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들이 일본의 감귤조합이나 농협에서 들어 온 것을 전하는 것도 기술이전이라고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대학에서 연구도 하여 전문가들도 배출되어 충분히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젠 본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 金坪珍(김평진)

제주개발협회 자체는 재정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출자하여 연수생 교육에 임했던 것인데 연수기한인 1년간이 지나도 협회를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본에 머무르는 수속을 하거나 하여 결국 제주도의 발전에 힘이 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은 유감스럽지만 지금 생각해 봐도 역시 기분이 좋지 않군요.

▶ 金昶輝(김창휘)

1961년에 취임한 김영관(金榮寬)도지사는 강원도출신이지만 제주도개발에 의욕을 불태워, 홍종언(洪宗彦)氏(제주상공회의소회장)등 7명의 상공인들과 함께 1963년에 경제관찰단으로써 방일했었지요. 유락정의 호텔 일활(日活)에서 환영식을 갖고 九段會館(구단회관)에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양계장 견학과 靜岡의 감귤묘목 재배장에 시찰을 갔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비싼 값으로 팔리지 않을까 하여 천엽(千葉)에 있는 전분으로 포도당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양돈장의 햄공장 등을 반을 나누어 견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제인들도 크게 의욕이 솟아 제주도에 포도당공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 高瑋鉉(고봉현)

저는 개발협회가 생긴 후 몇 년인가 뒤에 참가하여, 창립 20주년에 해당하는 해야 회장을 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이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없을까하는 소박한 애향심에서 이 협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고문 여러 선배님들은 제주도를 위해 여러모로 최선을 다 해 오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큰 사업은 밀감묘목을 보내는 운동이었지요. 대충 집계해 보니 400만 그루 가까이 보냈더군요.

또한 민간단체로서 농업연수생을 초청하여 공부를 시키는 등 중대한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제3차 연수생을 초청하게 되었었는데 靜岡의 감귤단기대학에 한국 연수생을 받아주도록 요청하러 찾아갔었습니다. 국립인 감귤단대는 한국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본 학생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말하자면 나라를 위한 봉사로서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의 관료들은 이해가 부족했었지요.

그러니까, 4월에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도착한 것은 7월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모처럼 연수생을 받아들여 주려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진정으로 향토를 사랑하여 한 사람이라도 일본의 농업기술을 배워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인데 우리나라 관료들은 이해해 주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봐도 유감스럽군요. 그런 고충도 있었습시다.

제주도는 감귤사업으로 한때는 소득이 최정상까지 되었던걸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姜京俊(강경준)

저의 때(1985~86년)에는 일본에 있는 2세 3세들에게 자신들의 고향을 잘 인식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을 우수학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주도는 매우 생활이 어려웠던 섬으로써 개발협회에서 감귤묘목을 가지고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관광만으로도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그 무렵에 감귤나무도 아무것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밀감재배의 성공으로 제주도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어서 소년체육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속의 제주도, 제주도가 있는 한국으로 인식되어 앞으로 제주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高瑋準(고봉준)

에피소드라고 하면 저는 회장이었을 때(1969~70年)에 밀감 묘목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갔었습니다만 그 때 福岡으로부터 최고의 기술자를 데리고 갔었지요. 그래서 묘목을 전정을 했는데 5년이나 걸려 겨우 크게 자란 나무의 한가운데를 모두 잘라 내 버리니까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며 불평을 받았지요.

전문적으로 보면, 나무는 한가운데를 전정하여 키우면 바람이나 일광을 잘 통과시켜 매년마다 적정량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몰랐었던 것이었지요.

그 당시는 쌀밥을 못먹던 때라 잡곡이 반 정도 섞인 밥을 먹던 때였으니까요. 데리고 간 일본인인 기술자가 못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쌀밥을 대접한 일도 있었고 그 뒤 일본에 돌아왔지만 이것 저것 30년의 세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지금은 정말로 발전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 高瑋鉉(고봉현)

최초에는 연수생이 3개월이나 늦게 7월에 왔기 때문에 초조하기도 했었어요.

본국 사람들도 기초 단계의 재배기술은 알고 있지만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지요. 그러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이런 것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불평을 하여 늘어 놓는 것이었지요. 기술이라는 것은 단계를 밟아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며 화를 내면, 이젠 또 3개월 정도가 되어 점점 어려워져야 아,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1년 더 배우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연수기간은 1년이니까요. 1년 계약으로 왔었지요. 그런 태도로는 안된다고 말하고 1년간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그 중에서도 高正國(고정국)씨는 착신했지요. 여기서 2년간 연수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2년간의 교섭을 하도록 했지요. 지금은 본국에서 책을 내기도 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애향무한 <재일본제주개발협회 30년사> 1991.

6. 연수생 좌담회

7차례에 걸쳐 2개월에서 1년간 일본연수를 했던 篤農家(독농가)들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제주감귤산업의 中樞的(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연수를 주선했던 재일본제주개발협회 임원과 연수생 대표들이 만나 감귤 등 제주농업에 관한 문제를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日 時 : 1990년 5월 7일 15시

▶ 司 會 : 姜 景 璿(강경선) (제주대학 교수)

參席者(참석자) 金昶輝(김창휘) (개발협회 고문)
 玄拱洙(현공수) (개발협회 고문)
 高章守(고장수) (개발협회 회장)
 姜英植(강영식) (연수생)
 姜元豪(강원호) (연수생)
 高正國(고정국) (연수생)
 高宗貴(고종귀) (연수생)
 金仁澤(김인택) (연수생)
 金仁煥(김인환) (연수생)
 姜英植(강영식) (연수생)
 吳崙才(오윤재) (연수생)
 河順鵬(하순봉) (연수생)
 韓允三(한윤삼) (연수생)
 許澤善(허택선) (연수생)
 玄洞昊(현동호) (연수생)

(사회) 1965년부터 일본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과 개발협회 임원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앞으로 제주농업발전을 위해 좌담회가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일본 제주개발협회가 고향에 감귤묘목보내기 운동을 전개한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감귤은 이제 제주도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개발협회 주선으로 일본연수를 했던 여러분들도 그동안 지역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지난 20여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제주도산업을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 **姜元豪(강원호)** 당시 농업기술자 협회장으로 연수생등을 引率(인솔)했던 사람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재를 털어 감귤묘목 보내기와 농업기술자 양성에 힘 기울였던 개발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연수를 주선했던 개발협회 임원과 연수생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농지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도와 농협같은 곳에 전문위원실을 만들어 이들을 농협 각 분야에서 諮問(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전문위원으로라도 활용했으면 합니다.

▶ **韓允三(한운삼)** 제주도 감귤은 지난해 89년 74만톤이 생산됐고 앞으로 5년 이내에 1백만톤 이상이 생산될 것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과, 단감에 비해 감귤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뒤지고 있는데 品種更新(품종갱신)과 수출을 위해 도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중단된 농가의 해외연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개시켜야 합니다.

▶ **玄洞昊(현동호)** 솔직히 일본의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15~20년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내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제품 도입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 **姜英植(강영식)** 그 사이 일본을 몇차례 다녀온 일이 있으나 개발협회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아쉬웠는데 개발협회가 있는 빌딩에 안내판이라도 큼직하게 설치했으면 합니다.

▶ **高宗貴(고종귀)** 일본에서 배우고 온 딸기, 마스크메론 재배, 멀칭재배법 등을 농가에 普及(보급)하려 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河順鵬(하순봉)** 개발협회에서 어렵게 양성해 놓은 농업지도자들은을 관계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1960년대와는 달리 우리도 올림픽을 치른 국가인 만큼 도나 농협, 감협 등에서 농가의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

다. 개발협회도 새로운 농사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 **吳崙才(오윤재)** 감귤재배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대정지역에 오늘날 감귤을 대대적으로 보급해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개발협회의 덕택이었습니다.

농업이 사양길에 있는데다가 인력도 관광산업으로 집중되다 보니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 **金仁澤(김인택)** 세계는 바뀌고 감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의 연수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며 1개월 이상 滯留(체류)가 힘든데 정부와 개발협회에서 6개월이상 연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일본에서 연수했던 20년전과는 농업기술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에 대한 기술을 높이고, 좋은 품질을 도입할 수 있도록 後繼者(후계자)들에게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金仁煥(김인환)** 올해 제주감귤은 해결이현상으로 減收(감수)가 예상돼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量産(양산)될 것에 대비, 외국수출추진과 유기농법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許澤善(허택선)**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들이 아무런 모임도 없이 제각기 지내 온 것은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수생 모임을 가져 새로운 정보를 교화해야 하겠고 개발협회는 이같은 모임에 농사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正國(고정국)** 생산원가를 제대로 把握(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귤진흥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도내 농가와 재일동포들이 힘을 모아 감귤가공공장을 세우는 일도 신중히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 등 당국이 권장한 농사를 지으면 망한다는 불신을 없애는 일도 시급합니다. 정보제공, 농민후계자 양성,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도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金昶輝(김창휘)** 고문 축산, 농업, 감귤, 수산등에 역점을 두어 고향에 조금

도움을 준 결과 이제는 크게 발돋움 했고, 제주도가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어 제주인으로서 커다란 긍지를 느낍니다.

재일교포 제1세대를 마감하고 2세들에게 고향을 알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협회 3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며 그 속에 고향사람들의 염원을 담아두고 싶어 오늘 이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 **玄栢守(현공수) 고문** 그 당시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는 감귤나무를 고향에 많이 심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일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없이 일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柑橘母樹園(감귤모수원)하나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당국의 처사에 다소 섭섭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귤묘목 보내기 운동을 할 때 당국의 管理疏忽(관리소홀)로 다른 품종이 들어오고 돈벌이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도지사가 항구에 한번 나와 본 일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이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고 하지만 제주도민들에게 감귤은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귤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 나가고 후계자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에도 투자를 늘려 품종개량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공개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체가 실시되면 제주도 자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高章守(고장수) 會長** 고향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정성을 모았던 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니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개발협회도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의 신품종을 고향으로 보내려면 농림수산부장관 推薦(추천)없이 도지사 추천으로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까다로운 통관절차도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시설농업관계 등 필요한 정보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要望(요망)해 주셔야 迅速(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수생을 일본으로 계속 초청하는 일은 경비부담면에서 어렵지만 周旋(주선)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밖의 농사 정보제공 등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사 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려준 말씀은 품종개량, 기술의 고도화, 가공공장의 설치, 유통체계의 개선, 각종정보의 교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도입에는 신속한 통관절차 등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정보를 입수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문제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수생 초청사업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수생 모임을 조직화, 정례화 함으로써 향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개발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개발협회와 연수생들이 이 좌담회를 통해 제주농업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把握(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7. 흙으로 오던 길

高 正 國

[이 글은 1972년 고정국씨가 제2차 산업기술 연수생으로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쓴 글로 감귤기술의 일본 연수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옮겨 실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벌써 스무나흘 뜨겁고 메마른 대지위에서 시들어가는 어린 식물들과 함께 한 젊은이가 몹시도 비를 기다리고 있다.

내 흙으로 온지 벌써 다섯 달이 넘었다. 흙으로 오던 길에 나를 스치고 지나간 바람결의 차가움 그리고 나를 적셨던 곳은비의 감촉과 산 넘어 보이던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파일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약 2년 간을 일본에서 일본사회를 호흡하면서 더구나 연수생활의 표면과 이면을 이 모자란 솜씨로 더구나 아무런 사려도 없이 붓으로 옮겨본다.

여기서는 연수생활 중의 이면을 중점적으로 쓰고자 한다.

出國하던 날

일본 동경에 있는 제일제주개발협회로부터 제2차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초청장을 받고 약 육 개월 동안 여러개의 관문을 거치고 드디어 일행 13명과 함께 여정에 오른 것은 1972년 7월 10일 비 내리는 오후였다.

난생 처음 떠나보는 한국이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보는 외국이었기에 어린내 가슴은 그리도 설레었는지 모른다.

그날 오후 3시 동경의 하네다공항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간단한 입국절차를 마친 우리들은 우리의 초청 기관인 제주개발협회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 환영식에서 당시 협회 회장으로 계셨던 현공수 회장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산업기술연수생 이기에 앞서 여러분 개개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절단임을 명심하여

일본이란 나라에서 보다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환영식이 끝나고 협회임원들의 자동차에 나눠타고 비내리는 동경의 거리의 자동차물결에 함께 휘말려 우에노(上野)에 있는 협회사무소에 도착한 것은 빌딩들의 숲사이로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오후 늦게였다.

거기에서 입국신고와 인사소개가 있는 다음 일정계획을 듣고서 오사카에서 일부터 東京까지 나를 마중 나와 주신 삼촌님과 함께 대관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시속 240km로 달리는 신간선열차는 비 오는 철길을 달리는데 차창밖에 흐르는 네온의 물결은 과연 내가 시골을 떠났고 한국을 떠나 일본에 온 것을 실감케 했다.

대관의 삼촌님 집에 도착한 것은 밤 열한시 삼십분이었다. 초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촌형이 덤석 잡는 거칠은 손에서 갑자기 나는 우수부터 느끼고 맞았다. 난생처음으로 사촌형을 만났다는 기쁨이라기 봐 형이 그 거칠고 굳어진 손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던 것이다.

그 손은 비록 사촌형의 손이지만 더 나아가서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손이며 그 손의 거칠은 감축은 참으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밤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었다.

낮설은 곳에서

일본에 도착한 지 닷새후인 7월 15일 우리들은 당초예정보다 3개월이 늦게 서야 연수할 장소인 靜岡見清水市에 있는 靜岡見立柑橘試驗場에 입소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외국생활은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하여 나로 하여금 적이나 당황하게 하였다. 특히나 가장 고통을 겪었던 것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피교육자로서 교육자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육과정에 있어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특히나 일본학생들 보다 3개월이나 교육과정이 늦었고 농학이나 감귤관계에 비교적 지식이 낮은 나였고보면 알려는 의욕이 감하면 감할수록 그 고통은 더했다.

일행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나로서는 일본어에 대해서는 완전백지였고

일행중 몇몇 사람은 일본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 부러웠다. 강의시간에 차가우리만치 스피드한 강사의 강의를 받으면서도 외롭기만 했다.

귀도 설었지만 맛도 설었다. 한국인, 특히나 제주도사람들의 식성은 비교적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데 비하여 일본인들은 연하고 단 것을 좋아했다.

또한 한국의 식탁은 구수하고 풍성한데 비하여 백인들의 식탁은 단조롭고 규격적이었다. 물론 기숙사의 식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의 몇 달 동안은 식탁을 대할 때마다 약간의 고통을 느꼈지만 취사를 맡은 아주머니의 근심스런 표정을 의식하고 애써 식성을 익히려고 노력해야만 했다.

내가 일본사람을 보고 처음으로 느낀 것은 얼굴모양이나 체격은 한국인과 별다름이 없었지만 주로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두발상태였다.

머리모양 만으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만치 그네들은 장발형이었고 특히나 시험장의 작업복은 남녀구별없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뒷모습을 보고는 식별하기 어려웠다. 우리와 같이 교육을 받는 일본학생이 약 팔십명이었는데 그 중에 머리를 단정히 하고 있는 학생은 겨우 서너사람에 불과했다.

일본 젊은이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와는 타국인이라는 감을 느끼게 했고 그것이 나로서 그네들과 약간의 거리감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분발하게 하였고 또한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일본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하루속히 일본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타지방사람의 그 지방에 갔을 때 그 목적여하에 따라서 그 지방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것이 목적달성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나의 사견이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으로나 민족적 측면에서 볼 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그것을 자칫하면 간사한 행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고집으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일본에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보면 하루속히 일본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감귤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일행 중에서 가장 어린나이로서 일본 젊은이들과도 쉽사리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것이 나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때로는 애써 일본어를 공부하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웬지

초라한 느낌이 들어 측은히 여겨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조그마한 광복절기념식

시험장에 입소한지 꼬박 한달 만에 제 27주년 광복절을 맞았다.

우리민족이 암흑 속에 헤매다가 빛을 되찾은 날, 과거의 36년간을 암흑 속을 헤매게 했던 그네들의 땅에서도 8월 15일은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기념식을 갖기로 했다. 마침 그때는 일본학생들은 여름방학으로 전부 귀가해 버리고 우리는 3개월이나 입소가 늦은 관계로 여름방학도 없이 시험장포장실습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만은 우리도 시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또 그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겨우 한 시간 의 시간허락을 받고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이다.

비록 우리대로 손수그린 태극기였지만 우리는 그 태극기 앞에 숙연해졌고 태극기가 지나는 위엄 앞에서 잠시 동안 산만해질려던 국가관과 한국민의 긍지를 수습할 수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지난날 일본인들에게 그렇게도 멸시와 탄압을 받았던 태극기, 그러나 당시부터 우리민족은 태극기에 대한 관념이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태극기를 대할 때 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학창시절 기념 행사 때 불렀던 정도의 애국가를 그때처럼 나의 감정이 강렬하게 움직이며 애국가가 흘러나왔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국을 떠나서 애국가를 불러보라. 그리고 낮은 외국의 길 거리에서 문득 우리의 태극기가 수많은 만국기의 대열에서 나부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도 반갑고 기쁠 수가 있을까? 건너편 건물 창가에서 우리의 기념식광경을 보는 일본인들의 심정은 어떨을까? 비록 모두가 초라한 작업복차림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가슴속깊이 살아질줄 모르는 역사의식을 짐작하고 있을까. 애국가도 광복절노래도 그리고 만세삼창도 크게 건물을 진동시켰다.

과거에 우리 선열들이 외치고 싶었던 대한독립만세를 이제는 일본인들 앞에서 대한민국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더구나 그네들의 패전기념일날에...

빛을 본지 27년 - 그러나 그 세월이 조국의 하늘색은 왜 그다지 우중충 했던가? 한국이 해방된지 27년이 됐고 일본이 패전한지 27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나

는 일본에까지 와서 기술을 배우는 즉 일본인의 피교육자가 되야만 했던걸까? 좀처럼 대답하기 곤란한 이 자문에서 잠시나마 외로워졌다.

기념식이 끝나고 다시 우리는 부여된 일과에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뜨거운 폭양아래서….

독농가 파견 실습

그해 늦은 가을 우리는 특별히 밀감의 채수실습으로 靜岡縣의 대표적인 감귤산지인 야마기리(山切)란 곳에 열흘간 파견되었다. 비단 감귤을 따고 저장하는 표면적인 실습도 그러려니와 우리보다 감귤산업에 앞서고 있는 일본의 감귤농가에 투숙되어 그네들과 같이 생활해보며 또 과연 한국농민과 일본농민과의 농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적 내지는 관점적 차가 있으며 더욱 내면적인 문제로서 일본농민들의 사고방식 또는 생활습관 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본사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소위 『백성』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낮고 농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역사적 관념이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었으며 역시 농업을 배우는 젊은 층에서도 그 『하그쇼(百姓)』이라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고 있는듯 했다. 어쨌든 나는 그 열흘간의 파견실습에서 그네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준 일본농가의 인상은 나에게 많은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실로 일본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했다. 우선 시간을 아끼고 물건을 절약했다. 사실상 내가 직접 일본농가에서 같이 생활해 보고서 과연 나는 농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주인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두시간을 쉴새없이 일을 하고도 밤이 되면 부락회의 또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좀처럼 초저녁에 집에 있을 때가 없었다.

그 급경사지인 감귤원을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익숙치 못한 나에게겐 힘이 들었으며 거의 사십년생 이상의 감귤나무에 올라 온종일 밀감을 따는 것은 말 할 수 없는 고역이었다. 우리 일행들은 두사람씩 짝지어 그 부락농가에 각기 투입되었는데 몇일 작업을 하고 나니까 과로로 인해서 코피가 터지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져 피가 터지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져 발이 빠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도 일주일을 작업하니까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거칠어졌다. 역시 나는 농부로서 자격

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 과연 농부라는 직업은 이런것일까 하고 생각해 봤다.

물론 시기적으로 봐서 밀감 채수기는 년중을 통해서 가장 바쁜 때로서 보통과는 사정이 다르다고는 하겠으나 농업에는 시와 낭만이 있을 것이라는 어린 나의 농업에 대한 기대는 환멸부터가 앞서버렸다. 아무리 고되고 지치더라도 조금도 실의의 빛이 없는 그네들의 그 표정이 대견스럽고 훌륭해 보였으며 항상 연구깊이이고 창조적인 그네들의 농사에 對하는 태도가 오늘날 동양의 농업선진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젊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과제가 많아짐을 느꼈다. 그러나 외국인인 나로서 하나의 불만이 있다면 농부역시도 인간임에 틀림이 없는데 좀 더 인간적인 면이 아쉬웠다.

지나치리만치 계산적이고 인정의 아쉬움을 느꼈다. 물론 우리는 실습생이고 그네들은 열흘간 침식을 제공해 주고는 있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 자세는 약간 섭섭함도 없지는 않았다.

실습중 어느날 저녁 주인이 그집에 일꾼으로 와 있는 청년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우리와 같이 술을 사다 마시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을 적에 주인에게 무척 고마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멀리 북해도에서 밀감채수인부로 내려온 북해도청년들과 같이 술좌석을 같이 한 것은 좋으나 그 이튿날 좀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 때 한없이 섭섭했다. 우리가 약간의 보수라도 있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역시 우리는 침식만 제공받고 열흘간 밀감 채취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날 사다 마신 술값은 각자부담이라는 것이었다. 그말을 들었을 때 그때까지 좋게만 느껴졌던 그네들의 인상이 한꺼번에 사그러져 버리는것 같았다. 한국의 고추장같은 구수한 인정이 몹시 그리웠다.

그 후 여러 가지로 전정실습 등 독농가과견실습이 있었고 그때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으나 여기에 옮겨 쓸만한 용기가 웬지 나지를 않는다.

멀어져버린 고향마을

우리들 십명은 그익년 3월 25일 1년간의 과정을 끝나치고 수료식을 맞았다. 그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에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다. 젊은 나이의 나에게는 비교적 감수성이 민감하여 금방 눈물이 나오고 또한 외로워져 버려서 그길이 나를 스쳐간 사물들은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겠지.

그러나 수료식 날 나는 갑자기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향의 푸른하늘이 다시 일년간이나 더 멀어져 버렸던 것이다.

사실은 일본어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또한 밀감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는 되고 있었지만 나의 욕망으로서는 무엇인가 만족하지가 못했다. 그러던 차 동경에서 수료식 참석차 시험장에 오신 협회의 임원들과 시험장측과의 의논 끝에 나 혼자서는 일년간을 더 시험장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일행중에서 내가 가장 어렸고 또 우리 일행은 3개월이나 입소가 늦었던 관계로 그만큼 연수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해서 1년간을 연구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일본의 첫 생활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고 온 고향의 여러 가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하여 무척 가고 싶었다. 일행중에서도 내가 맨 처음으로 비행기표도 사고해서 귀향의 날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일년이나 더 연기 되버린 것은 행인지 불행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혼자서 외국의 하늘 밑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것은 물론 고생도 많겠지. 그러나 나는 나의 먼 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도 생각하고 인내와 그 결과도 생각해봤다.

그래서 1년간의 일본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밀감의 의미

나에게 있어서 감귤이란 말은 꼭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약 2년의 세월에 감귤이란 것으로 머리가 꼭 메꿔져 있었던 것이다. 일본생활의 하나에서 열까지 오로지 『감귤』~뿐이었다.

그리고 감귤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줬다. 감귤이 나에게 가장 처음으로 준 교훈은 식물철학이었다.

식물은 외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양분을 취하고 또 제조해서 화아를 분화시켜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사색과 그리고 진리의 도를 통해서 드디어 꽃을 피운다. 나는 그 진리를 식물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니 인간은 식물에 비해서 얼마나 간사하고 경솔한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사람의 사람이 되기도 전에 지인을 가르치려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하고 식물을 대할 때마다 느껴지곤 한다. 그리고 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꿀은 나 때문에 존재하고 나는 꿀 때문에 나의 길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꿀에 대해서 애정을 느낀다. 그러나 내가 꿀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도 모자라다. 아니 나는 식물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인간이며 인간은 꿀처럼 아니 식물처럼 원리원칙의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식물에 대한 연심으로 인해서 내가 걸어온 길에도 사랑의 꽃과 그리고 우정의 꽃이 피었다. 또한 한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정의 따뜻함도 그리고 고독과 쓰라림이 있었다, 그 꿀로 인해서...

어쨌든 감귤은 많은 교훈과 함께 도한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주었다.

時間의 농도

나의 하루의 생활은 항상 시간과의 투쟁이었다. 연구실활동 이상에도 자기의 사생활을 위해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구실과업을 마치면, 주간 3회정도 아르바이트도 하며 더욱 일본을 아는데 노력했다. 그래서 편지쓸 여유도 없을 만큼 정신적 또는 현실적 틈이 없었다.

나에게는 일요일도 없었다. 때로는 토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일요일 밤 12시까지 30시간이상을 일했던 적도 있었다. 새벽 2시까지 책상앞에 쭈구리고 앉아 그날의 공부를 미루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도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던 때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시계를 보면 왜 그리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 버리는가 하고 시간의 흐름을 아쉬워할 때도 있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의 열시간의 긴 시간은 왜 그리도 길었던지...

그러나 나는 즐겁고 행복했다.

같은 방을 이용하는 K군의 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K군은 언제나 나의 무리한 생활태도를 보고 마치 형제처럼 친절을 베풀어 줬던 것이다.

나를 때로는 자기 집에 까지 초대해서 좋은 대우도 받은 일이 있다. 특히 K군의 누이동생의 주일회의 정성어린 편지는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어쨌든 그때의 나는 한 시간을 어떡하면 3시간처럼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다. 즉 타인의 한시간이라는 시간을 나는 3시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나는 타인과는 달리 펍 불리한 조건이었다. 일본의 학생들이 한번만 읽

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도 나에게서는 최소한 세 번은 반복해 읽어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루는 24시간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하루가 12시간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30시간 이상이 될 경우도 있다. 시간의 농도가 같으면 같을수록 시간의 활용방법이 능숙하여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누가 부정하랴.

농촌의 신앙

가끔씩 나는 독농가파견실습이나 일요일의 아르바이트 때에 일반농가에 머물면서 일을 할 기회가 많았다.

그때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물건과 광경을 볼 수 있다.

집안에 그네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왠지 비위에 맞지 않은 느낌이 들었으나 자주 그러한 사실에 접하게 되니 그네들의 그 대상물이야 어쨌든 그네들이 방에다 신을 모시고 하나의 예식처럼 갖는 그 풍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기의 집안을 지켜주는 신을 스스로가 모시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화해서 자기의 의지로 삼고 생활하는 그 태도가 나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그러한 지극히 간단한 제단은 가끔씩 감귤원 한복판에 두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한국사회에서는 미신으로 통할만한 그 광경은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몰랐다. 하나의 자위행위라 할까 아니면 생활의지를 구축하는 수단이라 할까?

언젠가 나는 내가 가끔씩 밤일을 나가는 공장에서 좀 어색한 사실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 공장의 기계 중 한 대가 한때 잘 돌아가지 않았었다. 어찌다가 그 기계를 내가 다루게 되었는데 내가 운전하기 시작하자 그 기계의 상태가 펍 좋아졌다. 이 사실을 그 공장의 여자주인에게 전했다니 그 여자주인이 직접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은 그 기계를 향하여 두손 모아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 주인의 심경을 생각해봤다.

나이 사십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도 없이 오로지 그 애정을 공장에만 쏟고 있을 처지에서 물론 일을 법도 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한국인인 나로서는 좀처럼 짐작하기 어려운 거짓말 같은 사실이었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물에도

지나친 관심과 애정을 표명하는 일본인들의 생활태도의 뒷면에서 오늘의 경제발전의 원천을 볼 수 있을 듯도 하다.

祖國의 푸른하늘

벽차고 분주한 생활중에도 때때로 시험장 앞에 펼쳐진 해안의 모래사장을 산보할 시간적 내지 정신적 여유를 가지려 했다. 무척이나 고향이 그리울 때 그리고 외로울 때면 혼자서 해안의 모래사장엘 곧잘 나갔다. 지나간 일을 그리고 훗날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멀리로 펼쳐진 수평선 끝까지 나의 사색의 나래를 펴보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모래사장은 한국 제주도의 하늘과 바다 또한 모래사장과는 그 색깔이 다르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공해로 인해서 일본사회에서 순수한 하늘빛과 바다 빛은 찾기 어렵다.

부영계 퇴색한 하늘빛을 보면서 그리고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의 끝없는 연속, 제 빛을 잃어버린, 마치 병들어가는 짐승의 눈빛처럼 생기 없는 바다색을 보면서 과연 내고향의 그 푸르고 순수한 하늘과 바다가 얼마나 귀중하고 고마운 것이며 그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지닌 내 고향의 산하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물질문명은 자연을 파괴하고 스스로 인간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문명국의 곳곳에서 들리는 말들을 귀 넘어 들을 수는 없었다.

그리워했다. 그 고향의 가을하늘 풀벌레소리 고운달빛 아래서 연인과 거닐었던 조용한 밤 바닷가를....

맺 는 말

양상했던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시험장 트랙에 철쭉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무렵 정들었던 동료들의 아쉬운 인사를 뒷모습으로 받으면서 시험장을 뒤로하고 또 일본도 뒤로하였다.

2년이란 세월은 빠른 것이어서 이 짧은 내 정열을 맘껏 발산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 비록 허약한 육체로 2년간의 연수생활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결과야 어쨌든간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내 일생을 통하여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 나는 빈손으로 거칠은 황무지에 섰다. 내가 흠에 대한 기대는 다채로웠으나 이보다 몇 갑절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오로지 그 고난의 골짜기를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 나의 흠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며 나의 즐거움으로 하고 있다.

2년간 나의 연수생활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제주개발협회 김평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님들에게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보살펴주신 대판의 고병수 삼촌님께 이 칸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8. 좌 답 [정승연 : 고장수]

※ 정승연씨<전 제주도협회 2대 사무장과 재일제주도민회 사무부장을 역임>와 고장수씨<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 고문>의 좌담입니다.

- 일 시 : 2007. 7.
- 장 소 : 동경 재일본 관동제주도민협회 회관
- 진 행 : 조맹수



정승연씨

- ▶ **사회** : 두 분 반갑습니다. 정선생님은 도쿄와 오사카 두 지역 교민단체에 관여해 감귤묘목보내기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 **정승연** : 저는 오사카 도민회 가기 위해서 대판에 옮긴게 아니고 그 곳에 아버지가 살아계셔 가지고 거기 거들려고 그래서 오사카에 가니깐 그때 오사카에서 사무부장이 없다고 해서 그때 맡게 되고 감귤보내기 사업을 폈습니다.
- ▶ **사회** : 당시 고국으로 보낸 전체 물량은 어느 정도

입니까?

- ▶ **정승연** : 당시 도민개발협회를 통해 가지고 그 보내줬다는 분들이, 그때는 회원아니라도 감귤묘목을 보내기 위해서 회원을 지칭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발협회를 별로 좋게 안생각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까지 전부 파악하게 되면은 200만본이 넘을 겁니다.



고장수씨

- ▶ **고장수** :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후쿠오카 묘목회사에서 주로 구입했습니다. 오사카도민협회에서 감귤나무는 샀지만은 비행기로는 수량이 많고... 개발협회에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갔던 적이 있어요.
- ▶ **사회** : 센다이지역 교민들도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 ▶ **고장수** : 감귤묘목을 보내기 위해서 방문단 하네다에서 직행으로 방문단 가기 시작하니까 센다이 있

는 분들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하다가 또 센다이도 제주시 개발연구회를 구성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김평진씨가 회장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가 본부라고 하고 센다이가 암수지부라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도 창립 때 갔고, 총회 때는 한 두어번 갔습니다. 한 몇 년을 계속해서 여기 개발회총회 땀 센다이에서도 회장과 부회장이 참석했고 또 암수부 총회땀 여기서도 간부회에서... 그래서 밀감묘목도 하니깐 같이 하자하면서 수량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 **사회** : 수송은 선박편을 이용했지요?

▶ **정승연** : 주로 감귤은 배로 보냈지요!

▶ **고장수** : 배로 거의다 보냈습니다. 1년생은 100본이고 2년생은 50본씩 한상자였습니다.

그때 나무 200본 정도이면 큰 것이었습니다. 이 도청직원의 그때 월급이 8,000원이던가~ 나무 한상자가 8,000원인데, 그러니깐 그때 도착한 묘목은 도청 운동장에 뭐 트럭으로 하면 몇십대가 넘었을 겁니다.

그때 대한통운이라는 배가 별로 많이 실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많이 실지만 그때는 힘도 없어 칼호텔 앞동산을 올라가질 못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 **사회** : 당시 감귤묘목보내기에 기여한 분들은 누구입니까?

▶ **정승연** : 감귤나무보내기는 동경지역에서 돌아가신 조변훈씨 그 다음에 고원일(高元 一)씨 등이 중심으로 해서 현공수씨와 김영홍씨 또 한두옥씨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척 고생했습니다.

▶ **고장수** : 그때 개발협회는 회장하고 이사장! 회장 밑에 이사장이 있어가지고 이사장 밑에 부이사장이 있었는데, 주로 대외적으로 이름이 나가는 것은 회장이 나가지만은 실제로 그때 지금 얘기하는 현공수씨가 이사장이고 한두옥씨가 부이사장인데, 이 두분이 중심이 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김평진씨는 제주관광호텔 서귀포 관광호텔 유치해가지고 제주도 개발에서 많이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 : 당시 묘목 1그루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 **고장수** : 묘목회사에서 사기는 80엔에 사고 회원들에게 아마 본당 120엔씩 받았습시다. 그때 적립한 돈이 3,000만엔인가 얼마인가? 그것이 제주도의 개

발협회 기금이 됐지요.

그때 뭐 제주도가 그때 주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68년!

그때에 뭐 제주도 개발에서도 책임적으로 누가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그걸 크게 만들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뭐 그런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깐. 뭐 전부 개인이 제주도개발 개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생각으로선 그런걸 생각할 여유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 **사회** : 당시 제일동포들의 투자가 제주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요.

▶ **정승연** :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참 좋은 기회이고 그 좋은 자본이었다고 나중에...

그때는 주로 뭐냐 하면은 관광도움이나 공장같은 것. 특히 서귀포에 전분공장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만큼 또 했지만은.. 또 농업은 뭐 감귤심는다 해도 6년 후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시작해서 감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지만은 그 당시 그렇게 개발에 대해서도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이 사업은 뭐 절대 도민들에게 개발에 있어서도 좋다고 판단하기 그때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 **사회** : 묘목기증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여겨집니다.

▶ **고장수** : 묘목회사에서 자기네 묘목나무가 도착해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가고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 분이 배부하고 한 3일 지난 후인가, 같이 식사합시다 해서 식사같이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전거에 나무를 몇그루 실어가지고 장기두는데 가서 차전거를 놓고 한참을 구경하고 있드라구요.

이것이 차마 자기 돈 쥐서 산 사람이면 절대 그렇게 안해요. 빨리 심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저런거지. 절대로 공짜로는 안돼. 공짜로 준 것은 묘목으로서도 안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안돼. 절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사회** : 당시 도민의식 수준에도 문제가 많았으리라 보아집니다.

- ▶ **정승연** : 그 때는 도민들이 인식이라는게 그 정도 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원해서 보내주니깐 보내면 제일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일본사람들이 친척 사람들이 보낸다고. 심으라해서 심는다든가. 그게 중심이니깐. 공짜로 받아서. 자기 돈들여서 했으면 그렇지 않을건데, 그냥 그 배급받으러 오십시오 해서 공짜로 받아지니깐 뭐 귀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같은 곳은 정확히 받아가지고 제주대학교 같은데는 잘 심었지요.
- ▶ **사회** : 재일동포의 향토지원을 나누어 정리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 ▶ **고장수** : 재일동포의 향토지원 사업은 시대를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초창기는 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친목회가 자기 마을에 도로를 만든다든가, 전기를 가설한다든가, 이런 것이 중심이 됐고!
제일 초창기에는 김평진씨가 관광호텔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주도에 호텔같은 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연수생을 시작으로 해서 감귤, 물론 다른 일도 병행해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주도 전체에 감귤농업 증진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 ▶ **사회** : 묘목보내기 사업에서 행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 ▶ **고장수** : 감귤보내기 사업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통관업무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이 사람도 손내밀고 저 사람도 손내밀고 심지어는 부두 노동자들은 또 배짱 부러 가지고 일 안한다고 버티지... 안한다고 버티면 도리가 없지!
우선 그땐 뭐 통관부터가... 도지사면 제주도에서 제일 최고고, 도지사 이름만 대면 안될 것도 되는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해서 갔는데...
뭐 도청에 그 서류를 가져가니깐 담당인가, 그땐 뭐 특작과장이든가 과장부터 그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제주세관에 서류를 제출하면은 그땐 뭐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날 안되고 그 다음날은 될줄 알고 다음날 안되고 다음에는 검역이 끝나야 이게 통관을 해준다 해서 그때 한참 3~4일 되야 끝나고 그 후에야 세금내라 하는 등 무질서였습니다.
- ▶ **정승연** : 묘목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이니깐 여기서 다 씻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배에 싣어서 가면 가는 것이 1~2일이 걸리지요. 가면 거기에서 통

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깐 시간적으로 일주일 최소한도 일주일엔 걸려버리니
깐 그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 **고장수** : 그래서 그걸 막기 타소장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때에 제주 부두 저쪽에 주정 공장 부지가 있었습
니다. 임시 타소장치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격리해두는 방법으로 거기에 넣어
뒀다가 나중에 가져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데 정말 상당히 복
잡했습니다.

▶ **정승연** : 세관에서는 자기의 입장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 **사회** : 그래도 이 사업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는다면 누구입니까?

▶ **고장수** : 현공수씨는 감귤은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애썼어요. 본인이
특히 열심히 했습니다.

▶ **정승연** : 예 그 분이 이사장 때 많이 움직였습니다.

▶ **사회** : 그분은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 **고장수** : 위미!

그런 걸 내다볼 수 있는 식견도 있었던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 **정승연** : 또 위미 자체가 이 그 감귤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합시다 해서 현공수씨가 고향에 가면 중심이 돼 사업을 폈습니다.

▶ **사회** : 당시 도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고장수** : 자기가 뭐 그때는 제주도민 삶의 수준이 아주 낮았지 않습니까? 그
래서 단지 그 마을별로 조금씩 기증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뭐 그래서 일본
에서 자기친척, 형제가 있는데.. 자기 밭이 있는데 자기밭에 좀 심고 싶다고
해서 개발협회에 신청을 할 정도였으니깐..

▶ **정승연** : 개인으로 보낼려고 하면은 묘목 하나가 그때 한 200엔쯤 했을 겁니
다 그것을 산다 할지라도 사가지고 또 고향에까지 가져갈려면 여기서 통관
관계가 문제가 됐습니다.

▶ **사회** : 보람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만.

▶ **고장수** :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감귤사업에 이어 비행기를 일본하고 제주도하고
직행으로 하게 한 것이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건, 제주에서 감귤원을 볼 때 내 손을 거쳐서 온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주에 한번 가면 감귤묘목 배부사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일본에 국제전화를 한번 신청하면 다음날 밤 아니면은 통화가 안될만큼 통신 시설이 열악했었습니다.

▶ 정승연 : 그래, 그래, 맞습니다.

그때는 출장으로 제주도에 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신문에 「개발 협회 사무장 정승연 입도」 해가지고 신문에 나올 정도였으니깐, 그 정도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게 없었으니깐.

▶ 고장수 : 아, 그렇습니다.

▶ 사회 : 당시 감귤묘목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 정승연 : 그땐 뭐 품종이고 뭐고.. 그냥 감귤나무!! 그것밖에 몰랐으니깐 뭐 우리가 잘 몰랐지 않습니까? 교회장님도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 고장수 : 그래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천같은 것은 조생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조생이 좋다 해가지고 조생을 했고. 청도는 중생인 것은 알았지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심는 사람도 조생이면 어떻고 중생이면 어떻고 만생이면 어떻고 관계없이 심었기 때문에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낸 사람도 잘못되었고 받는 사람도 잘 몰랐어요.

▶ 사회 : 전체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정승연 : 그 지식이 그땐 없었어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까.

▶ 고장수 : 이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소요된 예산!

계산하기가 어렵지예? 환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 정승연 : 그니깐 그때 보낸 것에 대해서 전부 합치면 상당할 것입니다.

▶ 고장수 : 알선도 예. 알선도 기증으로 본다면은? 대략? 제주도로서 그땐.

세금내는 건 별도로 하고 일본에서, 실지 7억2,000만원... 그때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이지. 그때 100원짜리 밖에 없었거든요. 100원짜리 밖에 없었어.

「하이라이트」라는 일본 담배가 80엔일 때. 담배 한 갑으로 땅 한 평 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정승연 : 난 5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고장수 : 아 그때 커피가 50원이었으니깐..

남군 위미 같은데 가면은 평당 50원이면 땅을 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 ▶ **정승연** : 50원 했을 겁니다. 밀감하면서... 감귤하기 전에는 50원도 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 ▶ **고장수** : 제주도에 감귤밭이 없을 때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진 몰라도 10,000평 이상인가는 평당 5원짜리도 있었다고 하던데.
- ▶ **정승연** : 감귤 때문에 밭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 ▶ **고장수** : 당시 일본에서 어느 정도 뭐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천평에서 한 만 평 정도 토지를 산다든가 했습니다.
- ▶ **사회** : 묘목 수집과 선적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 **정승연** : 묘목을 세척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었습니다.
- ▶ **고장수** : 근데, 10만본이란 본수를 그 수량을, 세척하려면은 한달 전부터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후쿠오카 무역회사 가면 그 동네사람들 전부 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2~3시까지 또 다음날 아침 6시부터 그때 한달 30명정도 일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겠는데, 옛날엔 그랬습니다.
- ▶ **고장수** : 씻고, 그 한쪽에선 씻은걸 물 빼가지고 지금은 뭐하지만 그때만 딱 맞으면 식물검역관이 그 무역회사에 와서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 ▶ **사회** : 감귤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까?
- ▶ **정승연** : 당시 감귤 외에 전분공장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일본에서는 그 저 감자가 많이 났었는데, 전분공장을 제주도에 가져가면 어떻게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관씨가 제일 먼저 했지만은 그분이 제주도 출신 특히,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위해서 상당히 힘써줘서 초청관계도 그분이 그랬고, 그분이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그때 친지방문 등 많이 오셨습니다. 김영관씨가 전부 책임을 지고 했습니다.
- ▶ **사회** : 배부과정도 어려웠으리라 여겨집니다만.
- ▶ **고장수** : 감귤묘목 배부과정에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명단작성을 해야 하는데 난 그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 ▶ **정승연** : 품명별, 몇 년생, 어디사람 누구누구...
도민들에게 나눠줘도 그 뭘니까? 세관에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도청이 받아가지고... 이런데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라는걸 알기 위해선 명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명단은 이 사람들이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은 몇 번 쓰고 몇 번 들고 몇 번 확인하고 했습니다.
- ▶ **사회** : 당시 묘목은 어떻게 수집했습니까?
- ▶ **고장수** : 묘목 수집은 이사회에서 내년에 감귤사업을 시작기로 결정이 되면, 이를 고지하고 자기네는 한 1,000본, 10,000본 그것을 신청을 하면서 돈을 납부를 하고 그 전체의 10만그루면 10만그루를 후쿠오카에 발주를 해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선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 ▶ **정승연** : 그러니까 그게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 ▶ **고장수** : 내년도 사업을 접붙이는 것을 대목이라고 하는데 대목은 개탕수나무... 탕수나무 거기에다가 품종별로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탕자나무에 접붙여서 1년 후에야 1년생으로서 출하가 되지요. 그니깐 주문하게 되면은 대강 몇본쯤 되리라는 것을 1년 전에 묘목회사에 얘기해야... 그럼 업자들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보내게 되면 아까처럼 그 개인명단을 보내는 사람하고...
- ▶ **정승연** : 묘목이 도착하면 그 이쪽에서는 이제 명단을 작성해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쪽에서? 이쪽에서 할 때에는 도장받아서... 그때 도장가져오라 해도 결국은 그냥 싸인한 사람도 있고, 우선 그 저기 가서 통관하는데 돈 필요하게 되니깐, 돈 가져온 사람이면 묘목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 ▶ **사회** : 통관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 ▶ **정승연** : 그때 한 몇 % 인고? 그때 1분에 20엔 정도? 한박스하면 돈이 얼마 되느냐 하면 8,000원 정도 였을 겁니다.
- ▶ **고장수** : 그러니까 월급도 8,000원? 그것도 8,000원? 감귤 값도 8,000원? 통관비도 8,000원?
- ▶ **정승연** : 통관비는 한그루에 10엔정도였을 겁니다.
- ▶ **고장수** : 그렇게 안 봤는데?
그때 그렇게 찾아가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묘목을 배부한 다음에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건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그러니까 도 특작과나 거기에서가 할 뿐이지예...

사람들이 심었지만은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전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일본에 있는 업자들 데려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에 전정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 **사회** : 최근 한·미FTA로 감귤산업 위기론이 팽배합니다만.

▶ **고장수** : 한·미FTA로 감귤산업의 위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상당히 섭섭합니다.

▶ **정승연** : 예 저도 동감입니다.

▶ **고장수** : 농민들이 애써 만든걸 거 어디 팔생각을 해야지. 그 만든걸 폐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건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 판로를 개척할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지.

▶ **정승연** : 아, 근데 그게 품종개량을 충분히 할 수 없어서. 계속 몇년에 한번씩 나무를 계속 적과하는데 그거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고장수** : 하우스를 크게 뭐 아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생각해서 그 감귤하면서 하우스 감귤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도 가면은 그런게 많은데 특히 대체작물로서 옥수수도, 콩도 막 재배하고 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200고지 정도 되면은 콩 같은건 심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옥수수 같은 것은 제주도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오키나와가 사탕 재배하기 시작하니까, 예,, 사료가 올라가거든, 세계 흐름을 보면 제주도에서도 농사지어가지고 충분히 전망있으리라고 생각하지요.

▶ **사회** : 이밖에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 **고장수** : 당시 묘목배부 때는 제주시내 한일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는 호텔이라고 해야 그 앞에 있는 라이온스호텔인가가... 그 앞에서 한일여관인데, 한일여관에서 방 빌어서 아침에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보통 출장오면 끝날 때까지 한 20몇일 걸렸습니다.

▶ **사회** : 끝으로 고향의 감귤농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 **정승연** : FTA 협정으로 제주도의 감귤산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도 그런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그때에 느낀 것은 일본도 미국에서 오렌지

들어올 때 한참 반대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압력을 못견뎌 오렌지하고 수입하게 되었는데, 받게 되니까 감귤농가들이 전부 반대했는데, 한 1~2년 지나니까 그렇지도 않았지요.

▶ **고장수** : 오렌지 같은 것은 맛은 좋지만은요, 먹는데, 그것을 잘라서 먹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3년쯤 되니깐 외면하게 되는...

일본도 그런 경험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오렌지밭하는 사람들 전부 잘라서 다른 식물을 재배하게 되니깐 오렌지 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한국에 수입하는것 보다는...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해서는 안되지만은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 **사회**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조 맹 수 (제주투데이 부회장) 강 승 진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오 창 훈 (제주투데이 기획실장)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기초연구

인 쇄 일 2007. 12.
발 행 일 2007. 12.
발 행 인 제주발전연구원장 허 향 진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690-8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청사2로 8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2~3층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홈페이지 : <http://www.jdi.re.kr>
인 쇄 처 일신옵셋인쇄사(☎ 064-758-1500)

ISBN 978-89-6010-024 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無斷 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